

일상풀풀 2014
OPEN
TABLE

2014 도시 생활 의제 77

관계와 삶의 근거지 복원을 위한 시민의제

.....
일시 | 2014년 3월 18일(화)~21일(금)

장소 | 전국 마을 곳곳



Contents

목차

01 일상폴폴2014 – 숫자로 본 오픈테이블	3
02 오픈테이블이 열리기까지	7
03 이야기들의 힘 – 성과와 평가	15
04 코디네이터 리뷰	29
05 2014 도시 생활 의제 77	35
06 테이블별 논의내용 모음	41
07 함께 하는 사람들(공저그룹)	171
08 부록	175
오프닝 녹취 및 후기	177
클로징 결과정리 및 후기	191



01

일상폴폴2014
숫자로 본 오픈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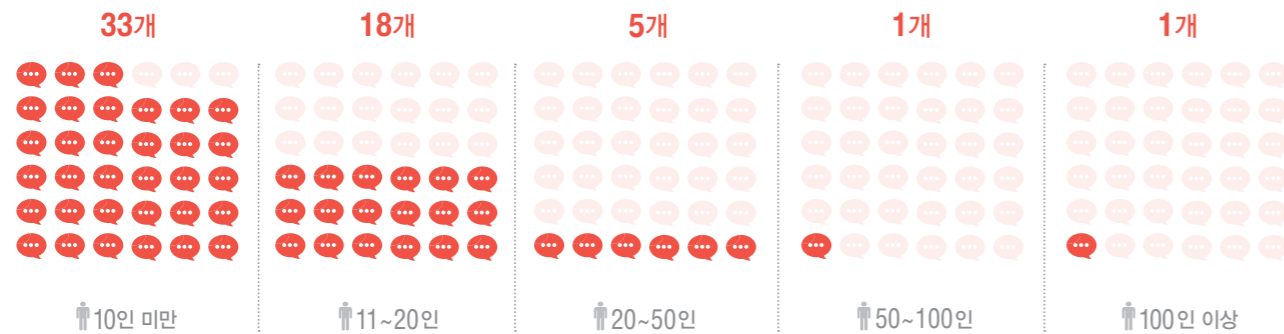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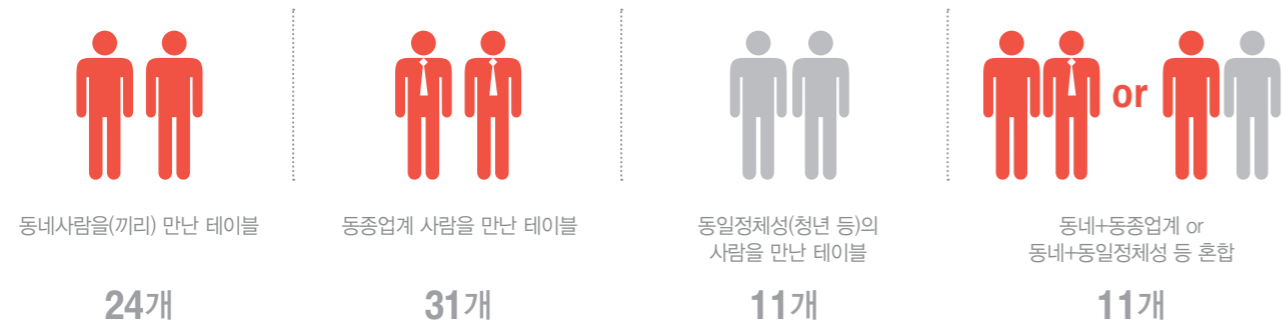
일상포플2014 - 숫자로 본 오픈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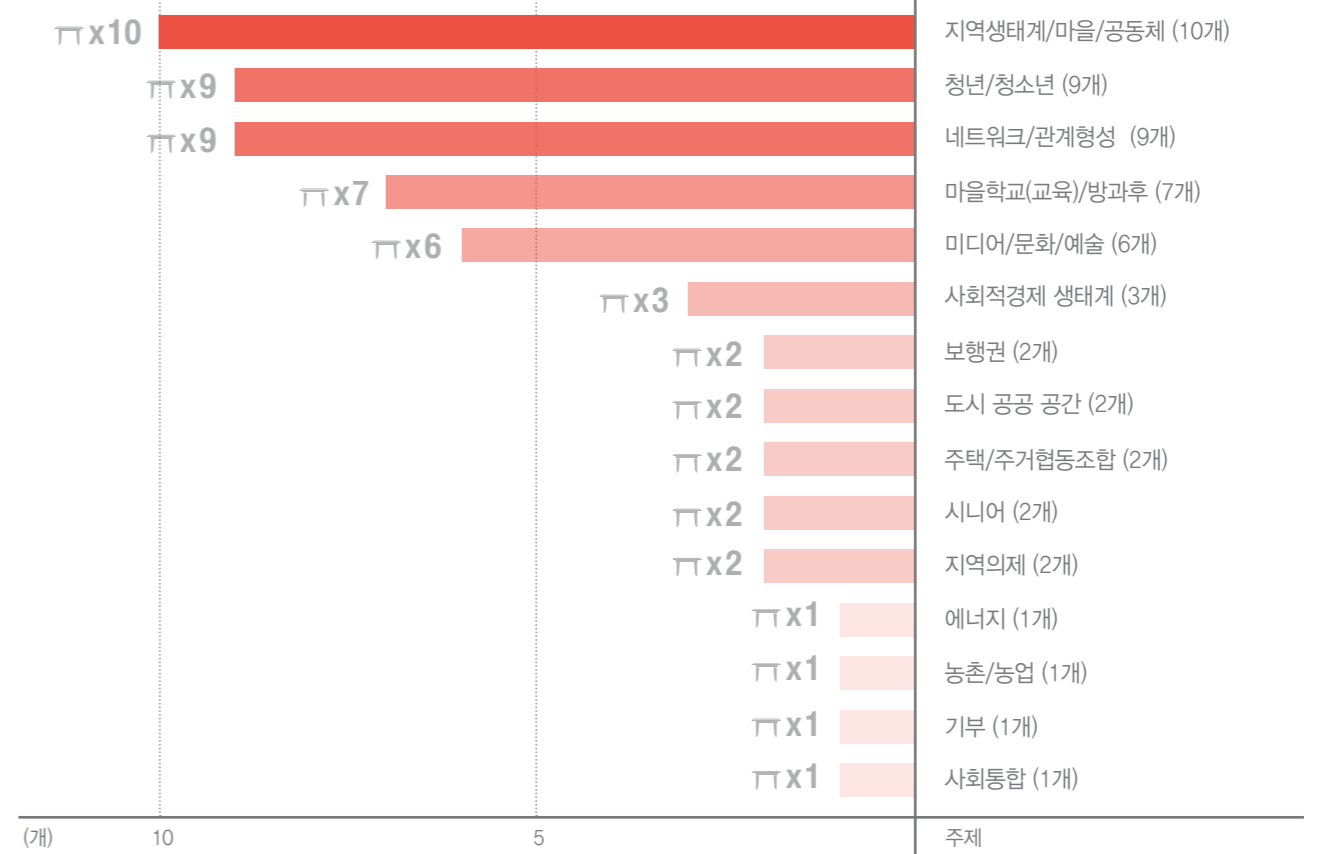
테이블별 모임규모 현황 *후기 공유된 테이블 중 테이블별 모임 규모 현황



모임(테이블)에서 만난 사람



주제별 테이블 현황 *논의 내용(후기)을 공유한 58개 테이블별 주제 현황



02

오픈테이블이 열리기까지

2장 | 점에서 면으로 공감을 넓혀가는 또 하나의 오픈테이블



02

오픈테이블이 열리기까지

점에서 면으로 공감을 넓혀가는 또 하나의 오픈테이블

1 <오픈테이블:일상폴폴2014> 개최까지

공론장이 돌아왔다

최초 제안은 '사회혁신공간There' 와 함께 했던 정책 그룹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사회혁신을 주제로 열렸던 '사회혁신공간There' 정책 그룹 주관의 간담회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서 "관계와 신뢰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문제해결 방식으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공유되었다.

그 당시 이 상상의 실체를 두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이들은 (가칭) '지역의제컨퍼런스' 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지역의제컨퍼런스' 라는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세 가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행사주관은 물론 이 기간 동안의 의제 설정은 민이 주도한다는 것과 두 번째, 그를 위하여 '오픈컨퍼런스' 와 동일 혹은 유사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 세 번째, 광역/기초 등으로 의제의 공간적 범위를 좁혀서 진행한다는 것.

그것은 누구랄 것 없이 어렵지 않게 공유되었는데 이는 '오픈컨퍼런스(사단법인 더체인지)' 를 제안하거나 실행했던 그룹이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소위 전문가 그룹에 의해 생산되거나 발굴되는 정책 생산 방식에 대한 한계와 문제인식이 내부적으로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5일 토요일 이었다.

점에서 면으로 상상을 공유하다

그 뒤, 2번의 회의가 더 있었다. 처음 한번은 기존의 정책 그룹이었고 나머지 한번은 플랫폼, 문화, 정책 분야의 기획자들을 추가 초대로 구성되었다. 초대는 최초 그룹들 사이에서 추천되었다. 이 두 번의 회의를 거치며 아이디어들이 보태졌다.

2013. 10. 5	사회혁신공간There 정책분과 주최 1차 간담회 - 오픈형 정책플랫폼 : 지역의제컨퍼런스 최초 제안 - 참석자 : 정책위원 5인 외 3인
2013. 11. 8	1차 기획회의
2013. 11. 27	(가칭)지역의제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사전워크샵
2013. 12. 26	2차 기획회의
2014. 1. 7	3차 기획회의 - 오픈테이블:일상폴폴2014 명칭 확정 - 3월 18일 ~ 21일 일정 확정
2014. 1. 9	기획실행팀 1차 회의
2014. 1. 13	기획실행팀 2차 회의
2014. 1. 15	4차 기획회의

표 1. <오픈테이블:일상폴폴2014> 기획단계 일정

취지에 공감하며 함께 기획하고 실행할 그룹과 사람들을 추가로 더 모아보자는 의견이 두 번째 회의에서 나왔고 그룹 구성원들의 초대로, 그 다음 모임에 3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사전모임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문화기획자, 디자이너, 공간 운영자, 중간지원기관 실무자, 문화매거진 편집장 등 다양한 멤버들이 초대되었다.



▲ '(가)지역의제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사전워크샵' 현장사진, 홍대 썬크카페 / 13.11.27

이날의 회의명은 '(가칭)지역의제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사전워크샵' 이었고,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홍대 썬크카페에서 열렸다. "일상 폴폴"이라는 슬로건이 이 자리에서 나왔고 제안한 사람은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였다. 그녀는 '지역의제' 라는 표현이 무겁고 제한적이라며 "일상의 이야기들이 폴폴 피어난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이는 없었고 대체로 공감했다.

플랫폼의 명칭인 "오픈테이블"은 2014년 1월 7일 기획회의에서 어느 주거연구소장으로부터 언급되었고, 공식 행사 명칭인 <오픈테이블:일상폴폴2014>는 이날 최종 확정되었다. 3월 셋째주에 4일 동안 진행되는 일정도 이날의 회의 자리에서 결정되었다. '지역의제 컨퍼런스' 로부터 시작해서 <오픈테이블:일상폴폴2014>가 열리기까지 총 8번의 기획회의와 1번의 사전워크샵 (이라고 표현했지만 일종의 설명회)이 있었다.

누구는 동네사랑방이라고 했으며 혹자는 펍(Pub)문화를 혹은 살롱문화를 예로 들기도 했다. '오픈컨퍼런스(사단법인 더체인지)'은 물론 이고 어떤 이의 추천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었던 '커피당'을 참조하기도 했다.

<오픈테이블:일상폴폴2014>는 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인 상이 회의를 통해 공유되었고,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소규모 공론장에 대한 상상으로 시작되었다.

1 문턱은 낮추고 참여한 사람들이 결정한다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는 열린 회의 구조를 통해 논의되었고 공감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의 기획 과정은 또 하나의 오픈테이블이었다.

기획/실행그룹 형성은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구성하는 방식이었으며 공론장을 통해 논의되고 공유되며 결정되었다.

기획회의는 취지와 최소한으로 정해진 방식(대원칙)에 공감하는 그룹 혹은 개인들의 초대로 구성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열린 회의 구조로 운영되었다. 결정단위를 별도로 두지 않았고 일정과 명칭, 운영방식 등은 참여한 사람들이 의견을 내어 공감대를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런 과정 속에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는 테이블 아카이빙 및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홈페이지 및 홍보인쇄물)을 제공하고 공공 및 정당 등의 실행그룹과 연계하는 플랫폼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의 개별 테이블 운영은 테이블을 제안하는 제안자와 참여자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100% 충당하였으며, 공통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의 일부(1/3)는 소셜펀딩을 통해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코디네이팅그룹인 사회혁신공간There에 구성되어 있던 기금으로 충당하였다.

공통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행그룹은 기획그룹 중 자원한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내용	기간	Due
오픈테이블 주간	3월 18일 ~ 21일	4일
- 오프닝	3월 18일	1일
- 클로징	3월 21일	1일
테이블 사전등록 기간	2월 17일 ~ 3월 7일	18일
텀블벅 펀딩 기간	2월 19일 ~ 3월 14일	27일
퍼실리테이터 교육	3월 6일(수) 14 ~ 17시	3시간

표 2.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주요 일정

2 행사개요 - 이야기들의 힘, 테이블간의 네트워크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는 누구나 이야기 하고 싶은 주제로 테이블을 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해결에 다가서는 의제테이블이다.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는 3월 18일 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오프닝은 대중강연과 토크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의 개최를 알리고 관심을 넓히는 일종의 대중 접점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였다. 클로징은 테이블 제안자 혹은 참여자들이 모여 의제를 정돈하는 기획으로 진행되었다.



오픈테이블은 테이블별 개별 행사가 아니며 독자적인 테이블간 네트워크이다. 오픈테이블은 특정 시기 공통의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며, 카페, 옥상, 거실 등 전국 마을의 일상의 공간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 함께 해결하고 싶은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이 직접 테이블을 제안하고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공론장이다.

올해 (2014년) 3월 18일 (화)부터 21일(금)까지 4일간 “일상포플2014 - 도시 일상의 전환”을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일상과 도시생활에 대한 모든 자유주제로, 3명 혹은 10명이든 모이는 사람 수의 제한은 없었다. 논의방식도 수다, 아이디어 공유, 정책생산 등의 모든 방식이 열려 있었다.

또한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를 통해 제안된 정책/의제/아이디어는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경로를 찾아 제안되도록 하는 연계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올해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후보자들에게 정책과제나 이슈로 제안될 예정이다.



1 〈기획자,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다〉 테이블 현장 모습, 서울 양천 숙영원 / 14.3.19

2 〈함께 뛰는 법을 잊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활프로젝트〉 테이블 현장 모습, 흥대 씽크카페 / 14.3.21

Program

오픈테이블 행사는 테이블들이 열리는 1) 오픈테이블 주간과 오픈테이블 주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2) 오프닝 3) 클로징, 사회혁신가들의 네트워크 파티인 4) 네트워크테이블 등 총 4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픈테이블 주간 | 2014. 3. 18 ~ 21

누구나 이야기 하고 싶은 주제로 테이블을 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과 이야기 주간

오프닝 | 2014. 3. 18 (화) 14:00~16:00 흥대 브이홀

오픈테이블 주간을 알리는 오프닝 토크콘서트

〈2014 도시생활백서 - 일상의 전환을 말하다〉

문제를 알아도 풀어내기 쉽지 않다. 탈근대와 위험, 재난, 피로사회로부터 즐겁게 살아내는 방법에 대한 공동체적 질문. 그리고 느리게 살고 지속적으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다양한 대안적 삶에 대하여 사유한다.

- 사회 : 이철희 /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 연사
 - 조한혜정 /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정윤수 / 스포츠평론가
 - 권용진 / 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
 - 강풀 / 만화가



- 1 <오프닝 현장 모습> 사회자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강연자인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정윤수 스포츠평론가가 무대에서 객석의 질의를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흥대 브이홀 / 14.3.18
- 2 오프닝 현장 객석 모습, 흥대 브이홀 / 14.3.18
- 3 <오프닝 현장 모습> 세 번째로 강연에 나선 권용진 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이 '우리 동네병원이예요' 라는 제목으로 공공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 중인 북부병원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흥대 브이홀 / 14.3.18
- 4 <오프닝 현장 모습> 네 번째로 강연에 나선 강풀 만화가가 '길고양이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강동구에서 진행 중인 길냥이급식소의 제안배경과 추진상황, 정책반영 노하우 등에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흥대 브이홀 / 14.3.18

네트워크 테이블 | 2014. 3. 19 (수) 18:00 ~ 21:00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플랜B를 꿈꾸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파티

클로징 | 2014. 3. 21 (금) 18:00 ~ 21:00 은평 청년허브 다목적홀

테이블 참석자들이 테이블별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올해의 중점과제를 직접 뽑아보는 마지막 세션



▲ 클로징 세션 현장 모습, 은평 청년허브 다목적홀 / 14.3.21

Process





03

이야기들의 힘 성과와 평가

3장 | 1,400여명의 시민으로부터 77개의 시민의제 도출



03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성과와 평가보고

1,400여명의 시민으로부터 77개의 시민의제 도출

1 성과보고

77개의 테이블 1,400여명 참여

총 77개의 오픈테이블이 사전 등록되었고 이 중 74개의 테이블이 열린 것으로 확인되며 후기(논의내용 공유)는 58개 테이블에서 공유되었다.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는 다음의 대전제를 점진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방식을 취했다.

- 1)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의제설정 및 자원조달
- 2)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견해를 담아내기 위한 중립적이고 수평적인 의제 플랫폼 운영
- 3) 정책 생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공/정당' 과 '민간' 연계

2014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최초의 제안자(코어) 그룹으로부터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행사 시작 50일전부터 페이스북 플랫폼을 활용하여 행사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나갔다.

2013년10월~ 2014년1월	최초 제안(코어) 그룹으로부터 점진적 공감대 형성
2013년2월~ 2014년3월	SNS(페이스북) 플랫폼을 활용한 공감대 확산

표 3.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공감대 형성 전략

행사 안내(홍보) 노출 대비 참여율 3.9%, 적극적 참여(의제제안)비율 0.22%

공감대 확산의 온라인 매체로 '페이스북'을 활용한 것은 지인(친구)의 추천과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소셜 네트워크 형성 방식이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의 신뢰와 관계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방식과 흡사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계정은 사회혁신공간There 계정을 활용하였다.

또한, 사회혁신공간There의 그룹과 기획그룹으로부터 추천된 그룹들을 리스팅하여 메일링서비스를 총 3회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개최의 의미를 전달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게시물 지인으로부터 확산되는 방식이어서 총 도달수(홍보 노출 총수)를 게시물별 도달수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 게시물 중 읽은 사람의 수가 가장 높은 것을 총 도달수로 보았다. 또한 사회혁신공간There 이외의 다른 계정을 통해 홍보된 내용은 정확한 집계기 어려워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행사에 대한 단순 보도이거나 테이블 제안자들에 대한 의제 소개 였던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그룹 또한 집계에서 제외되었다.

'사회혁신공간There' 계정에 올린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게시물 중 가장 많이 노출된 게시물은 오프닝 행사 안내글로 총 29,712명이 보았다. 거기에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안내 받은 사람수 4,000명(실제 확인을 알 수 없음)을 포함하여 총 33,712명이 1번 이상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시	내용	노출수(명수)
13. 11. 27	사전워크샵 소식 알림	334
14. 02. 08	오프닝세션 연사(권용진/북부병원장) 인터뷰	324
14. 02. 10	테이블 모집 안내	1,178
14. 02. 18	오픈테이블 소개(1) 소셜펀딩사이트 '텀블벅' 소셜펀딩 알림	352 350
14. 02. 24	오픈테이블 소개(2)	446
14. 02. 26	1차 홍보동영상 공개	453
14. 02. 27	사전등록 기간 안내 오픈테이블 소개(3)	7,820 493
14. 02. 28	퍼실리테이팅 교육 알림	2,091
14. 03. 04	등록 갯수 등 정보안내	381
14. 03. 05	오픈테이블 소개(4)	277
14. 03. 06	퍼실리테이팅 교육 현장 스케치(1) 퍼실리테이팅 교육 현장 스케치(1)	416 377
14. 03. 07	테이블 사전 등록 마감 안내	192
14. 03. 10	지정공간 안내 소셜펀딩사이트 '텀블벅' 소셜펀딩 안내	328 331
14. 03. 13	오픈테이블 소개(5)	439
14. 03. 14	오프닝세션 일정 안내 오프닝세션 소개	2,233 29,712
14. 03. 18	오프닝세션 스케치(1) 오프닝세션 스케치(2)	608 765
14. 03. 19	오픈테이블 즐기는 방법 안내 오프닝세션 사진 재게재 오픈테이블 참관 스케치(1)	5,874 227 416
14. 03. 20	오프닝세션 후기 공유 오픈테이블 참관 스케치(2) 후기 공유 일정 안내	240 255 1,778
14. 03. 21	클로징 세션 스케치(1) 클로징 세션 스케치(2) 클로징 세션 스케치(3) 클로징 세션 스케치(4) 클로징 세션 스케치(5) 클로징 세션 스케치(6) 클로징 세션 스케치(7)	478 348 312 504 850 744 647
14. 03. 24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메이킹 영상 공개	666
14. 03. 25	오픈테이블 논의내용 공유	3,100
14. 03. 26	클로징 세션 후기 공유	623

14. 04. 02	웹발간물 일정 안내	550
14. 04. 08	클로징세션 특별 키워드 공유	498
14. 04. 15	테이블별 논의내용 공유 마감 안내	357

표 4. 페이스북 홍보 현황

〈보도현황〉

게재일	기사제목	좋아요
14. 03. 04	“20년 월세 내면, 20년간 공짜로 살 수 있어요” / 새중대연구소 이재준 소장 인터뷰	358
14. 03. 08	“1인가구의 외로움...이렇게 하면 친구초대도 가능” / 서울소셜스탠다드 김하나씨를 만나다	60
14. 03. 11	높은 청년 실업률,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 일자리허브 전효관 센터장	299
14. 03. 15	“자영업하다 망한 50대... 북한산이 닮는다” / 민주당 김현미 의원	48
14. 03. 18	“젊은 예술가에게 실업급여 지급해야”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322
14. 03. 20	종친회 땅을 놀이터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 이강오 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64
14. 03. 21	교사 때려치우고 농촌으로... 그는 왜? / 박형일 흥성 진로농장 대표	50
14. 03. 24	“제2 롯데월드 지으면, 밀양 사건 또 난다” /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102
14. 03. 26	“작년에만 공무원 다섯명이 죽은 이유는...” / 기현주 서울복지재단공동체협력팀장	44
14. 03. 28	‘교통 표지판’ 없는 마을이 행복한 이유 / 박승배 도시연대 사무처장	12

표 5.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게재 현황

게재일	기사제목	좋아요
14. 03. 02	‘일상포플:오픈테이블 2014’, 21일 폐막	연합뉴스
14. 03. 17	송창윤 후보“일도2동에 ‘오픈테이블’ 프로그램 운영”	헤드라인제주
14. 03. 17	3선구 송창윤, ‘오픈테이블’로 도민과 소통	시사제주
14. 03. 17	송창윤 ‘오픈테이블 프로젝트’ 제안	제주도민일보
14. 03. 19	시민이 직접 지방선거 의제만드는 ‘오픈테이블’ 개최	인터넷한국일보, 서울경제
14. 03. 23	김병수 전주시장 예비후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상정책토론회 참석	전북도민일보
14. 03. 25	모여서 수다떨다보니 혁신 아이디어 ‘붐물’	한겨레
14. 03. 19	시민이 직접 지방선거 의제만드는 ‘오픈테이블’ 개최	연합뉴스

14. 03. 24	부모에, 자식들에 ‘긴 세대’ 베이비부머들의 선택은?	프레시안
14. 03. 23	김병수 후보, “종합경기장 공급자적 개발방식 벗어나야” - 박원순 서울시장과 ‘2014 오픈테이블’ 참석	아시아뉴스통신
14. 03. 20	도시생활 의제 시민이 직접 만든다	머니투데이
14. 03. 23	김병수, 박원순 시장과 토론회 참석	전북일보
14. 03. 19	시민이 직접 지방선거 의제만드는 ‘오픈테이블’ 개최	연합뉴스,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표 6. 기타 언론보도 현황

1회 이상 행사에 대한 안내와 참여 독려를 받은 그룹 중 오프닝 행사 참여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긴 비율은 4%이며, (덧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른 그룹은 집계에서 제외) 테이블 제안(적극적 참여) 비율은 0.23%에 달한다.

- 1번 이상 행사 안내를 받은(노출) 사람 중 참여하는 사람 비율 : 4%
* 덧글을 달거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누른 그룹은 집계에서 제외됨
- 1번 이상 행사 안내를 받은(노출) 사람 중 테이블 제안자수 비율 : 0.23%
- 테이블제안자 중 사전 기획회의 참여자(19명) 비율 : 24.3%
- 기획회의 참여한 사람 중 테이블 제안한 사람 비율(57명 / 19명) :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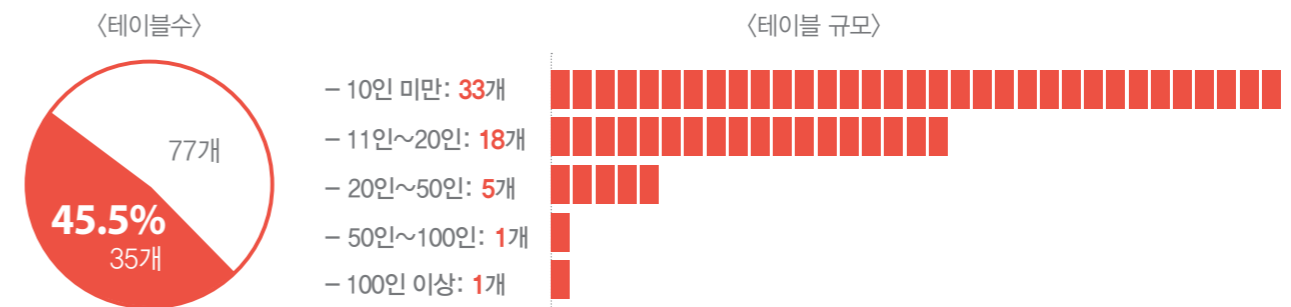
총도달(명)수	33,712	총참여자	1,349(4%)	테이블수	77(0.23%)
페이스북	29,712	기획회의 참가자	57	실제 열린 테이블수	75
메일링서비스	4,000	퍼실리테이션교육참가자	24	후기 등록 완료 (4/15) 테이블수	58
오마이뉴스 보도 (좋아요)	1,359	오프닝 행사 참가자	149		
		클로징 행사 참가자	69		
		오픈테이블 참가자	1,050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서 관계 지속성 높고 목적 없이 만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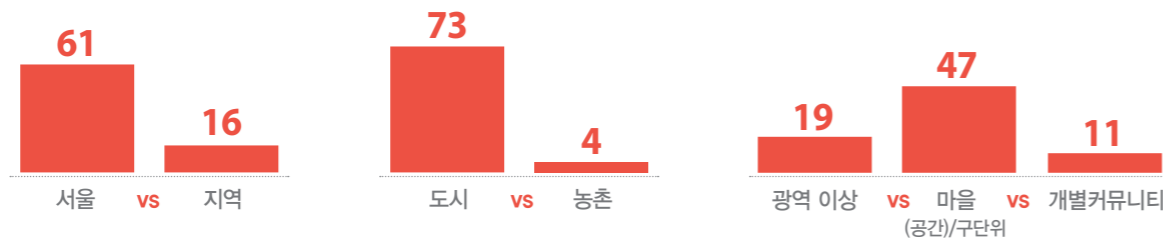
77개 테이블 중 정책개선안 혹은 정책 제안 내용이 담긴 테이블은 총 35개였다. (후기 공유 테이블 58개였음)

테이블 규모는 10인 미만의 테이블이 가장 많았다. 후기가 공유된 58개의 테이블 중 20인 이상 테이블은 총 25개로 전부 지역과 관계없이 동종업계 혹은 동질(청년 등) 그룹의 모임이었다.

- 후기 공유된 58개 테이블에 한하여 작성됨
- 오프닝/클로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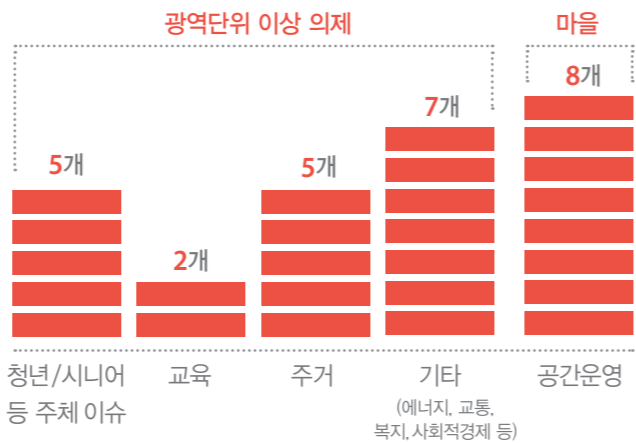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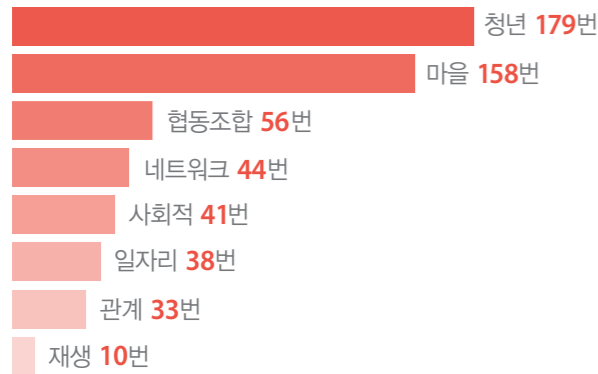
지역적(테이블이 열리거나 의제의 관련 지역)으로는 서울지역이 우세했고, 테마가 '도시생활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의제가 4개였으며, 이는 도농교류/도농순환 관련 의제였다. 의제의 포괄(공간적) 범위는 특정 공간 혹은 동단위 이슈가 가장 많았다.



후기 내용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청년(179번)과 마을(158번)이었다. '청년' 키워드가 많이 언급된 것은 등록된 테이블(77개) 중 청년(의제) 테이블이 28.2%로 가장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마을', '협동조합', '네트워크', '일자리' 등의 키워드는 문제해결의 방법론 차원에서 많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포괄 범위가 광역 단위 이상인 의제의 경우, 청년/시니어 등 사회적 의제였고, 의제의 특성상 정책 제안 방식이 아닌 주체의 조건을 공유하고 재정의 하는 것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테이블이 진행되었고, 포괄 범위가 공간/마을단위인 경우에는 공간 및 조직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키워드' 현황



8~10명씩 총 8팀으로 나뉘어 나온 의제들을 정렬해보고 올해의 중점과제를 뽑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된 클로징세션(21일)에서 참석자들은 올해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물음에서 "관계맺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에 오픈테이블별 논의내용을 통해 관계 지속성과 밀도를 높은 테이블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오픈테이블이 기존 모임의 연속선상에 있거나 이후 추가 모임이 제안된 경우(지속성)는 공간/마을 단위가 가장 높았고, 더불어 매 모임별 유사 구성원들이 모이는 경우(고밀도군)는 공간/마을 단위로 모이면서 단일한 정체성(청년)을 갖거나 동종업계(협동조합/귀농귀촌)의 구성원들이 모인 테이블이었다.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주요 활동의 근거지 거나 삶과 직결된 의제 등 '물리적 거리'의 영향이 크고 이들 관계의 밀도도 높았으며 그 경우 별다른 목적 없이도 만남을 지속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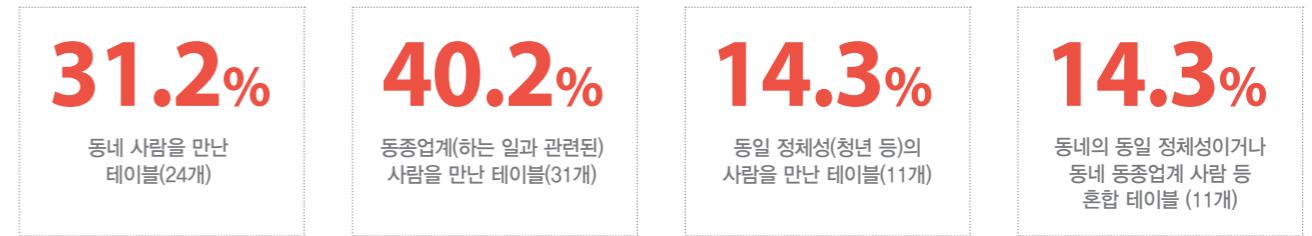


▲ <소셜픽션워크샵-꿈꾸는놀이터> 놀이터를 주제로 연구자, 시민단체활동가, 주민 등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 미래의 놀이터 모습에 대한 상상을 해보고 있다, 서울숲공원 내 환경놀이터 / 14.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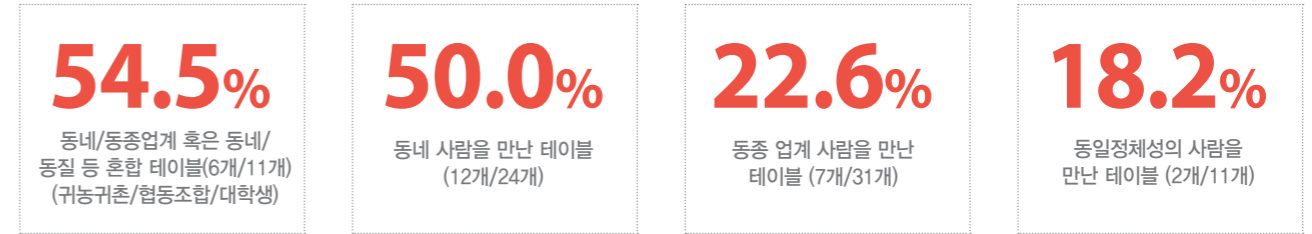


▲ <소셜픽션워크샵-꿈꾸는놀이터> 놀이터에 대한 상상을 위하여 참가자들이 놀이터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숲공원 내 환경놀이터 / 14.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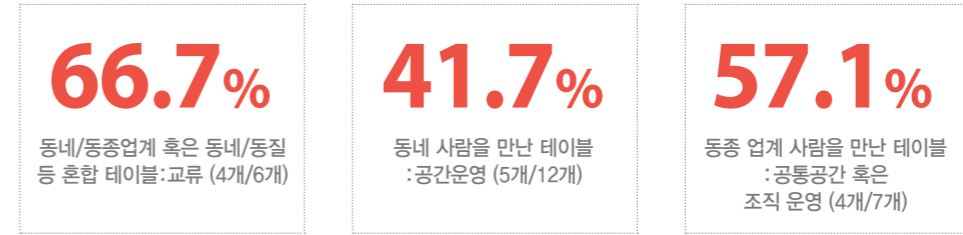
1) 누구를 만났나요?



2) 만나오거나 계속 만날 건가요? *연속선상에 있던 모임을 연 경우 혹은 동일 주제 유사 구성원과 이후 모임을 계획한 경우 *테이블별 관계유지를 표기



3) 왜 계속 만나요?(만남을 지속하는 이유) *테이블별 만남의 이유 중 가장 높은 항목만 표기



연관 태그(키워드) 관련

태그(키워드)는 온라인 사전 등록시 가지수나 주제 제한 없이 테이블과 관련된 키워드나 주요 내용을 기입하도록 했다. 총 222개의 태그가 언급되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아래와 같다. '마을' 관련 태그가 가장 많았고, '건강' 관련 태그가 단일 주제 중 가장 많이 나왔다. '건강' 관련 태그는 연령대와 무관하게 언급되었고 예방 관련 주제가 많았다. 이는 결과적 상태로서 '건강' ('안전' 포함)을 많이 꼽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생태/인성 교육 등 과정 중심의 경과적 교육에 대한 의제가 많았다. '마을' 및 '마을공동체' 관련 태그는 공간과 주민자치활동 관련 의제들이 많았고, 그 밖에 사회적개발, 복지, 도시계획 등 사회구조적인 태그들도 자주 언급되었다.



▲ 클로징세션 현장 모습, 참여자들이 77개의 의제를 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은평 청년허브 다목적홀 / 14.3.21

구분	태그내용
건강	건강공동체, 건강공원, 건강실천, 건강하다는 것, 건강한 삶, 건강협동조합, 마을에서 건강하게 살기, 건강마을, 믿을 수 있는 의료, 안전, 이봐 젊은이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은가, 함께 건강해지기, 함께 건강, 행복, 예방
주거	건축, 건축가, 걷고 싶은 도시, 1인가구주택공급, 대량생산주택, 민달팽이 유니온, 원룸 관리비, 세입자, 세입자네트워크, 관리비, 소셜하우징, 주택협동조합
문화/예술	라이프스타일, 런던-베를린 지원 정책, 대안극장, 대안적 배급, 기획자/예술가지원, 독립영화, 문화정책, 예술인 복지, 우리마을 미디어 공방,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공동체상영, 창작지원금
교육	학교폭력, 왕따, 학부모, 진로, 인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창의교육, 생태놀이, 대안교육, 달팽이수학정원, 빗물저금통, 부산교육, 교육의제, 그림책, 더불어 살 줄 아는 방법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육, 시민교육, 평생학습, 케이스터디하우스, 삶의 기술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공동구매, 공정여행, 금융,금융복지,금융소비자, 기금, 교복, 나눔, 협동문화, 재사용, 프라이탁 안전벨트가방, 인건비지원, 협동조합, 업사이클링, 에너지전환
마을	마을공동체, 마을교육생태계, 마을기금, 마을기업, 마을넷, 마을넷연석회의, 마을미디어, 마을미디어네트워크, 마을방송, 마을학교, 다운타운프로젝트, 에너지자립마을, 마을경제, 보광동, 보광마을살이, 아파트공동체, 생활복지공동체, 꿈꾸는 놀이터, 북카페, 놀이터, 시립병원, 부모커뮤니티, 신촌, 신촌공화국, 성대골, 자동차 없는 마을, 지역공동체, 지역생산, 지역재생, 지역정당, 주민의제, 주민제안, 주민행동, 이웃만들기
도시	도시계획, 도시연대, 도시재생, 도시텃밭, 서울숲, 서울의미래, 서울e품앗이
청년	청년, 청년고리, 청년공동체, 청년공판장, 청년미래, 청년일자리, 청년허브, 대학생, 대학생활, 자취생
은퇴자	50대, 명퇴, 베이비부머, 은퇴, 인생설계, 인생이모작, 제2인생청, 시니어, 정원코디네이터
기타	복지, 사회통합,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귀농귀촌균형, 농도순환, 농업, 자립자원순환, 사회적개발, 사회적경제, 사회적시장경제, 사회적주택, 정보공유, 적정기술, 전환서비스

표 8. 사전 등록시 기입한 태그 현황

2 평가 및 개선방안

오픈테이블 첫 회, 그 후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첫 회가 마무리되었다. ‘오픈테이블’ 첫 회 진행 후, 시민이 직접 생산한 의제의 사회적 영향력 및 파급력 향상을 위한 개선점은 없었지, 2013년 10월 부터 2014년 3월까지 기획부터 운영까지의 활동을 평가하며 더불어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기로 한다.

1) 취지 및 방향

다음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도의 의제설정 및 자원조달
 - 누구나 오픈테이블 개최 제안 가능
 - 시기별/주제별/주체별 시민의제 선언 및 발표
 - 개별 테이블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관련 100% 민간자원(소셜펀딩 포함)
-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견해를 담아내기 위한 중립적이고 수평적인 의제 플랫폼 운영
 - 가장 넓고 평평한 의제플랫폼 운영
 - 네트워크 확대 및 일상모임, 회의, 정책제안, 아이디어도출 등 제한 없이 유무형의 결과물 도출
- 정책 생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공/정당’ 과 ‘민간’ 연계
 - 정당 및 지자체 등 시민의제 제안/전달 및 보도자료 릴리즈

2) 운영 구조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은 3가지 운영구조를 가졌다. 결정권한을 갖는 단위를 두지 않았다. 만장일치, 다수결과 같은 결정방식/구조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다. 가장 넓고 평평한 구조(플랫폼)를 갖도록 하고 〈오픈테이블〉의 특징과 의미, 개최시기에 대한 공감을 넓히는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규모가 작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방식이었으며 자원연계나 배분과 같은 권력구조가 형성될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워크샵

첫 회(2014년)에서는 편의상 ‘기획회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실제 운영의 과정에서 ‘기획회의’ 보다 공감을 넓혀가는 ‘워크샵’의 성격을 띄었다. ‘워크샵’은 공론장 성격의 협의 구조였다. 결정단위로써의 성격을 갖지 않았다. 대다수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참여하게 되나 형식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안건은 참여한 사람 누구나 발의할 수 있는 구조다. 별다른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오픈테이블 개최 의미, 개최시기, 올해의 컨셉(일상포플) 혹은 테마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를 공감하는 자리였다.

(comment)

- 참여자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론장 형식 유지하고 서로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형식 확장 필요함
- 참여자수의 제한은 없었되 오픈테이블 의제주간 시작 전 3~5회 진행으로 참여 기회 제공되어야 함
- 기획/실행그룹의 기획내용에 대한 견제와 의견그룹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 필요함

● 기획/실행그룹

기획/실행그룹은 ‘워크샵’에 참여했던 그룹/개인 중 자원을 통해 구성하였다. 역할은 오프닝과 클로징 기획 및 실행, 공동 온오프플랫폼(홈페이지, 리플렛) 기획/운영, 소셜펀딩 추진, 공동기금 운영/관리 등이다.

(comment)

- 오픈테이블 개최 범위를 전국으로 유지하되, 지역별 실행그룹 별도 구성함
-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마련 및 적정예산으로 유지되도록 함
- 공동기금 운영 주체에 대한 간사그룹/단체 지정 필요함

● 오픈테이블 공동주최자 그룹

오픈테이블을 제안하고 개최한 그룹/개인 과 소셜펀딩 후원자 그룹을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공동주최자 및 단체로 칭했다. 후원/주최/주관의 층위를 두지 않았다.

(comment)

- 오픈테이블 실제로 개최한 제안자만 공동주최 그룹으로 포함되도록 함

3) 오픈테이블 의제 주간 운영

● 프로세스

오픈테이블 주간 40일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사전등록 하도록 하였으며 오픈테이블 개최 약 10일 전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한차례 진행하였다. 총 4일의 오픈테이블 주간 중 첫날과 마지막날 오프닝과 클로징행사를 진행하였다.

(comment)

- 오프닝/클로징/퍼실리테이터 교육 등 지역 공동주최 그룹 참여 어려움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
- 퍼실리테이터 교육 1회 이상 기회 제공 필요함
- 오픈테이블 주간(4일) 적정 기간 여부 확인 필요함



▲ 퍼실리테이션 기법 교육 현장 모습, 홍대 씽크카페 / 14.3.6



▲ 퍼실리테이션 기법 교육 현장 모습, 홍대 씽크카페 / 14.3.6

● 온라인플랫폼 개선 관련

온라인플랫폼은 테이블 사전 등록과 각종 공지 안내, 후기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comment)

- 지정 태그 안내 및 1개 이상 선택을 통한 연관 테이블을 온라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온라인을 통해 1차 카테고리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클로징때 유관테이블끼리 논의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함



- 태그수 5~7개로 제한, '태그' 설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 사전등록 테이블 개요와 후기 연계 방안 고안 필요함
- 온라인 협의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한 게시판 설치 요구됨

●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배치건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역할은 테이블 제안자가 자연스럽게 유도하도록 하였다. 대신 퍼실리테이팅을 위한 교육 한 차례 진행하였다. 퍼실리테이팅 교육 횟수 확대 및 테이블의 원활한 논의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배치와 관련된 의견이 있었다.

(comment)

-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배치와 관련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픈테이블' 의 현재의 모습은 아직까지 논의의 결과물을 어떤 수위를 정해두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열린 공론장을 통해 의견이 교류되고 협의되며 결정되어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 같은 별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고, 테이블에서 퍼실리테이터가 필요시, 테이블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진행하거나 기획단위에서 퍼실리테이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함.
-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할 것임
- 지역별 퍼실리테이터 교육 관련 다음 회차에 고민이 필요함

4) 오프닝/클로징 기획방식

● 오프닝

오프닝은 '거대한 전환' 과 '일상의 전환' 을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오프닝은 최초 제안그룹인 '사회혁신공간There' 와 기획실행그룹에서 함께 기획하였다. 오프닝은 대중강연 형식이며 오픈테이블의 개최를 알리고 관심을 넓히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의 올해의 핵심 키워드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었다.

(comment)

- 오프닝 방식과 주제 등 기획은 기획/실행그룹에서 '워크샵' 을 통해 나온 의견을 청취하여 기획되도록 하는 구조 설계가 필요함

● 클로징

클로징은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테이블 제안자 및 참여자, 일반 참가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일자리허브 다목적홀에서 '올해의 중점과제' 를 뽑는 워크샵으로 진행되었다.

(comment)

- 참석 대상은 테이블제안자 및 참여자로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함
- 참석 규모는 오픈테이블 개최수의 3/5이 적당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을 통해 연관테이블을 묶어 주제/주체별 연관테이블별 논의가 가능하도록 함
- 주제/주체별 올해의 중점과제를 뽑고 테이블 제안자들의 교류의 시간으로 마련함

5) 결과공유

테이블 논의내용은 후기, 녹취, 회의록 등으로 포맷을 제한하지 않고 공유토록 하였다. 다만, 참석자 및 사진은 1장 이상 꼭 첨부토록 하였다. 이 내용은 웹용으로 발간된다.

(comment)

- 발간물 관련 기획은 기획/실행그룹에서 진행토록 함
- 후기는 1주일내 공유를 원칙으로 제한되도록 함
- 논의내용을 단기/중기/장기 등 의제의 시급도에 따라 분류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결과내용 중 도출하고 싶은 내용은 사전에 기획하여 필수 기재 항목(온라인플랫폼활용)으로 넣되, 많은 항목을 기입하지 않도록 1,2 가지만 기획하도록 함

6) 공공연계

시민의제는 웹용으로 2014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comment)

- 공공/행정기관/정당 등의 자발적 참여 방안 강구 필요
- 참여 형태별 단계 설계 필요 및 오픈테이블 이후 과정 연계 방안 마련

청취 및 의견개진/취합	계획수립	아이디어도출 및 정책화	거버넌스 구성	실행
← 오픈테이블 내 과정 →				(이후 단계)

표 9. 단계별 참여 형태

3 소결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의 특성상 참여자의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의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 일회적 행사로 인식될 경우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별 사례와 내용을 누적해 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이 이후 내용을 심화하거나 사례를 누적할 수 있도록 하고, 테이블 제안자 혹은 참여자 그룹들의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기획이나 구조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① 참여 기회 확대 및 참여 편의성 증대

기본적으로 플랫폼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언제든지 필요시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테이블을 개최하고 해당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상시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상시적으로 의제를 등록하고 오프라인에서 논의를 한 후 결과물이 생성되는 과정에 의견을 달거나 테이블 참여의사를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시스템(공론장)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② 지역 기반 커뮤니티와의 연계

온라인을 통해 상시적 발의와 논의/소통의 편의성을 일부 보장하는 한편 지역 혹은 생활권 기반의 커뮤니티/네트워크의 일상적 소통의 장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연결을 위하여 〈오픈테이블〉 의제 주간을 연 4회 이상 개최하여 관계를 업데이트 하고 타 커뮤니티와의 연계 등을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논의 결과 정책 반영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문제해결의 경로별 사례를 축적하여 참여 경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의제별 심화 과정 설계

우리는 2014년 3월 4일간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의제주간을 통해 77개의 의제가 발굴되고, 58개(77개의 테이블 중 논의내용 공유 테이블 개수)의 사례를 축적하였다. 이 4일간의 의제 주간은 문턱을 낮춰 가장 넓은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하여 최대한 다양하고 다수의 일상/생활의 의제들을 발굴하였다. 클로징 세션을 통해 올해의 중점과제 혹은 중점적으로 논의해야할 주제별 의제 등으로 도출된 의제들을 정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렇게 나온 의제들을 심화하고 관련 사례를 누적해 가는 과정이 별도로 설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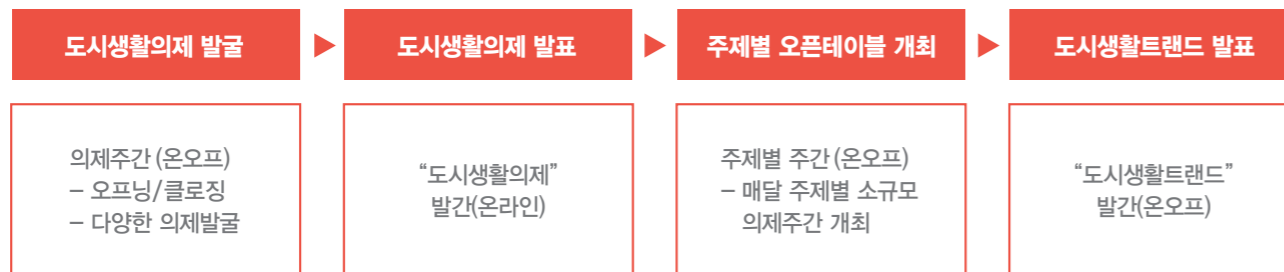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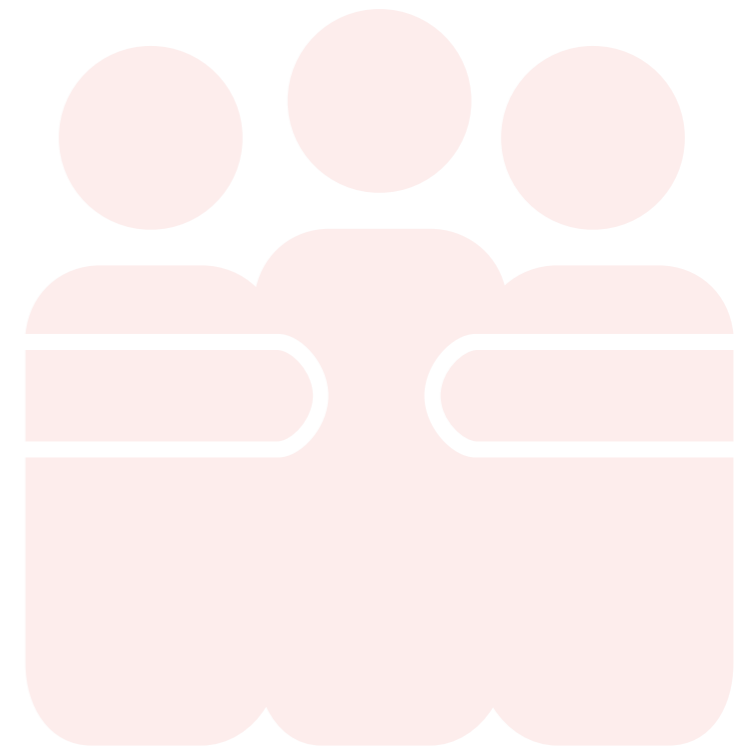


표 10.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개선방향 - 단계별 프로세스

이를 위하여 연초 오픈테이블 개최 이후 주제별 소규모 오픈테이블(10~20개 테이블)이 열리도록 기획하고 온라인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소규모 오픈테이블도 규모만 작은 뿐 동일 원칙과 방식으로, 수다부터 아이디어 도출, 정책제안, 사례공유, 전문가 대담, 토론 등 관련 의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물들이 축적되고 누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04

코디네이터 리뷰

4장 | “관계와 삶의 근거지 복원을 위한 시민의제77”을 제안하며



04

코디네이터 리뷰

“관계와 삶의 근거지 복원을 위한 시민의제77”을 제안하며

조수빈 (사단법인 사회혁신공간There)

전국 마을에서 74개(사전등록 77개)의 테이블이 열리고 오프닝과 클로징 참가자까지 포함하여 총 1,400여명의 시민들이 <오픈테이블: 일상포플2014>에 참여했습니다.

<오픈테이블: 일상포플2014>의 주간은 끝났지만 ‘오픈테이블’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진행한다는 소식도 종종 들립니다. ‘오픈테이블’ 장을 함께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한 감회와 응원의 메세지도 메일이며 SNS(페이스북)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결과 정리가 남은터라 주변의 긍정적 평가와 사인들을 부러 외면하고 있기도 하지만 성과는 분명이 있었지요. 1) ‘오픈테이블’을 알렸고(브랜드) 2) 시민 참여를 통한 양/질적으로 유의미한 의제 생산과 3) 확산모델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올해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픈테이블: 일상포플2014>를 함께 만들어주신 테이블 제안자 그룹(공동주최)과 참여자분들, 소셜펀딩 텀블벅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정공간 부족과 오프닝/클로징 등 미숙한 행사 기획, 공공과의 자원 연계 미흡 등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테이블 제안자들과 공동주최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이니만큼 어떤 결정에서 주저함이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픈테이블의 결과물이)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이 발간물의 명칭이 현재 <2014 도시 생활 의제 77>이지만, 최초 제안 당시에는 ‘정책 아이디어북’이란 명칭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지요.

오픈테이블이 마무리된 후 얼마 안되어 어느 시민과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낸 아이디어로 서울시에서 1달 간 운행중인 ‘타요버스’가 원조 논란과 함께 회자되었을 때는 하나만 잘 나와도 ‘대박’이겠다고 잠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망각에 가까웠습니다.

애당초 그것을 ‘아이디어’라고 명명한 것은 일종의 폄훼였다고 고백합니다. 주체이되 개별이라는 폄훼, 그 개별화된 주체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에 대한 폄훼와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비되는 것으로 결과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개별화된 주체들이 시대의 시그널을 동시에 감지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수한 공동체와 사회 의제들이 일상의 이야기로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 삶의 근거를 잃어간다는 것

청년들은 “일자리도 많고 사람을 구하는 곳들이 많은데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왜 꼭 좋은 일자리를 고집하느냐,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어른들은 말)하지만 (우리들은)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쉽게 아무 일이나 선택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다. 직종에 따른 암묵적 계급이 정해진 사회에서 열패감에 젖어 살고 싶지 않다고 항변” (오픈테이블@불편한 연구소) 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윗세대와 이어달리기를 거부한 최초의 세대” (오픈테이블@청년들의 일과 삶, 균형찾기) 라고 스스로를 일컫습니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스스로를 “샌드위치 세대” (오픈테이블@함께 뛰는 법을 잊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활프로젝트) 혹은 “긴 세대” 라고 규정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매정했습니다.

중년도 쫓기고 있었지요. 그들은 “쫓기는 삶이 힘들다” (오픈테이블@지속가능한 대내리 발전방법) 라고 말합니다.

생성과 동시에 모든 것은 소멸했습니다. 중첩된 시간은 없었고 기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머무를 공간도 없이 우리 모두는 단절된 채 허우적대고 있었나 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교수는 “모든 것이 대기 속에 녹아 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오픈테이블: 일상포플2014> 오프닝 강연 중)고 시대를 읽습니다. “시장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담보하지 않았고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할수록 실제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일에는 소홀했다”고 말합니다.

압축적 성장, 시공간의 해체와 더불어 면(관계)은 힘이 약해지고 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부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너무나도 명징한 결과였습니다.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누구나 주제를 갖고 테이블을 열 수 있는 오픈형 의제 플랫폼의 실험의 장이었던 <오픈테이블: 일상포플2014>의 화두는 ‘관계의 복원’ (<오픈테이블: 일상포플2014>클로징세션, 가장 많이 꼽힌 올해의 키워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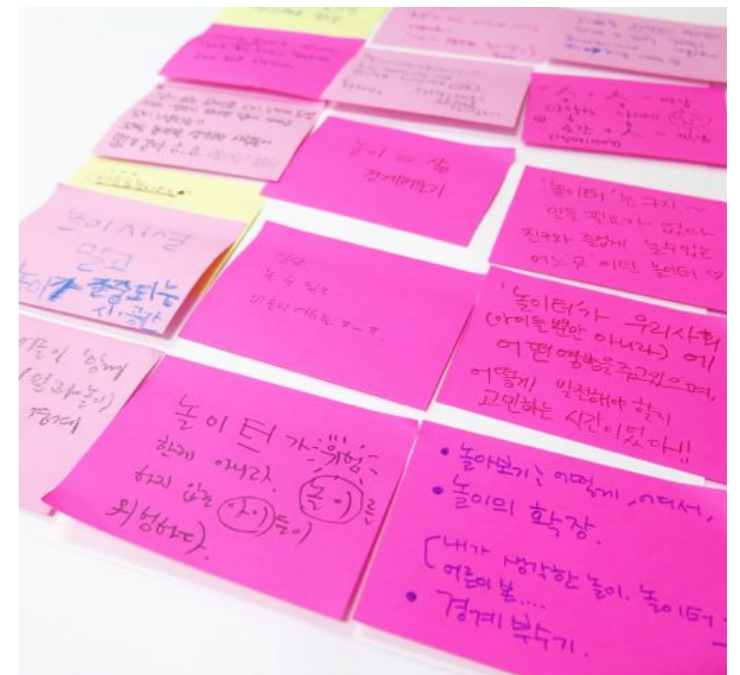
■ 존재의 근거가 되는 관계 찾기

<오픈테이블: 일상포플2014>에 사전 등록된 77개의 의제 중 40%가 관계 형성 관련 의제였습니다.

관계는 단일한 이해관계자들의 연대체적 성격을 갖거나 유사한 삶의 방식을 가진 공동체로 형성되었습니다. (오픈테이블@금융소비자네트워크 회의 / @집을 소유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 @발달장애인 세상에서 함께 살기 / @희망동네를 위한 엄마들의 마음돌봄, 함께 이야기 해요 / ATCK, 그 속 이야기 나눠봐요 / @더불어 사는 삶:입양에 대하여 / @청소년들의 학기초 관계 형성 방안 / @대학가 동네 문화 만들기 등)

관계는 자기 치유를 통한 성장의 토대였고 삶의 위안이었으며 힘없는 사람들의 지지대가 되었지요. 또한 도시의 공간들이 관계의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오픈테이블@꿈꾸는 놀이터 / @재미있는 병원 / @보광동 어린이 회의 / @혁신파크 상상메모 투어+포럼 / @꽃보다 마을공동체 - 우리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보러 갑니다 / @강남구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픈테이블에서는 관계의 재생을 위한 방안 논의와 주제에 대한 재정적, 삶의 조건과 필요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자리로 구성된 테이블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 일은 삶 속에 존재해야 한다

“사람들이 바빠서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시스템이 절망스럽다” (오픈테이블@지속가능한 대내리 발전방안) 관계를 만들고 일상을 나누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터져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먹고사는 일 중에서 갈등하다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했다” (오픈테이블@청년이 말하는 일,자리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속내를 털어놓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도 어려운 고단한 일상.

이러한 관계와 일상의 복구를 위하여 삶터와 일터가 공존해야 한다는 이야기의 흔적들이 곳곳의 모임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작은 공동체를 복구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환경 개선과 생활급여 지급, 실업부조제도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굵직한 의제들이 선결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 미래세대의 엄중한 경고 - 청년들의 공화국

위기의 증조를 가능할 때 ‘일본사회’를 사례로 종종 듭니다. 일본의 사회 문제이자 원인으로 우경화와 공동체 붕괴(개별화)를 많이 예로 드는데, 일본의 우경화와 공동체 붕괴 배경에 대하여 사회학자 ‘미야다이 신지’는 더 이상 상승지향의 동인이 되지 못하고 불안을 잠재한 채 체제에 순응하며 지루하고 허무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끝없는 일상”이라고 빗대었습니다. “1990년대의 불황과 신자유주의 격차 사회의 도래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는 빈곤 속에서 부유화 되고 파편화된 개인의 문제는 계속되며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우경화와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배경이 되었다”고 그는 보았지요.

한국에도 유사한 증후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청년 등 미래세대들이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를 통해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행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에서 주목해야 할 마지막 흐름은 한국 청년들의 미래 구상입니다.

서울 서대문 신촌지역의 ‘신촌공화국’은 지역의 청년과 공간운영자, 문화기획자 그룹이 모여 교육과 축제의 장으로써의 지역을 공동 운영하는 모델을 고민합니다. 전라남도 광주의 청년그룹들도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왜 요새 청년들에게 공유의 개념이 없는지 고민을 나누고 지식과 도시공간 공유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과 공유와 공동운영 및 소유 모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관계와 삶의 근거지 복원을 위한 5대 시민의제(Ground 5)”

<2014 도시생활의제 77>은 “관계와 삶의 근거지 복원을 위한 5대 시민의제(Ground 5)”를 부제로 다음의 순서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관계와 공동체 복원에 대한 도시재생 프로그램 의제를 비롯하여 공유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사람을 우선하는 마을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등 공동체 운영 시스템 관련 의제 및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일자리 정책 의제,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단위를 넘는 사회적 협력 모델 및 아젠다 수립을 위한 의제 등의 흐름으로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테이블별 논의 내용을 나뉘어 수록(6장)합니다.

<2014 도시생활의제 77>

관계와 삶의 근거지 복원을 위한 5대 시민의제(Ground 5)

<p>도시재생 재생이 에너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의 복원 - 도시 공간 재가치화 	<p>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순환이 동력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사회적경제 - 에너지생산 - 도농순환 	<p>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사람이 먼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교육 생태계 - 예술 문화 생태계
<p>일과 삶의 자리 구축 균형을 넘어 공존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확충 - 일과 삶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p>사회적 협력 모델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생활 권리 선언 - 사회적 협력 모델 마련 - 사회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약 구상 	





05

2014
도시생활의제 77

5장 | 관계와 삶의 근거지 복원을 위한 5대 시민의제 (Ground5)



05

2014 도시생활의제 77

관계와 삶의 근거지 복원을 위한 5대 시민의제 (Ground5)

01 도시재생 : 재생이 에너지다

1) 삶의 근거가 되는 관계의 복원

- 품앗이 활동
- 세대간 교류 활동
- 임대료/관리비 절감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 학기초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시 공간 재가치화

● 걷고 싶은 도시

- 복잡한 교차로 스크램블 교차로 설치
- 보행 다량 공간 횡단보도 설치
- 차고지증명제 재논의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축소
- 골목길 교통사고 제로운동 "one is too much"
- 주거지 속도제한 zone30에서 zone18로

● 쉴 수 있는 도시

- 옥상쉐어링을 통한 옥상녹화 프로젝트
- 시/구유지 '시민을 위한 가든' 오픈
- 실내외가 모두 있는 생태놀이터 설치 (모두를 위한 놀이터)

● 시민에게 열린 도시

> 도시재생지구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민 참여
- 프랜차이즈 유입제한
- 임대료 상승 제한

> 혁신파크

- 이용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자조관리 시스템 구축(입주단체협의회 운영, 재활용센터 설치, 동호회 활동 공유)
- 맛집 팝업스토어 운영, 축제 운영

> 시립병원

- 환자/보호자/직원이 함께 운영하는 병원
- 생로병사를 대비하게 해주고 외롭지 않은 병원
- 시립병원 내 보건의료복지연계 센터 설치

02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 순환이 동력이다

1) 나눔이 생활화 되는 공유경제

- 마을 공유 허브 구축
- 재능기부센터 설치
- 품(재능)과 물품 공유 공간의 주민 직접 운영/관리 모델 마련

2)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부문 공간, 교육 등 간접 지원 확대
-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콘텐츠 제작 및 매체 설치
- 지역별 사회적경제지도 구축
- 사업체별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정보 공유
- 운영 노하우, 유형/업종별 규약, 특화 교육 운영 및 공유
- 선지출 후납품 방식의 거래 모색
- 홍보, 사무관리 등 아웃소싱을 통한 상호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 교복 생산부터 유통까지, 지역사회 사업 추진
- 마을기금 적립 및 운용, 통합기금 운영에 관한 시스템 마련
- 지역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신협 등을 포괄하는 협동경제공동체 설치 운영
-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대상층에 대한 민간 주도의 복지사업을 사회혁신채권으로 추진

3) 소비에서 생산으로, 에너지자립

- '전기' 공급정보(원산지) 표기
- 간판/네온사인/교회십자가 등 규제
- 도시에너지를 잡는 '에너지바스터즈' 및 에너지절약 보상제 도입
- 휘트니스클럽 운동을 통한 전기 생산 방식 도입
- 음식물쓰레기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 지하철에 놀이터 발전소 설치
- 태양광패널 청소기, 전락사용량표시기, 각종 에너지 교육 키트 등 유통/판매
- 신촌상가 지역 등 간판을 태양광 전기로 생산/소비

4)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순환

- 관계성에 바탕을 둔 농도순환, 중간지원조직 설치
- 지역과 농어촌을 잇는 (가칭)문화귀촌지원센터 설치
- 청년들의 진로 또는 일로써 경험과 검증의 시간/경험의 기회 제공
- 귀농귀촌 정보제공
- 교육 및 정보백서 제공
- 귀농자들의 네트워크
- 초보귀농인들을 위한 선배귀농인 멘토링

03 마을 교육/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 인간이 먼저다

1) 마을 교육 생태계

- 예비부부/부모를 위한 교육
- 폐자재,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놀이/학습

- 책놀이, 체험, 견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 지원
- 청소년센터와 놀이터 설치
- 모든 세대를 위한 마을학교 설치
- '학교-도서관-서점-북카페-책버룩시장-헌책방' 등 교육 및 지식순환생태계(벨트) 형성

2) 마을 문화/예술 생태계

- 창의성과 공유의 가치에 기반한 생활권역(마을,동네) 교육+문화+복지 통합 정책 수립
- 주민/예술가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문화비전
- 자율적 문화생태계네트워크 형성
- 구내 창작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제도 도입
- 도시 유휴공간 예술가 작업실로 대어
- 문화예술가 작품들의 포트폴리오 아카이브 구축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
- 권역별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 마을별 소규모 독립영화전용관 설치 운영
- 독립영화 감독 등 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미디어교육
-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공공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공공예술기금 및 센터 조성
- 마포구 동네기술네트워크 구성
- 마포구 문화자원 빅데이터센터 설립
-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 협력팀 운영

- 문화기본권
- 보행권

2) 사회적 협력 모델 마련

- 사회협력 모델로 해결하는 사례 만들기
-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통합위원회 구축

3) 사회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약 구상

- 혁신 주체에 대한 재정의
- 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철학 공유
-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 조성
- 협동문화 조성

04 일과 삶의 자리 구축 : 일은 삶 속에 존재한다

1) 일과 삶이 공존하는 토대 구축

- 사회적 투자 차원의 청년/은퇴자 세대 지원에 대한 인식 확산
- 표준이력서 사용 정착
- 청년 기본소득 30만원 지급
- 주당 30시간 이상 노동하는 청년들에게 생활급여 지급
-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 표준이력서 사용 정착
- 실업부조제도 마련 및 사회보험 지원 개선
- 주당 45시간 노동시간 정착

2) 협업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원과 제도 마련

- 문화예술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제도 확대

05 사회적 협력 모델 마련

1) 도시 생활 권리 선언

- 거주권





06

테이블별 논의내용 모음

06-1장 | 테이블별 논의내용별 개요
06-2장 | 테이블별 논의내용 모음



06-1

테이블별 논의내용별 개요

2014 도시생활의제 77

*이번 장은 테이블 논의내용이 공유된 58개의 테이블을 요약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목은 테이블 특성 및 주요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 내용이며 부제는 테이블 열린 날짜와 테이블명입니다.

1) 도시재생 - 재생이 에너지다

1. 삶의 근거가 되는 관계의 복원

[대구] 학기 초 특화된 관계형성 프로그램 개발

[3/18] 청소년들의 학기 초 관계형성 방안

초중등 새 학기 학생들의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통한 부적응(따돌림) 학생 제로 만들기! 교사를 비롯하여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함.

- 학기 초에 특화된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
- 그 효과성이 검증되면 교육청과 컨택하여 프로그램 확대 실시
- 학기초 특화 교육 운영 교사 양성

[강남] Adult Third Culture Kid 네트워크

[3/19] Adult Third Culture Kid, 그 속 이야기 나눠봐요

다른 문화권에서의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다문화, 이문화의 경험과 시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네트워크 테이블(강남지역)

[동작] '마을을 품은 마을' 마을상담활동가 상담교육

[3/20] 희망동네를 위한 엄마들의 마을돌봄, 함께 이야기해요

동작구 희망동네, "마을상담활동가"를 위한 상담 공부. '마을을 품은 마을' 상담 공부는 자기 치유를 통한 성장과 나눔을 이야기하며 3년 과정에 자격증 발급 안 하고 일자리도 알선하지 않음. '단기, 자격증 발급, 일자리 알선'을 내세우는 경향과 다른 마을 교육. 이번 오픈테이블에서는 상담 공부를 함께 한 여성(주부) 중심 마을활동가들이 모여 소회를 밝힘.

[광주] 지역청년 생태계(지방's) 만들기

[3/20]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길이 하나일까? 지방청년, 우리 지역에서도 꿈꿀 수 있을까?"

도전에 대한 두려움, 편견, 선입견(지역), 친구(애인), 획일화된 사회, 멀티형 인재 요구 등에 대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

- 정치인과 청년들의 대화/토론회
- 커뮤니티 지원(공간적/물리적/경제적 지원)
- 놀이터 등 문화활동을 위한 유휴공간 개방
- 타 지역 교류 프로그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전] 청년혁신네트워크

[3/20] 청년들의 일상과 도시 생활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며 청년문화를 만들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기 위한 청년네트워크 구성 논의

[부산]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네트워크

[3/20] 발달장애인 세상에서 함께 살기

부산 동래/금정지역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치유와 소통의 네트워크 모임

사회적경제조직 중간지원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3/20]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지원기관의 막내 스텝들, 우리 이제 만나요 제발~

사업 운영에 대한 협의와 의견 교류와 더불어 실무자들의 일과 생활을 공유/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아동이 주체가 되는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논의

[3/21] 더불어 사는 삶 : 입양에 대하여

- 해외입양을 줄이는 대책 필요
-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부산] 안전벨트로 가방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3/21] 안전벨트로 가방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_B-bag

부산에서 폐자재(안전벨트)를 활용하여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사회혁신가 네트워크 파티

[Let's Big Party] 플랜B를 꿈꾸는 사람들의 네트워킹 파티

각 분야 사회혁신가들의 5분 스피치와 영리와 비영리 등 섹터를 넘나드는 교류의 시간

1) 도시재생 - 재생이 에너지다

2.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한 공간 재가치화

해외 사례 탐방을 통한 공동체 협력을 통한 대단위 구역 재생 방식 구상

[3/18] 꽃보다 마을공동체:우린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보러 갑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서 공동체를 살리며 인간의 힘으로 대단위 구역 재생하는 방식과 그 협력 프로세스를 고민해보는 라스베가스 탐방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모임(중간지원기관 실무자, 변호사, 독립미디어PD, 마을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0여명 참석, 이후에도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며 만남을 지속하고 있음)

■ 걷고 싶은 도시, 보행자 우선의 마을만들기

[3/18]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보행으로 생활이 가능한 도시 구조로 바뀌어야 하고 이는 10분 거리 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도시의 보행권을 기본권으로 이야기함

-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써의 보행권 도시의 기본권으로 인정
- 강남역 사거리 등 복잡한 교차로에 스ك램블 교차로 설치
- 보행량 많은 곳에 횡단보도 설치
- 도심 주차면수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축소
- 학교 앞 존30에서 존18 속도 제한
- 보행자 푸쉬버튼의 보행신호 주기 단축
- 운전면허 시험 내 에코드라이빙 교육 실시

■ [용산 보광동] 마을 공유 공간 운영방식을 논의하는 어린이 회의

[3/19] 보광동 어린이 회의

보광동 마을살이 공유 공간의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내는 어린이 회의 진행

■ [강남] 마을의 놀이공간 설치/운영

[3/19] 아이들의 동네 놀이공간을 꿈꾸는 모임

아이들과 부모들의 놀이공간이 부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놀이공간에 대한 각자의 상을 나누는 모임

- 아이와 보호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
- 실내외 공간이 함께 있는 놀이터
- 공동체 구성을 통해 놀이터 프로그램 구성 운영
- 생태놀이터

■ 대안적 주거모형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3/19] 보통사람들을 위한 보통집

빈집, 서울소셜스탠다드, 우주, 소행주, 새동네연구소 등 대안적 주거모형을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 대안적 주거모형에 대한 공적 자금 투여
- 대안적 주거모형 상호 보완 및 코워킹 시스템 마련
- CLT 모델에 대한 한국 적용 가능성 검토

■ [대전] 문화,예술,여행을 통한 원도심 지역재생

[3/20] 문화,예술,여행을 통한 대전 대흥동 지역재생은 가능한가?

- 원도심에 집적된 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조직 생태계 조성 및 활동 홍보
- 마을기업의 제품과 원도심의 문화/예술 접목을 통한 여행자원 개발
- 마을별 마을회관 설치
- 도농교류

■ [은평] 서울 혁신파크 운영 모델 테이블

[3/21] 혁신파크 상상메모 투어+포럼능한가?

서울 은평 불광동의 혁신파크 입주단체의 청년그룹 등이 단지 내 유희시설 및 공간을 탐방하고 재가치화하는 작업 진행중

- 입주단체 협의회 구성
-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 입주단체별 동호회 활동공유
-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숙박시설, 육아시설, 팝업스토어 설치 운영
- 축제 기획 운영

■ [종로 창신동]도시재생에 대한 철학 공유 및 도시재생특별법 개선 의견

[3/21] 도시재생특별법에 제안하는 주민들의 특별한 테이블

주민들의 의견이 내고 마을계획에 참여하여 내생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과 의미 공유하고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 하는 모임

- 마을의 내생적 발전, 공동체적 발전의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과 의미 공유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민 참여 구조 마련
- 프랜차이즈 등 거대자본의 유입 제한 및 임대료 상승 제한

■ 자동차 없는 사람에게 대중교통바우처 제공

[3/21] 자동차가 없는 사람 혹은 세대에게 “대중교통바우처” 를!

주차공간을 줄이기 위한 고민 가운데 한가지로 자동차 없는 사람 혹은 세대별로 1만원의 대중교통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그룹

■ 놀이터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소셜픽션워크샵] 꿈꾸는 놀이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진행중인 놀이터프로젝트의 오픈테이블 버전. 놀이터에 대한 개념과 운영방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모임에서 소셜픽션을 통해 놀이터의 미래를 상상하는 워크샵 진행

- 놀이터와 공원의 경계가 무너지고 기능이 확장된 놀이터
- 사색이 가능한 놀이터
- 모두를 위한 놀이터
- 놀이도구가 없는 놀이터

■ 재미있는 병원에 대한 상상워크샵

[소셜픽션워크샵] 함께 상상하면 병원이 재미있는 공간이 됩니다

의료, 보건, 복지를 통합한 공공의료모델을 실험중인 서울북부시립병원에서 환자, 직원, 시민위원회 등 병원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함께 모여 '재미있는 병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올해 논의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병원'을 테마로 공간재생을 계획중임

- 환자/보호자/직원이 함께 어울리는 병원
- 생로병사를 대비하게 해주는 병원

1) 도시재생 - 재생이 에너지다

3. 청년들의 공화국

[서대문 신촌] 공간, 축제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함께 공유하는 신촌공화국

[3/20] 신촌공화국 임시정부 국무회의

- 청년의 정체성을 가진 신촌의 문화기획자, 공간운영자, 마을활동가들이 모여 신촌 지역의 자치모델을 구상중임
- 청년들의 자치공간 운영
- 축제 기획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광주]청년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공유와 공간 공동운영 모델 고민

[3/20] 지역 청년들의 혁신과 공유에 대한 고민

- 광주 지역 청년들의 코끼리공화국 선포. 공유 개념을 나누고 민주적 운영모델을 논의하는 그룹
- 재능기부센터 설치 운영
- 옥상쉐어링을 통한 옥상녹화프로젝트
- 사유지/구유지 활용을 통한 '시민을 위한 가든' 형성

2)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 순환이 동력이다

1. 나눔이 생활화되는 공유경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안내 및 주택협동조합간 협업

[3/19] 집을 소유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권은 모두에게 있도록 함. 한 명 또는 집단이 집 처분(매매)을 불가토록 함
- 쉐어하우스 이용자들을 위한 "임차인보호법" 내용 삽입
- 마을별 공유허브 설치 운영

[강남구 개포동] 마을 공동 공간 운영 논의

[3/20] 강남구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 강남구 개포동 마을 지역주민들의 품(재능)과 물품을 공유 공간 공동 운영 논의
- 마을 소모임, 품앗이 교육 등 커뮤니티 활동 논의
-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리/운영 모델 논의

2)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 순환이 동력이다

2. 더불어 잘 사는 사회적 경제

[대구]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논의

[3/19] (대구 사회적경제 상상마당) "여럿이 말하면 달라진데이~"

- 대구의 미래에 대한 소셜픽션 진행 후 선결과제 선정
-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전담조직 신설
- 사회적가치 측정도구 도입 및 성과측정
-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한 희망의 선순환 구조 마련

[강북] 생산부터 유통까지 교복 직거래 지역 사업 구상 논의

[3/20] 지역에서 교복을 만들면?

- 원가를 낮추고 지역의 영세봉제업자들의 근무환경을 높이는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지역의 교복 직거래를 고민하는 강북의 교복지역생산공동구매추진단 모임
- 교북지역생산공동구매추진단의 사회적협동조합화
- 교북의 지역생산 공동구매, 공동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조직
- 타 지역과의 지역생산 협업화 모델 구상

강동 협동경제공동체네트워크 추진 논의

[3/21] 강동구 지역기금 조성 방안 토론회

- 강동의 지역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신협 등 포괄하는 강동 협동경제공동체네트워크 (가칭) 추진을 위해 논의하는 그룹
- 마을기금 적립 및 운용, 통합기금 운영 관련 구조 협의
- 사회혁신채권 관련 협의

협동조합간 내부 정보 공유 및 사업 홍보에 대한 의견 교류

[3/21] 협동조합 간 홍보 및 정보공유 어떻게 할까요?

- 4,000여개의 협동조합간 내부 정보 공유 및 사업 홍보에 대한 의견 교류의 장
- 협동조합 앱 개발
- 사업체별 시장분석, 마케팅 정보 및 성공모델 공유
- 사회적경제 내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소비자협동조합 구축
- 선 지출 후 납품 방식의 거래 모색
- 개별 협동조합이 고용하기 힘든 홍보, 사무관리 등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한 상호거래

2)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 순환이 동력이다

3. 소비가 아닌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에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3/20] 도시에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동작 성대골, 서대문 신촌 등 지역차원의 에너지 자립 사례 공유 및 에너지자립마을 가능성 확대

- (동작)에너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동네만들기
- (신촌)삶과 문화가 풍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신촌에너지협동조합 준비중
- 전기 원산지 표시 도입
- 네온사인 등 상업가 간판 전기 사용 규제
- "에너지바스터즈" 등 절약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 전기 단위 '화폐' 단위로 교체 표기
- 운동으로 전기 생산하는 휘트니스 클럽
-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 생산
- 지하철 등에 전기 만드는 놀이터 발전소 설치
- (성대골 에너지 슈퍼마켓)태양광패널 청소기, 전력사용량 표시기, 햇빛전구 음식물 건조기 각종세트, 에너지 교육 키트 등 판매
- (신촌) 친환경음식점 운영, 옥상태양광발전소, 대학축제 그린페스티벌, 전기절약에 대한 등록금 전환 제도 도입
- 암흑축제, 무동력 축제 등 에너지자립마을 축제 만들기

2)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 순환이 동력이다

4.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순환

[순창] 지역주민과 초보귀농인간 네트워크

[3/18] 농촌에서 재미+의미있게 살기위한 깨알 아이디어 찾기

순창 지역주민과 초보귀농인 교류

- 물물교환과 재능나눔
- 귀농 10계명 논의
- 초보귀농인들이 어려울 때 선배귀농인이 멘토가 되는 귀농SOS

[동강] 귀촌청년네트워크

[3/20] 청년공판장@동강 '도시청년, 왜 떠나지 못하는가?'

강원도 정선으로 귀농한 청년들의 모임

- 귀농귀촌의 경험과 검증의 시간 및 백서 필요
- 귀농한 사람들의 농산물 판매로와 문화공간의 필요
- 축제 기획 운영
- 귀농자들의 네트워크 필요

[홍성]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중간지원 그룹 양성

[3/21] 청년+농촌

농촌과 도시의 지속불가능성과 청년들의 진로 또는 일, 지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과 농촌과 도시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

- 청년이 지역에서 또는 농촌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순환
- 청년 개인을 지원하는 방식보다 지역과 연결된 중간지원 조직이나 그룹 양성

3) 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 사람이 먼저다

1. 마을 교육 생태계 구축

흙집 천연염료로 색을 입히는 색채디자인 학교

[3/18] 색채 디자인 학교가 열립니다

흙벽에 색을 입히는, 손으로 직접 생태건축

달팽이 수학정원

[3/19] 달팽이 수학정원

- 자연에서 배우는 오감 '생태수학놀이' 프로그램
- 폐자재를 활용한 수학공부
-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학정원(공간) 공유

아이, 엄마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공간의 필요성

[3/19] 아이랑 책이랑 잘 놀기

- 동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놀이/체험/견학 등 책을 읽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청소년센터나 놀이터 설치 운영 필요
- 아이, 엄마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필요

(부산) 교육 의제 논의

[3/19] 부산교육에 할 말 많은 이들

- 혁신학교 도입 등 과감한 학교 혁신 정책 필요
- 다양한 체험학습이 가능한 공립 대안학교의 도입
- 학부모교육의회, 청소년교육의회 설치
- 특수교육재정비를 통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현
- 지역 교육 격차 해소
- 청소년 생활세계 지원 체계 구축
- 인상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학교 평가제 도입
- 교육청 예산, 학교 예산,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등 교육 예산 문제에 대한 학부모 관심 촉구

[서대문] 가재울마을학교
[3/19] 가재울마을학교-가재울낭독회

- 가재울낭독회 및 생태문화탐방 진행

방과후 시설투자 없이 방과후 해결 모델 개발
[3/19] 초등학교 저학년 3명만 모이면 방과후 집으로!

자신의 집에서 3명~5명 정도의 동네 아이들을 돌봐주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간식비 등 지원 (자부담원칙, 행정은 간식비 지원)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덜어주고 시설비 없이 방과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3) 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 사람이 먼저다
2. 마을 문화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 정책토론회 진행
[3/18]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를 꿈꾸다!

마을미디어를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와 소통 문화를 일구어내는 '마을미디어' 정책토론회
-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기반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 단계적 지원을 통한 성장 견인(마을 맞춤형 지원)
- 민간협력 거버넌스 정비
- 권역별 거점 미디어센터 필요
- 장비나 인력, 공간지원에 대한 문제 해결
- 미디어 교육의 대상 확대
- 중앙정부 차원의 공동체라디오 도입 사업

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에 대한 의견 교류
[3/19] 예술인 창작지원금의 쓴 맛 단 맛

- 창작 지원금 대상 선정의 까다로운 소득기준 완화 필요
- 예술인들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지원 필요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 도시 내 유휴공간을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대여해주는 제도 필요
- 인증된 예술인 작품 포트폴리오화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설치 필요
-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마포] 지역 문화생태계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3/20] 마포, 그곳에 예술가가 살게 하라!

자율적인 문화생태계네트워크를 형성 및 마포구 문화예술생태계의 의견을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공
- 주민,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마포구 문화비전 : 도시계획의 혁신적인 재구성
- 창의성과 공유의 가치에 기반한 생활권역(마을, 동네) 교육+문화+복지 통합정책 수립
- 마포구 안에서 창작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제도 도입
- 마포구 "학교-도서관-서점-북카페-책벼룩시장-헌책방" 등 교육 및 지식순환생태계 형성
- 마포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
- 사회적 문제의 창의적 해결 및 공공예술 활성화를 위한 마포공공예술기금 및 센터 조성
- 마포구의 대표적인 문제를 사회협력 모델로 해결하는 사례 만들기
- 마포와 농어촌을 쌍방향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가칭)문화귀촌지원센터 설치
- 마포구 동네기술네트워크 구성
- 마포구 문화자원 빅데이터센터 설립
-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 협력팀 운영

마을에서 독립영화 보는 모임 만들기
[3/20] 마을에서 삼삼오오 독립영화보기

-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독립영화감독들의 미디어교육 연계
- 마을예술창작소 등 마을공간을 활용, 마을마다 20석 내외의 독립영화전용관
-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대에 독립영화를 볼 수 있도록 대여 가능한 상영키트 제공

[성북] 마을별 작은 영화제, 문화행사 등을 통한 공동체 상영 문화 형성
[3/21] 모색영화제

영화를 소통과 가능성의 매개체로 삼아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는 문화 모임

4) 일과 삶의 자리 구축 - 균형을 넘어 공존으로
1. 일과 삶이 공존하는 토대 구축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간 교류
[3/18] 은퇴 후 새로운 삶, 어떻게 준비할까?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 은퇴 후 일거리 필요성 공감
- 노인정에 대한 이미지 쇄신, 마을회관으로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변신 필요
- 은퇴 후 생활/마을 적응 매뉴얼

[고양 대내리] 지속가능한 마을 카페 운영에 대한 고민 나눔
[3/18] 지속가능한 대내리 발전방법

지속가능한 영주산마을 협동조합 발전방향에 대한 주민 논의

예술가/기획자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3/19] 기획자,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다

- 베를린 시에서 지원하는 예술가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 지원 사업 세부 항목의 다양화: 프로젝트 성향별 (시각-영상-공연제작 등) 차등 지원
- 지원 사업 항목에 산재/고용/연금보험 필수 포함
- 프로젝트 정산의 간소화(ex. 뷰티플 펠로우)
- 예술가/기획자 아티스트피(기획자, 디자이너, 예술가 본인) 30% 범위 내 지원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금(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 예술가 복지: '예술가에게 자유를' 예술가 멤버십 카드 발급
- 예술가 레지던스: 작업에만 집중 할 수 있는 구조 마련(공공형 프로그램 참여 지양)
- 예술가 작품 판매 루트 개발: 청년샵, 사회적 기업 매장 등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만들기(국제 공모를 통한 파급력 확보)
- 국가기관 및 지자체, 문화기관 등 배치 공무원의 역량 강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청년들의 모임 [3/19] 청년들의 일과 삶, 균형찾기

- 지속 가능한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청년들의 네트워크
-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정책
- 입시경쟁, 시험 스트레스 줄이기
- 사회 보장제도(연금, 보조금, 의료보험 등), 안전망 확충
- 공동체 문화, 교류가 활발한 마을
- 야근 없애기, 저녁이 있는 삶이 당연한 분위기
- 자기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
- 자율적인 기업문화
- '가정의 날' 정책 시행
- 결혼 예비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
- 부모 출산 휴가 확대
- 파트타임 인적개선
- 유연한 일자리, 탄력근무제
- 실질적 청년인턴제도
- 열정페이 대신, 정당한 급여 지급
- 중장년 일자리 다양화
- 중소기업 지원
- 근로 복지 관련 정책의 다양화, 활성화
- 환경 친화적인 국가정책

청년들이 말하는 일, 자리에 대한 속풀이 테이블 토크 [3/19] 청년이 말하는 일, 자리

-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삶에서 부딪치는 현실적인 어려움, 일자리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대화
- 일터가 또 다른 문화생활의 삶의 공간
- 사회적인 일자리 나누기

- 노동의 창조행위, 자기실현 같은 사례 조명 필요
- 일에 대한 완결적 경험을 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례 필요
- 생활급여(월30만원) 지원

청년들의 불편한 생활을 바꾸기 위한 실험실 [3/20] 불편한 연구소

- 청년문제에 대해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 논의
- 청년이라는 세대에 대한 재정의 필요
-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은 건전한 사회의 구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 확산
-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인 청년에게 '생활급여' 지원
-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가족수당' 지급
- 네트워킹을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표준이력서 사용 정착

[대구] 청년 마을살이 [3/20] 청년, 마을에서 놀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마을에 대한 상을 공유하고 마을에서 놀거리/볼거리를 찾는 워크샵

위기청소년 자립을 위한 '가정과 같은 공간' 마련 [3/20] 위기청소년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위기청소년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완벽히 지원 하는 조직은 없으며, 완전한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망이 되어줄 '가정' 을 만들 수 있는 자리(주)와 같은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함.

4) 일과 삶의 자리 구축 - 균형을 넘어 공존으로 2. 협업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청년과 은퇴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자리 고민 공유 [3/21] 함께 뛰는 법을 잇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활프로젝트

- 베이비부머 세대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문제임을 공유하는 자리
- 정부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펼쳐지고 있고,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들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개별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나, 더 근본적인 것은 '협동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임
-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를 흔히 50대와 20대 간의 일자리 싸움으로 보는데, 중년의 기술과 자본이 청년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서로 합쳐서 협업한다면 두 세대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음

5) 사회적 협력 모델 구축

1. 사회적 협력 모델 마련

[서대문] 지역의제를 도출하는 지역 유권자(주민) 모임

[3/19] 짝을까 말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대문 지역 주민들의 주민행동, '내가 구의원/시의원 이라면' 이라는 상상을 통한 지역의제 도출

-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 조례를 발의하겠다.
- 주민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겠다.
- 마을버스 노선과 운영 개선을 시도해보겠다.
- 모든 행사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해 보겠다.
- 경로당을 마을사랑방으로 바꾸어 보겠다.
- 공무원과 주민들의 만남을 주선하겠다.
- 권역별로 주민들에게 문화,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
- 기존의 건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공간 사용 방안을 고안하겠다.
- 불편한 인도와 차도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 노인계층의 문화 기본권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
-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을 위한 마을만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 구청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겠다.
- 구청의 업무 중 민영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돌리겠다.
- 서대문구 전체를 볼 줄 아는 구의원이 되겠다.
-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겠다.

25개 자치구별 마을네트워크들의 정기회의

[3/21] 2014년도 3월 마을넷연석회의 개최!

25개 자치구별 마을네트워크들의 월 1회 정기회의, 자치구 마을넷별 현황을 공유하고 의제별 토론을 진행함

5) 사회적 협력 모델 구축

2. 사회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약 구상

금융단체/소비자네트워크 정기회의

[3/18]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회의

네트워크 운영,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네트워크 사업을 논의하는 정기적 회의.
오픈테이블에서는 한국판 롤링주빌리운동으로 불리우는 '빛제로 새출발 캠페인' 에 대한 사업 실행 논의를 주요하게 다룸.

협동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개선 방향 논의

[3/20] 협동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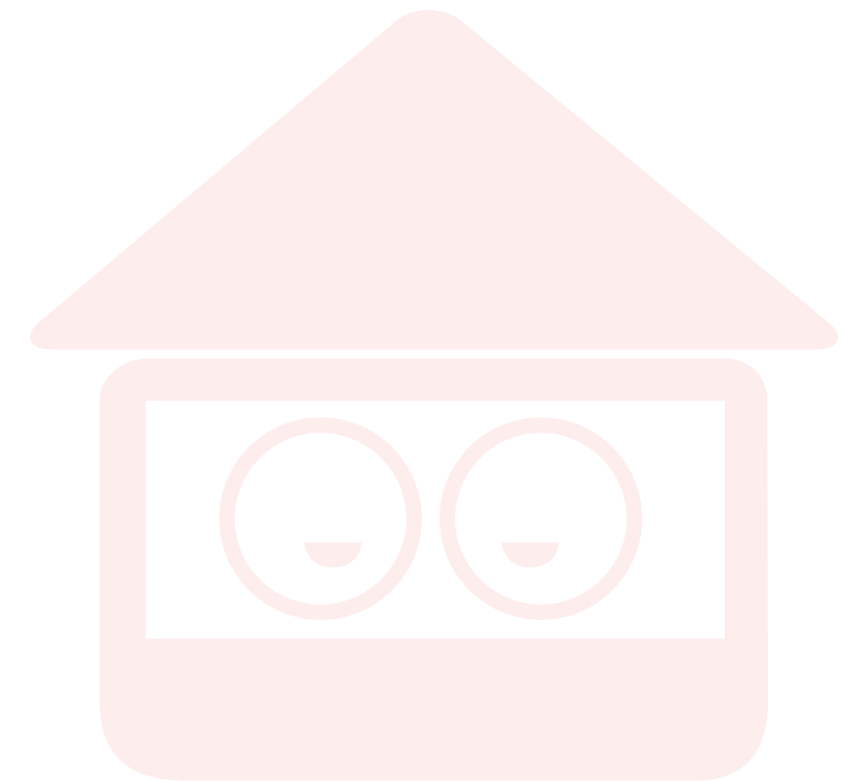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내의 협동적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중간지원기관 실무자,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자, 연구자들이 모여 현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테이블

- 지방세수 증가를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과 자율성 부여
- 공공지원은 인프라/생태계구축과 같은 간접지원에 투자토록 함
- 타기관/단체/주민단체 등과의 협동 여부에 따른 사업비 지원

청년펀드 조성 및 청년과 기부자간의 네트워크

[3/20] 꿈꾸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아름다 '훈' 펀드

월소득 일부를 청년을 위해 기부하는 사람과 청년간의 네트워크



06-2

테이블별 논의내용 모음

1. 도시재생 - 재생이 에너지다

01 삶의 근거가 되는 관계의 복원

- [3/18] 청소년들의 학기 초 관계형성 방안
- [3/19] ATCK 그 속 이야기 나눠봐요
- [3/19]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길이 하나일까? 지방청년 우리 지역에서도 꿈꿀 수 있을까?”
- [3/20] 청년들의 일상과 도시생활
- [3/20] 희망동네를 위한 엄마들의 마음돌봄, 함께 이야기 해요
- [3/20] 발달장애인 세상에서 함께 살기
- [3/20]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지원기관의 막내스텝들, 우리 이제 만나요 제발~
- [3/21] 더불어 사는 삶 : 입양에 대하여
- [3/21] 안전벨트로 가방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 [Let's Big Party] 플랜B를 꿈꾸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파티

02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한 공간 재가치화

- [3/18] 꽃보다 마을공동체 - 우린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보러 갑니다
- [3/18]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 [3/19] 보광동 어린이 회의
- [3/19] 아이들의 동네 놀이공간을 꿈꾸는 모임
- [3/19] 보통사람들을 위한 보통집
- [3/20] 문화, 예술, 여행을 통한 대전 대흥동 지역재생은 가능한가?
- [3/21] 혁신파크 상상메모 투어+포럼
- [3/21] 도시재생특별법에 제안하는 주민들의 특별한 테이블
- [3/21] 자동차가 없는 사람 혹은 세대에게 ‘대중교통바우처’ 를!
- [소셜픽션] 꿈꾸는 놀이터
- [소셜픽션] 재미있는 병원

03 청년들의 공화국

- [3/20] 신춘공화국 임시정부 국무회의
- [3/20] 지역 청년들의 혁신과 공유에 대한 고민

01 1) 도시재생 - 재생이 에너지다 삶의 근거가 되는 관계의 복원

3/18 청소년들의 학기 초 관계 형성 방안

이영희
장소 : 토닥토닥 협동조합 카페
참석인원 : 4명

새 학기 학생들의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통한 부적응(따돌림) 학생 제로 만들기!
새 학기가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의 실수로 따돌림을 당하면 어떡하나 등 고민이 가득한 시기가 이 때입니다.

따돌림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학기 초에 관계형성에 실패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한 걸로 조사되어 이 시기에 학생들의 관계 형성을 도와준다면 훨씬 피해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어 이런 주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심리상담에 전문가 3명과 청소년 관련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멤버 한 명이 모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에서 학기 초는 그야말로 모두에게 스트레스인 시기입니다. 실제로 교사를 비롯하여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01

학기 초에 특화된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

02

그 효과가 검증되면
교육청과 컨택하여
프로그램 확대 실시

03

궁극적으로는 학교 선생님들 중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3/19 Adult Third Culture Kid, 그 속이야기 나눠봐요

신은희

오픈테이블의 진행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오픈테이블은 ATCK의 특별한 경험과 그런 환경으로 인해 갖게 되는 정체성 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소수자이긴 하지만 작은 모임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시작했지만, 실제로 ATCK에 해당되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는 ATCK 개념이 매우 생소해서 정보가 확산되기 어렵고 또 그 분들을 모아내기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의 생활을 경험한 분들을 모아서 다문화, 이문화의 경험과 시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우선 다른 문화권의 생활을 경험한 분을 강남권역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참가한 분들도 서로의 소개와 함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입장에 대해 균형 있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고, 그러한 균형을 가진 대화를 나누는 것에 참가자들은 매우 만족을 보였습니다.

사회참여의 경험이 많지 않은 주부들이 낯선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주제가 있고 또 진행자가 있는 대화는 연배와 성별, 경험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강한 대화의 시작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통한다는 것이 주는 쾌감 같다고 할까요.

해외에서의 생활도 어떠한 신분으로의 경험인지에 따라 참 달랐습니다. 주재원으로서 안전하고

또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때 경험한 좋은 이미지와 달리 이민자, 유학생으로 경험하게 것은 좀 달랐지요. 외국계항공사 승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은 경험적으로 어느 나라 승객이 많은지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가 많이 다르다고 하네요.

다른 문화권에서의 생활 경험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매개로 모인 참가자들은 스스로 다음 모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오픈테이블을 통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의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한 분들이 각자 오픈테이블을 하나씩 열어볼까 합니다.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모임이 확대되고 그렇게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통해 지역에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준비와 진행을 해주신 분의 의견도 보태어 봅니다.

진행자 의견: 이 자리에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살아온 여덟 명이 모여, 각각의 해외생활 경험을 통해 생각하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민, 유학, 해외근무 등의 이유로 한국 밖에서 바라보게 된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체험하는 이전과는 달라진 '내나라' 를 대할 때의 또 다른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반 이상이 서로 초면이며, 연령대 차이도 30세 이상 벌어졌지만, 즐겁고 유쾌한 대화의 시간은 원래 계획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마도 이날의 인연은 앞으로도 의미 있고 건강한 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3/19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길이 하나일까? 지방청년...우리... 지역에서도 꿈꿀 수 있을까?

Ji Yong Song

지역, 청년, 꿈

지역에서 나를 발전시키고 꿈을 키울 수 있을까? 저희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테이블을 열었어요. 청년포럼으로 지역청년 생태계를 만드는 지방' s 의 주최로 5번째 열린 이번 행사는 '까공테이블' 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꿈꾸기에 대한 오픈 테이블을 열었어요. 까공은 서로를 북돋운다는 의미예요. 원광대에서 활동하는 소셜톡이라는 토론동아리 친구들과 함께했어요.

지방스와 까공테이블 그리고 일상폴플에 대한 설명까지 조금은 긴 소개를 하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대부분 원광대 친구들이었고 별명, 기분, 행복한 순간, 자기 꿈으로 자기를 소개했어요. 지방스는 고스트 미팅클럽 (<https://www.facebook.com/groups/148436128655042/>) 이라는 지방청년 네트워크에서 지역청년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만들어진 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꿈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포스트잇에 써서 카페 바닥에 누워있는 또 다른 청춘의 흔적에 카테고리라이징을 했죠. 도전에 대한 두려움, 편견, 선입견(지역), 친구(애인), 획일화된 사회, 멀티형 인재 요구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는 획일화된 사회, 두려움, 선입견을 테이블로 만들어서 다시 이야기했어요.

1. 획일화된 사회 (5명)



1) 왜?

- 다양성이 인정 되지 않아. 사람은 다양하고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다르잖아.

2) 액션플랜

- 정치인들과 청년들이 대화 할 수 있는 토론회: 정치적 구조를 바꾸고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해. 지역 청년들과 원광대 학생들의 낮은 투표율로 정책에서 소외되는 현상 → 6.4 지방선거 후보들과 청년 문제, 정책토론 그리고 가투표와 청년인증

- 역사교육/캠페인: 우리 민주화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없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 같아.

3) 정책제안

- 커뮤니티 지원: 자기 꿈이나 욕구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움직이는 커뮤니티들을 활성화해야 해. → 공간적 물리적 경제적 지원, 익산문화재단과 연계

2. 선입견 (7명)

1) 왜?

- 지역에 대한 지방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그것들이 우리를 위축시켜.

2) 액션플랜

- 문화엔터테인먼트 : 문화적으로 지역은 놀 곳이 아니라는 선입견을 깨고 싶어 전시 공연 파티 클럽을 열겠어.

- 술 마시고 그림그리기

- 화보촬영, 스트릿 사진

3) 정책제안

- 놀이터를 개방해서 문화적 활동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3. 두려움 (2명)

1) 왜?

- 미래 진로와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어.

2) 액션플랜

-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겠어. →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친구들은 어떻게 꿈꾸면서 사는지 들어보자. → 교류의 장을 만들자.

3) 정책제안

-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직업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들을 어린 시절부터 해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테이블별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함께 공유했어요.

즐겁고 알찬 모임이었어요. 그동안 활동하면서 붕 떠있고 행사가 끝나면 공허해지기 일쑤였는데, 이번 까공테이블은 활동하는 객관적이고 공감적인 의식적 기반을 다졌다는 기분이 들어요.

3/20 청년들의 일상과 도시생활

천영환

대전의 자발+산발적인 청년들을 연결하기 위한 고리. 청년고리.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대전은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것은 '살기는 좋은데 할 것은 없는 도시' 라는 것이다.

할 것 없는 도시, 대전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상대적으로 정보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청년들은 주체적인 삶이 아닌, 주위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에 빠지기가 쉽다. 그 와중에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청년들이 있었다. 나름의 조사결과 대전에는 열네 개의 크고 작은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있었고, 이들이 한데 모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오픈테이블' 을 통해 고민을 나눠보기로 하고, '청년고리' 라는 청년혁신네트워크를 조성했다.

대전 청년들의 '오픈테이블'은 '청년과 도시생활'이라는 주제로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됐다. 첫 번째 미팅은, '청년고리' 킥오프 미팅으로, 여러 단체의 대표들이 직접 모여 서로의 단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미팅은, 오픈테이블 1차 미팅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요즘 유행하는 '마녀사냥'을 패러디해서 청년들의 사연을 듣고, 그 사연에 얽힌 청년문제들과 관련해서 월드카페형식으로 토론 해보는 '청년사냥'을 진행했다. 세 번째 미팅은, 오픈테이블 주간에 진행된 이벤트로, 실제 없는 대학생 문화에 그림을 그리고자 활동을 시작한 청년단체의 관계자들이 모여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아래 당일 참석한 이수연씨의 후기를 덧붙인다.

"이날 이들은 주로 '왜' 라는 질문을 던졌다. 스스로 '나는 왜' 라고 질문하며, 이들이 '왜' 대전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냈다. 청춘메세나 한상현 학생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일을 하면 서 내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이 문화 활동을 하는 가장 큰 뿌듯함이다.

청춘잡지 보슈의 PR팀에 있는 윤민영 씨는 사범대 특성상 한 곳만 바라보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답답해지면서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찾아보니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재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생각이 넓어지는 느낌이었다.

청춘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든다는 것에서 얻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성취감인 듯 보였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답답해하며 질문하는 것 중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라는 것이다. 청춘고리는 답답함을 느끼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 헤매는 청춘들이 모여 '함께' 라는 힘을 얻었으면 했다.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활동이 모여 청춘의 목소리를 만들고, 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서로에게 힘을 얻었으면 했다. 청년을 연결하는 작은 고리가 모여 큰 덩어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3/20 희망동네를 위한 엄마들의 마음돌봄, 함께 이야기해요

구윤희

동작 희망동네 '마음을 품은 마을' 상담 공부 3년차 이야기

"마을상담활동가 모집"이라는 플래카드를 보고 사십 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설명회에 가 보니, 자기 치유를 통한 성장과 나눔을 이야기 하며, '3년 과정에 자격증 발급 안 하고 일자리도 알선하지 않는다'고 했다. '단기, 자격증 발급, 일자리 알선'을 내세우는 경향과는 정반대인. 그런데도 설명회에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집단 상담과 이론을 모두 아우르는 잘 짜여진 강의안과 탁월한 강사진이 있는, '마음을 품은 마을' 상담 공부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올해가 3년 과정의 마지막 해이다. 오픈테이블이라는 자리를 빌려 우리의 지난 시간과 그 의미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이야기들을 정리하기보다 인상적인 말들을 직접 인용하는 게 더 생생할 것 같다.



- **미정:** 아이들과 트러블 심했다. 나를 노력해도 만나지지가 않았다. 아이들에게 엄마 얘기는 잔소리, 엄마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존재. 서운하고 슬펐다. 그러다 여기에 왔다. 가장 많이 변한 건 아이들이 가까워졌다는 거다. 여기서 공부하면서 내 치료가 먼저 된 게 가능성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다. 3년이란 긴 시간을 이어오며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많고 자각하는 시간 많았다. 좋은 피드백 받으면서 수용해가는 상태에서 나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게 되니까 아이들의 상태도 보였다. 내 눈높이에 맞춰 사랑을 준 것 같았다. 이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사랑이 가는 것 같다.

- **비단:** 나만 왜 이러나 힘들었는데 만나 보니 모두 내 얘기 같았다. 나이와 상관없이.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모두 아픈 줄 알았다. 서로 보듬어 주는 것 같다. 불안감들이 많이 가셨다. 문제가 딱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내면의 힘이 생겼다. 이제 문제나 사람들 대할 때 예전만큼 무섭지 않다.

- **귀영:** 지지자가 생겼다는 게 가장 크다. 처음에는 3년이 부담스러웠다. 중간에 1년만 하려고 했다. 나 자신을 보는 게 가장 급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도 되고 지지자도 늘어나더라. 3년은 해야 맞을 보지 않나 싶다.

- **윤주:** 여덟 살 아들이 며칠 전에 "나쁜 엄마에서 착한 엄마가 됐어. 무서운 엄마에서 순한 엄마가 됐어"고 말했다. 내가 봐도 아이들에게 화도 덜 내고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아이들에게 우스운 장난치는 게 덜 어색해졌다. 경직된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같다. 남편에게도 예전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괜히 며칠씩 말 안 하는 그런 일, 이제 없다.

- **은재:**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 치료가 같이 가는 게 매력적이다. 치료 받으러 오라고 하면 선뜻 가기 어려워도 공부하러 오라고 하면 가기 쉽지 않은가. 나는 여기서 배운 걸 널리 나누려고 한다. 대학원에도 진학했고 자격증도 여러 개 뒀다. 센터를 열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배울 걸 나누고 싶다.

- **중심:** 공부를 할수록 상담이 정말 필요한 건 '엄마' 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니까. 상담소는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프로그램과 장소가 곳곳에 마련되면 좋겠다.

기존 상담소의 높은 문턱, 학교 등에 들어가는 상담 지원의 한계, 초등학교 돌봄교실 문제까지. 아주 많은 생생한 생활의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자기 치유를 통한 성장과 나눔이라는 상담 공부의 특성상 변화한 모습에 대한 말들을 주로 인용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점점 더 자주 나오는 말이 있었다. 바로, 3년! 적어도 3년은 공부하며 함께 가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 삶에서 경험한 것이다. 이 3년과 그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프로그램을 어디서 누가 기획해 실천해나갈 수 있을까! 다른 곳에서 와서 배워 가면 좋겠다.

3/20 발달장애인 세상에서 함께 살기

장유성

장애자녀의 미래행복 오픈 컨퍼런스 2014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발달장애인 세상에서 함께 살기 행사'가 11명의 참여자와 함께 2시간이 넘게 자유롭고,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발달장애자녀를 둔 11명의 아버지들이 함께 장애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는 사례를 듣고 각자의 경험과 계획을 공유했다. (이하 윤여진 기자의 기사로 후기를 대체 함)



“장애아의 미래, 함께 고민하고 소통합시다”, “장애아의 미래, 우리 함께 고민해요”

20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민센터 배움터로 학부모 10여 명이 속속 모여들었다. 퇴근길 이들이 시민센터를 찾은 것은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한 오픈 컨퍼런스 1403(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2014년 3월에 열린다는 의미의 이 토론회는 부산장애인부모회 동래·금정지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 자녀의 미래행복을 준비하는 부모모임'이 주축이 됐다. 부모모임은 장애 자녀의 미래를 고민하는 학부모가 다른 장애인 학부모들을 만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찾자는 데서 출발했다.

장애 자녀 학부모 모임 토론회
동래·금정 개최 부산 전역 확대
아버지 동참·현장 경험 공유
“긍정적 기운 많이 얻고 가요”

지난 2011년 11월 결성된 부모모임은 그동안 동래·금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참여대상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한 것은 최근 장애아를 키우던 학부모들의 자살이 잇따르면서다. 비슷한 고민과 아픔을 공유하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아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모임을 주도하는 장유성 부산장애인부모회 동래·금정지회장 “장애아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아이의 미래”라며 “아빠들이 자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모임시간도 오전에서 오후 시간대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우 생일감사운동본부 이사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4년 전 잘나가던 직장을 관두고 시골로 내려가 제 2의 인생을 연 주진호 밀양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가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 대표는 “주말에는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등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자폐 장애로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아들이 점점 나아졌다”며 “아이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쏟아졌다.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에서 자녀교육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뜨거운 열기 속에 토론회는 두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끝났다. 참여 학부모들의 호응은 대단히 높았다. 정문경(43/동구 범일동)씨는 “꿈을 찾은 사례를 들으며 긍정적인 기운을 얻고 간다”고 웃음지었다. 오상무(46/수영구 광안동)씨는 “각기 다른 상황의 학부모들이 장애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 좋다”는, 배재현(46/남구 대연동)씨는 “기회가 되면 매달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3/20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지원기관의 막내 스텝들, 우리 이제 만나요 제발~

딱콩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지원기관의 막내 스텝들, 만났습니다!

이른 퇴근에 종종 발걸음으로 지원기관의 막내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원기관이라고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요즘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름들이죠. 이런 조직들을 지원하는 곳을 지원기관, 중간지원기관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도 익숙치 않은데 중간지원기관이라니 참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 친척, 친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설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작부터 푸념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큼 일터 밖에서는 또래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6시 땀, 칼퇴근에 성공하고 잘 알지도, 친하지도 않은 총 10명의 막내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총 6개 기관에서 모인 우리들은 알고 보니 5년 차 중견(?) 매니저부터 이제 막 업무 3개월 차에 접어든 파릇파릇한 막내였으며, 나이 서른을 기점으로 촘촘한 분포를 보이거나 싶었더니 90년생(!) 막내 오브 막내도 있는, 그러니까 공통점도 차이점도 딱히 찾을 수 없는 묘한 구성을 갖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어 중요한 문제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막내들은 어색했습니다. 우리들은 일터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명석을 깔고 비로 쓸고 꽃 장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걱정이 앞서고 서투릅니다. 아직 훈련 받지 않았기에, 워밍업을 한창 하는 중이기에 두려움도 큼니다. 그래도 여기 뭐, 누구 한 사람 훈계나 한 바가지 굵을 사람 없으니까요. 우리는 금방 또 서로를 향해 자기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소개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일 이야기 그런 거 꼭 안 해도 좋아요. 사회적 경제? 이런 거 말구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 하면 좋겠어요, 편하게...’

첫 마디가 무색합니다. 우리는 모인 2시간 내내 일 이야기, 사회적 경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어요. 거짓말 같다고요?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처음 만난 10명이 모여서 주구장창 일 이야기만 했단니까요! 그래서 싫었냐고요? 아니요, 무지무지 행복했어요. 이렇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니 너무 행복했어요.



나눈 이야기들은 이리저리 튀었지만 몇 가지 키워드로 묶입니다. 물론 가장 큰 카테고리는 우리의 일,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운영에서의 아쉬움

- 지원기관별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기도 해요
 - ↳ 그러니까요, 금액도 그렇고.
- 이 바닥(?)이 네트워크를 무지 강조하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술을 마시면서도.
 - ↳ 근데 정작 우리들, 실무 하는 사람들끼리는 뭐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그럼 더 시너지가 클 텐데.
- 기업의 CSR 차원에서 펀딩 받은 기금으로 사업을 하다보면요, 가끔 그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까..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 ↳ 펀딩 금액이 클수록 요구 사항도 많아져요.

- ↳ 실무자로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 ↳ 하지만 결국엔 기업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야하는 거죠.
- 인증업무 등 일을 하다보면 본래의 목적, 사업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나 가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행정업무, 단순 서류작업에 치우쳐질 때가 있죠.
- ↳ 그럴 때 기계 같아요. 서류 작성하는 기계.

***우리의 일과 생활**

- 이 분야는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박봉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 ↳ 맞아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희생을 내외부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 같아요.
- 예비 단계에서부터 공들인 사회적기업이 인증까지 갈 때의 기쁨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쁨 때문에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일할 때는 의식적으로 사회적기업가들과 거리를 유지해요. 공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사업이 종료 되고나면 정말 속내를 터놓고 가감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도 해요. 비즈니스만은 아닌 거죠.
- ↳ 관계의 중요성. 그런 감동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 ↳ 우리는 결국 사람의 힘을, 그 가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힘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걸까요?
- 후회는 하지 않아요. 스스로 후회한다고 인정하는 순간, 제 선택을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

- 요즘 대학생들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본인들 스펙 쌓기 용으로 생각해요. 선정돼서 한 6개월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입사용 자기소개서에 적어요.
- 한 줄짜리 스펙이 된 거예요. 정말 진정성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그런 거죠.
- 가끔은 그래요, 사회적경제가 정말 대안일까요?
- ↳ 뜯구름 잡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세상 고민 다 꺼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만처럼.
- ↳ 사회적 경제만큼 대안인 것도 또 없죠. 그죠?

마땅한 시작 없이 대뜸 시작한 이야기에 끝이 있을 리 없습니다. 애당초 우리 모임에 결론이나 완결성 있는 결말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차마 기록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오프더레코드는 막내들끼리만 알고 있을게요, 느낌 아니까~ 그러니까 지원기관의 막내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

3/21 더불어 사는 삶 - 입양에 대하여

김영

- 입양아의 80%~90%가 미혼모의 아이이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 입양을 보내는 나라. 6.25 전쟁 이후 해외 입양된 인원이 16만 명으로 추산.
- 지난 2011년엔 900명 넘게, 2012년엔 750여 명이 해외로 입양.
- 특히 장애 입양아 10명 가운데 7명이 해외로 보내짐.
- 국내 입양에만 의존화했던 1년간의 사후 관리를 해외 입양에도 적용해 국내 입양기관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입양아 관리 보고서 받도록 제도 개선 중
- 해외입양 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고민
- “입양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원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



단체에서는 연장자들을 권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아이가 파양됨을 고려해 아동보호소에서는 신생아를 권하고 있다. 입양부모 역시 여러 가지 의미로 깨끗하다는 이유 때문에 신생아를 원한다. 세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삶(Life Style)도 변화하고 있지만, 특정 부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고여있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버려진 아이가 불쌍하니까 보호 해줘야 한다' 라는 인식은 전환이 필요하다.

3/21 안전벨트로 가방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 - B-bag

신종석

이번 모임은 부산의 청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벨트로 가방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꿈”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총 10명(김리현, 김정운, 김경준, 박민욱, 서주현, 노열, 문준호, 김정아, 신종석)이 참석하였습니다.



“부산 겁쟁이” 부산 겁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을 동경하면서 서울의 것에만 열광하는 모습. 하지만 정작 서울이라는 곳과 경쟁하고자 하지 않았던 시간들과 부산에서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들을 공유하였습니다.

꿈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꿈의 실현기간을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꿈을 하고 싶은 일로 바꾸고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꿈의 기간을 정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의 호스트와 게스트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각자의 차례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호스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가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트로서 모임을 정리한다면 모임 전, 꿈을 꾸는 사람이 모임을 통해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변화들을 공유하면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과 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부산 청년들의 꿈 이야기는 정리되었습니다.

3/19 플랜B를 꿈꾸는 사람들의 네트워킹 파티, 공부, 영리와 비영리 Let's Big Party

유승희 (사회혁신공간There)

‘플랜B를 꿈꾸는 사람들의 네트워킹 파티’ 라는 큰 주제 아래, 2013년 11월 12일 첫 번째 파티를 시작으로 Let's B Party가 무려 20번이나 있었던 사실! 다 알고 계셨죠? 2014년 3월 19일, 모두 함께 모여 크게 그리고 제대로 돌아보자며 BIG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렛츠빅파티’에서는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테이블 토크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행복한 일상 만들기’라는 자기자기한 주제부터 ‘영리와 비영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살짝 머리가 무거워 지려고 하는 주제까지 다양한 이야기 거리를 가진 테이블이 마련되었습니다. 일부 테이블은 초기에 접수마감 되는 기업을 토하기도 하였답니다! 이번 파티의 최고 인기 주제는 네트워킹이었어요. 열화와 같은 성의로 무려 3개나 되는 테이블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파티 중간 중간 틈나는 대로 공간 뒤편에 준비된 ‘Let's Big Party 네트워킹 지도’에 명함을 붙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트워킹 지도는 ‘사회적경제인, 영리인, 비영리인, 공공인, 유목민’



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파티 참가자들 스스로가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영역에 명함을 붙여주셨어요.

홍대에서 10초 초상화 그리시는 장재민 작가가 테이블을 돌면서 파티 참가자님들 10초 초상화를 그려주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초상화가 오늘의 명찰이 되었습니다. 로드스콜라 프로젝트팀이 멋진 축하공연을 해주셨습니다.



파티 시작 1시간 뒤 영감을 나누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의 사회는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님입니다. 1인당 5분씩 총 10명의 사회혁신가의 이그나이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피커는 사회혁신공간There의 렛츠비파티매니저 안도빈 님입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소셜매니저" 라는 주제를 배대한 데이터와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술회를 방블게 하는 스피치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스피커 김승일님은 "문화와 놀이로 지역상권 불업하기" 라는 주제로 파티분위기를 불업시켜주셨어요. 현장의 생생한 사진들이 오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스피커 이강혜님은 본인이 선택하고 살고계신 플랜B의 이야기를 "행복한 인생에 정답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조근조근 풀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스피커님, 진짜 동안이십니다. 나이를 공개하셨거든요. 헛~여기서는 비밀.



네 번째 스피커는 열정대학 대표이신 유덕수 님이셨어요. "하고 싶은 일을 만드는 공부" 라는 주제를 열정대학의 사례를 들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셨답니다. 다시 한 번 대학생이 될 기회가 있다면 열정대학은 도전해 보고 싶은 학교였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지역 행복지표 만들기" 라는 주제의 스피커 김낙경님입니다. '별 볼일 있는 부천 만들기' 라는 7번째 Bparty를 여셨던 분이세요 (2013.12.9). 행복한 지표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수치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것들이예요.

여섯 번째 박지민 스피커였습니다. "청년들이 만드는 공유경제" 라는 주제를 광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흥미롭게 풀어주셨어요.

일곱 번째로 영감을 나눠주신 스피커는 유다희님입니다. "사회혁신가를 위한 터잡기" 라는 주제였구요. 여덟 번째 스피커인 허식님은 "영리와 비영리는 어떻게 만날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괴와 사람이 만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누가 요괴고 누가 사람이었을까요?

아홉 번째는 "유쾌한 커뮤니티 공간" 에 대해 말씀해주신 오정익님입니다. 신촌공화국과 얼티즌 허브에서의 현장 경험을 생생하게 풀어주셨어요~

드디어 마지막 스피커 정성훈. "사회혁신 링크 플랫폼 There" 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흡사 사업설명회 느낌?

열 분의 이그나이트 이후 테이블 별로 끝없는 나눔과 소통의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자유로운 수다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별 구분은 사라지고 모든 참가자들이 노마드적으로 파티를 즐겨주셨어요. 모인 인원내 비해 다소 협소한 공간마저도 더 가까워서 부대끼며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02 1) 도시재생 - 재생이 에너지다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한 공간 재가치화

3/18 꽃보다 마을공동체 - 우린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보러 갑니다.

주수원



현재 다음과 같은 계획하에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판에서 계속 논의중입니다.
(<https://www.facebook.com/events/1401341000132874/?source=1>)

- * 일시: 6월 5일(목)~6월14일(토) 9박 10일
(6월 4일 지방선거. 6일은 현충일이어서 휴가는 6일내면 가능한 일정)
- * 장소: 라스베가스-샌프란시스코-시카고
(경비 등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중 양자 택일도 가능)
- * 경비: 인원내 따라 추후 산정
- * 목적: -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프로젝트 들여다보기
- 샌프란시스코 및 시카고의 마을운동 역사 이해
- 연수 후 책 등으로 성과 남기기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프로젝트는 실제 2012년 1월에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실제 프로젝트 사이트 보고 정보를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도 매력적으로 나왔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상황에서 다운타운프로젝트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얘기해보자라고 제안되었다. 40명 안 되는 분들이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10명 정도 참석했다.

다운타운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내용들을 읽어보았다. 관이 주도해서 대규모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대립되는 식의 공간들이 있는데 사회혁신가라는 새로운 부류가 나왔다. 토니 웨어인데 다포스 회사로 유명하다. 사업수완도 좋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다양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시를 한 번 창조해보겠다는 꿈을 꾸고 접근했다. 건물 땅을 매입하고, 대규모 공사하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기존 건물 살리면서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사회적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유독 관심을 갖게 되는 프로젝트이다.

구글, 페이스북 본사를 이전하면 시위 기사가 나온다. 이 회사들은 지역사회에 어울리지 못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들이 혁신을 잘 했다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했다는 것인데 가치 창출이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이뤄졌을까? 지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좋은 사람들과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모여서 좋은 동네를 만들었다는 건데 궁금하다. 구글, 페이스북은 자기 사육을 만들어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실제 살았던 사람들은 혜택은 받지 못했다. 여기는 전체를 다 매입해버리니 지가 상승이나 그런 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듯하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흩어져 있으니 그 이면에 있는 제도나 세금 관련된 거나 도시계획적인 것에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방식이 노후화된 건물을 사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니 네트워킹에서 점이 아니라 면이 될 수 있다. 작은 상점들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페이스북에는 다 들어와야 하는데 차이가 있다.

개발의 접근 방식이 달랐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개발이면 다 밀고 기존의 커뮤니티를 다 해체시키는데 반해 기존의 상태 그대로 매입해서 그 상태를 그대로 활용했다. 기존의 우리나라 개발의 패러다임과 겹치는 부분이 없다. 지역개발 부분을 보면 지역 내 갈등을 자주 접하게 된다.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프로젝트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개발되면, 기존의 정주민의 커뮤니티를 보호하면서 나아가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사실상 한 기업의 선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시험이란 생각도 든다. 새로운 도전 정신이 없는 자본가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었을까 싶다.



학교 등 기반시설

- 1. Turntable Health (병원)
- 2. Downtown3rd Farmers market (유기농산물)
- 5. Inspire Theater (150석 극장)
- 9. 9th Bridge School (학교)

코워킹 공간

- 6. Work in Progress (스타트업 코워킹)
- 7. The usr/lib Work lounge (스타트업 및 테크도서관)
- 8. Stitch Factory (패션 인큐베이팅)
- 31. Carson Building (스타트업 및 상점)

바·레스토랑·상점

- 11. Coterie (패션부티크)
- 12. Gold Spike (24시간 바, 사무)
- 17. La Comida (멕시코레스토랑)
- 18. The Beat (커피숍)
- 19. Uncle Joe's Pizza
- 20. Eat (브런치)
- 21. Mamila's Restaurant and market
- 22. Wild (바)
- 23. The Bukhouse Saloon (바)

쇼핑·문화 등 복합시설

- 4. Vegas Streets Food trucks (거리음식축제)
- 10. the thdrant Club dog park (애견공원)
- 29. Container Park (복합 놀이문화)
- 30. Fergusons Motel (40개 스몰비즈니스 예정)

스타트업 등 회사

- 3. Downtown Project 본사
- 13. Silver State Production Services
- 14. Fremont East Studios
- 16. Airstream2Go
- 24. CrowdHall
- 25. Fandevor
- 26. Movieline
- 27. Wealthlily
- 28. Teamly

거주시설

- 15. World's Largest Airstream Hotel (에어스트림 거주공간)
- 32. The Ogden (토니 셰이 등이 사는 아파트)
- 33. 8th Street Apartments (스타트업, 뮤지션 거주)
- 34. Towne Terrace Apartments (공사중)

재개발이나 뉴타운, 기타 주거지 사업들이 있는데, 개발의 주체가 누구인 것인가만 생각할 뿐이다. 지금도 기존의 뉴타운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모든 프로세스는 구에서 개입한다는 의식이 있다. 자본가로부터 시작했다는 우려가 있지만,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선 공부할 부분이 있다. 한 사람이 공동체 협약을 다 해버린 것인데,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한 사람에 의한 공동체 협약 및 통제가 가능한 것이었다.

어느 정도 몇 명이 거주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기사에서는 딱 그 마을만 애

기된 것 같다. 원래 지가는 어느 정도인지, 아주 일부분에 대한 정보 외에는 없다. 10만평 정도의 규모이며, 라스베가스에서 3킬로 떨어져 있다. 구도심지 느낌이다.

인천의 재물포 앞의 중심 상가 거리가 있다. 가구 수로 2천 가구 사는 정도의 거리이다. 공공의 개발 방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비어있는 건물을 사는 계획을 세웠다. 벌꿀의 방식이다. 그런데 넓은 거리를 매입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이해관계자도 많다. 지하층은 동의하지만, 상권이 채워져 있는 경우는 어렵다. 건물주와의 협이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지구단위로 개발하는 게 불가능했다. 하나의 건물 동 정도를 매입하게 되었다.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건물이고, 중앙에 중정이 있다. 삼각형 건물이 붙어 있고, 1층부터 3층까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다. 평화시장이라는 건물이 많이 비어 있어 하나씩 11채를 매입을 하는데, 지점을 잘 찍어야 효과가 좋다. 그런데 좋은 지점은 토지 협상이 안 된다. 공공으로 살 수 있는 곳은 부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효과를 보기 힘든 집들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2채 정도만 매입하고 있다. 매입을 천천히 하면 지가가 오르기 쉽다. 효율성 측면에서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프로젝트처럼 대규모 자본으로 한 번에 매입 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 소문나기 전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단일한 주체가 움직여서 신속하게 결정을 한 셈이다. 예를 들어 성북구에서 한옥마을을 지구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북촌처럼 지정하려고 하니 소문이 나면서 재건축해버렸다.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했는데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고 이로 인해 계획이 좌초되었다. 단일한 자본이나 힘을 받고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도 구성원의 참여나 의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

'서울 혁신파크'는 가용면적이 2만평된다. 구질병관리본부 자리이다. 20개 업체 건물 중 사용하는 건물은 7~8채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은지 5~6년 지난다. 오세훈 시장 때는 강북의 코엑스처럼 하겠다 한 뒤 사업성 없는 걸로 결론 나고 시장 바뀌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탑다운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기본계획 수립되고 나서 실제로 개발을 위한 계획이 세워지는 가운데서 정체되어 있다. 내부적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실무 협의회의사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고민이 우리가 그런 상을 그럴만한 경험이 없다. 혁신파크나 혁신 클러스터나 여전히 모호하다. 따라서 결과임에도 유사성이 가장 있다고 생각했다. 혁신이란 측면에서 그랬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대자본으로 매입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스템을 리셋을 한 부분이다. 공간을 두고 혁신가는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돈이 많았기에 한 방에 리셋을 했다. 혁신파크도 가능한 구조이다. 2조원 되는 곳을 왜 놀리고 있느냐란 방향에서 이런 식의 상상을 해 보았다. 라스베가스 다운타운은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기존의 시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엄청난 장벽이다. 리셋된 이후의 상황과 왜 이런 식으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프로세스 궁금하다. 현재 프로세스 공유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더 그렇다. 혁신적으로 해본 사례가 없어서 가서 보고 오면 참 좋겠다.

3/18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박승배

장소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

진행 : 박승배

참석자 : 조현세, 김남석, 남궁지희, 최성용, 김민수

마을에서의 보행은 자유롭지 않다. 도시에는 바쁜 일상으로 보행 자체의 즐거움과 여유를 느끼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출근과 퇴근을 위해 마을을 빠르게 스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꼭 도시 여기 저기 허겁지겁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마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주부나 어린이, 노인세대 등. 그들에게 보행은 어떤가? 자유롭고, 즐겁고, 편안하며 쾌적한가? 이 또한 꼭 그렇지 않다. 마을을 통과하는 자동차들, 주차장이 된 골목길 등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 익숙한채 살고 있다.

1. 나는 왜 보행문제에 관심을 가지는가? 혹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조현세 : 노인보행에 대해 실질적인 접근을 하고 싶다. 노인 보행사고에 대한 통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남역 사거리 등에 스크램블 교차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남역 뿐만 아니라 보행량이 많은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운동을 하고 싶다. 삼성역에서 한 근무자가 지하철 셔터를 내린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 횡단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횡단보도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횡단보도 설치할 때 어려움이 많다. 예술의전당은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4년이 걸렸다.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김남석 : 교통공학자이기 때문에 보행을 교통수단으로 이해한다.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다. 이동수단이 개발되고 빨라지면 보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교통수단과 교통수단을 잇고 접근하기 위해, 즉 다른 교통수단을 서포트하는 역할로서 더 중요해진다.

남궁지희 : 크게 두 가지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걷는 것을 좋아하고 승용차 멀미가 심해 차를 오래 못 탄다. 대중교통이 한결 수월하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은 내가 못가는 곳이라 생각할 정도다. 다른 한편 도시건축을 전공하면서 도시에 공공공간을 만들어 놓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면 실패한 것이라 생각한다. 공부하던 때는 기본적으로 보행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때였다. 보행환경의 방향이나 내용, 절차 등에 관심이 많다.

최성용 : 보행이라 할 수도 있고, 주제처럼 마을을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쉽게 생각해 누군가 어디서 어떤 곳에서 살고 싶니? 물으면 나 스스로 내가 꿈꾸는 공간에 자동차는 없었던 것 같다. 얼마전 도시연대에서 내가 꿈꾸는 골목길을 그리라고 오픈강좌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린 골목길에 공통적으로 차가 없었던 것을 보았다. 남궁지희님의 이야기에 매우 공감한다. 사람들이 자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동네가 되어야 할텐데 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자동차 때문이다.

김민수 : 보행은 걷는 것 뿐만 아니라 속도에 의해 잊었던 관계를 다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걷다가 보면 차로 이동할 때 볼 수 없었던 환경과 그걸 구성하는 관계를 다시 상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내가 내 삶의 주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확장할 수도 있다. 속도만을 강조하는 것은 효율성의 논리다. 관계와 사고를 넓히는 이유에서 보행이 중요하다.

2. 자동차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

조현세 : 차가 없는 세상은 편하다? 구청장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치적으로 여긴다. 주차정책의 대안으로 동네에서 거주자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이다.

최성용 :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얻는 효용도 생각해야 한다. 도시연대가 보행운동을 할 때 이게 없을 때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 생활

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상상하게 해야 한다.

김남석 : 예를 들어 자전거가 잘 되어 있는 것은 탈만한 수단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동할 때 효율적이다. 안전하다. 나는 여전히 공학자로 보면, 보행 또한 역시 한 지점에서 지점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라 여전히 생각을 한다. 보행의 목적은 통근, 레저, 쇼핑 이 세 가지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밖으로 걸어 다니는 이유를 생각하면 크게 감상적일 필요는 없다. 생계를 위해서는 편하고, 빠르고,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최성용 : 걸어서 다니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면 도시구조가 바뀌게 된다. 내가 최근 도서관과 수영장이 붙어 있는 곳을 찾고 있다. 이것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자전거로 이동하기 위해서 10분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그게 한 동네의 범위가 될 거다. 차가 주된 수단이라 하면 한 동네고 뭐고 그런 구조가 중요하지 않아진다.

김남석 : 조금 급진적인 생각이라 본다. 보행을 보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과의 연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스 규모에서는 그게 맞다고 본다. 현실적인 생활 공간에 보행의 가치를 어떻게 연계할까 고민하면 여전히 통행시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자동차 통행시간을 계산할 때 door to door로만 봤다. 주차하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다. 주차하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행이 더 합리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차면 수를 줄이는 것이 열쇠다. 도심과 상업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자동차 이용을 진척시킨다.

김민수 : 대중교통이 좋다고 하잖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많은 것은 대중교통 체계의 좋고 나쁨도 있지만 자동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구조나 출퇴근 이동거리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운영제도가 실천되면 제도를 유지하게 하는 보조적인 수단, 가령 교통수단들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칼퇴근 하고 등등 사회적인 조건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남석 : 어쨌든 대중교통과 보행의 컴비네이션을 자동차보다 더 경쟁력 있게 해야 한다.

김민수 : 대중교통은 지금도 빠르다.

김남석 : 그게 사실 굉장한 차이다. 정작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훨씬 빠르다 생각한다.

3.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고 이야기하면서 도심부 얘기가 적잖이 나오는데 도심부에 왜 자동차를 억제하고 보행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궁지희 : 역사적인 가치, 정체성 등은 실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자동차를 빼자는 것이 유럽의 경우이고 이미 많은 개발이 이뤄진 우리 실정에서 도심부라는 곳은 토지이용 등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수요관리의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에서 주차가 늘어난다면 반사적으로 보행이 불편해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유럽의 도시에서는 순환도로와 주차시설이 도심부 통행제어와 함께 고려됐다. 도심부 이외에는 주차공간이 확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도심을 살리고 나머지를 포기하자는 것이냐는 논의로 옮겨가게 되는데 도심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 맹점일 수는 있다. 도심부 등 시가지에서는 정책적으로 할 만큼 했다고 본다. 이제는 생활의 영역으로 옮겨 갈 필요가 있다. 도시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차원의 고민을 성숙해나가지 않으면 도시구조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 공감이나 저변을 넓히는 힘을 동네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현세 : 존30도 빠르다. 존18로 하던가, 존30까지 달릴 수 있다는 교통감각을 바꾸자. 걷는 것이 좋다는 철학이 먼저다. 첫째, 초등학교 학생들이 걸어서 학교를 갔더니 성적이 더 올라 머리

가 좋아졌다 라던지, 둘째, 할머니들이 걸었을 때 치매가 덜 걸렸다던지, 셋째, 예수님, 부처님도 걸어 다녔으니 종교시설 걸어서 오라던지.

최성용 : 대도시가 가지는 특성으로부터 우리 주제가 실현 가능하나 논의한다면, 대도시에도 곳곳에 동네들이 다 있다. 내가 걸어서 동네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애를 낳으니 하듯 따뜻해 공놀이를 하더라도 동네에 차가 많고 위험하니까 더 안전한 곳으로 차를 타고 가야 한다. 내가 사는 근처에 아라뱃길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 외진데 있는 걸 누가 찾아가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바글바글하다. 그런데 근처에서 차가 짹 주차되어 있다. 뭔가 정상은 아니라는 거다.

김남석 : 도시의 다양한 공간의 스케일을 구분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보행을 이야기 하는데서 낮은 수준에서만 접근하면 법사회적으로 확산이 안 될 거라 본다. 수준에 따라 속도, 공간, 우선권(차량과 사람의 관계)이 달라져야 한다.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보행자 푸쉬버튼이다. 지금은 60초 주기로 했을 때 차 50초, 보행자 10초, 보행자가 누르면 파란불이 다음 주기에서 바뀐다. 이걸 다음 주기가 아닌 바로 들어오게 하자는 거다. 보행자가 기다리는 1초를 자동차가 기다리는 1초와 같이 보자는 뜻이다.

남궁지희 : 아울러 항상 파란 신호등을 상상할 수 있다. 항상 보행신호가 켜 있다가 자동차가 지나야 할 때만 빨간신호로 바뀌는 거다.

김남석 : 스케일을 정하는데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다. 담배 사러 가는 것이 통근보다 많을까? '통근', '쇼핑', '레저' 등 통행의 목적분류가 스케일과 같이 가야 한다. 보통 보행하면 '레저' 차원만 얘기한다. '쇼핑' 도 중요하다. '쇼핑'은 사실 보행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백화점이고 마트고 자동차 없으면 불편한 현실이다. '통근'은 대중교통 이슈로만 간다. 그러니 우리가 보행을 얘기하면 '레저'만 생각하는 것이다. 보행에서 '통근'과 '쇼핑'의 이슈를 끌어와야 한다.

4. 제안하고픈 정책 혹은 도시연대 활동이 있으면 말씀을 달라.

조현세 : 마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성직자가 차 없는 교회만 만들어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 차고지증명제가 재논의 되어 현실화되길 희망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줄여 나가는 일, 건물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 되었으면 한다.

최성용 : 간선도로의 흐름이 막혀 마을을 통과하는 차량이 많은데, 통과교통을 줄이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무조건 차가 책임지게 하자. 자동차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김민수 : 보행을 도시권의 권리로 포괄적으로 고민하면 좋겠다. 보행을 통해 사람들이 도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남석 : 네덜란드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본은 50% 자동차 과실이다. 보행자의 경우 스스로 과실을 인정할 때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잘 알려진 본넬프의 사례에서는 1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에 무조건 차량이 책임을 진다. 도로교통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다.

남궁지희 : 영국 홈존에서는 재량으로 차량속도를 제한 할 수가 있는데 홈존이 아니더라도 모든 주거지에서 속도제한을 하자고 시민단체에서 캠페인을 한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도 주거지에서 30km 속도는 사실상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 보차 구분 안되어 있는 곳에서 3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감을 공익광고로 만들어 캠페인을 해보면 좋겠다. 또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캠페

인에서 교통사고 제로 운동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통안전의 목표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one is too much"
원칙적으로 한 명도 죽지 말아야 한다.

김남석 :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캠페인의 성과는 안전인식의 변화, 시설물 등의 개선으로 줄었다 기 보다 안전벨트의 효과였다. 안전벨트만으로도 교통사고 시 치사율이 줄어든다. 안전인식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운전면허 교육은 상당히 기능적이다. 에코드라이빙 교육이 실제 운전면허 시험에 반영되면 좋겠고 운전면허 교육에 사고체험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도 실제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은 좋아질 것이다.

3/19 보광동 어린이 회의

Ki HyunJoo

마을의 공유공간인 마을살이에 오는 어린이들이 어느 날,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니까 이야기 좀 필요하겠다고 했어요. 실은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공간공유'에 대해, 그리고 '마을살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막상 진행된 어린이회의는 원가를 결정짓기 보다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회의기록을 함께 공유 할게요~

회의 시작한지 10분 만에 집중되지 않아서 휴정하기로 함.

오후 14:35분 회의 다시 시작.

건우가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자신의 말을 칠판에 쓰기 시작함.

칠판에 쓰는 내용에 집중하면서 분위기가 잡힘.

"그래서 오늘 뭐할건데?"

"여기 어떻게 꾸밀 건지 얘기 하는 거 아냐?"

"사회자를 할 거면 말을 해야지."

"원래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끼리 회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회의는 나중에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무엇을 준비할지 얘기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왜해?"

"지금 무엇을 할 건지 정해야 나중에 회의를 할 때 준비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린이 회의를 할 땐 많은 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들과 운영진을 뽑고, 무슨 대화를 할지"

"우선 오늘은 나중에 운영진을 어떻게 뽑을지,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나중에 회의를 할 땐 어떤 사람들을 부를지, 어떤 내용을 말할지"

"일단 예비 운영진을 뽑아놔"

"공평하게 그냥 제비뽑기를 하면 안돼?"

"제비뽑기로 하면 힘드니까 그냥 다수결로 하자. 반장선거처럼"

"투표? 그럼 다 자기를 찍으면 어떻게 해?"

"그냥 운영진 없으면 안돼?"

"그냥 니가 해라. 어차피 네가 다 할 건데, 운영진을 왜 뽑아"

"운영진을 왜 뽑냐면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려줘야 하고..."

"건우가 제일 많이 왔으니까 제일 잘 알잖아. 네가 해"

"나는 많이 온 사람 순으로 운영진을 뽑는 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사람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이 오지 못하니까, 운영진을 못해"

"운영진을 하면 시간낭비하게 하잖아"

"여기 자주 오던 사람이 단체로 오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처음 오는 애는 여기 잘 모르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데, 우리 중 누군가, 운영진이 되어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건우가 제일 잘 알잖아. 건우가 해. 나 지금 학원 가야하는데, 끝나면 그 때 또 올게"

"그럼 다음 회의는 원래 정해졌던 여기서 어떻게 놀지 와, 운영진을 뽑는 걸로 하면 좋을 거 같아"

"난 여기 와서 즐겁게 놀려고 온 건데,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 어쨌든 오늘 회의는 마무리 됐고요. 회의 끝"

보광동에 사는 어린이들이 마을의 공유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논의했는데, 운영진을 따로 선출하는 것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어요.

대의제에 대한 고민이나 공유에 대한 고민이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전기획회의를 포함해서 3번째 어린이회의였으니, 다음회의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 봐야겠어요. 보광마을살이 어린이회의는 앞으로도 쭉욱 — 될 거 랍니다.



3/19 아이들의 동네 놀이공간을 꿈꾸는 모임

어반소사이어티 최연희



- * 장소: 스페이스 노아
- * 참석자: 벨류가든 신은희, 이희진 / 어반소사이어티 양재찬, 최연희 / 핑퐁아트 김현민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김소연, 김은실 / 엄마놀이터 최신영, 김혜인

현황 및 문제점

- 마음 놓고 아이와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어디든 눈치가 보인다.
- 실내에서 육아를 하다보면 갇혀있는 느낌이 든다(소외감 등).
- 가정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아이들은 실내에서 노는 시간 1시간 이후에는 밖에 나가려고 한다.
- 다른 연령대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기 힘든 놀이터
- 이웃과 서로 소통이 된 후에는 서로 이해하고 믿어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다치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배우고 성장한다.
- 놀이터 계획 기준이 안전만 고려하고 있다. 안전 그 이상을 위한 표준기준이 필요하다

우리가 바라는 놀이터

- 아이와 보호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
- 자연체험, 테마가 있는 놀이터
-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공간/공원
- 소통을 원하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어린이와 함께 놀 수 있도록 바꾸는 건 어떻게?
-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예전 마을회관 같은 공간
- 예술이 놀이가 될 수 있다.
- 실내외 공간이 함께 있는 놀이터

- 공동체를 조직해서 우리가 원하는 놀이터로 만들고 싶다
- 놀이를 배우고 습득해서 스스로 노는 놀이터
- 생태놀이터

정보

- '놀이터'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예정 (독일 놀이터 디자이너 권터씨 참석 예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한 놀이터 관련자료 공유예정

3/19

보통사람들을 위한 보통집

이재준

- *장소: 새동네 복덕방, 강남구 신사동
- *참석자: (총 17명, 오후 1시 정리)
 - 주최 - 오픈테이블 일상폴폴 2014 / 사회혁신공간 데어 (조수빈)
 - 주관 - 새동네연구소(이재준소장)
 - 참석 - 글린트 (김범상대표, 최희정외 4인)
 - 라운드어바웃 - 서울소셜스탠더드 (성나연)
 - 루트임팩트 (최지훈)
 - 빈집 (지음 외 2인)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은호)
 - 소행주 (박종숙 외 1인)
 - 우주WOOZOO (김정현대표)
 - EMA 건축사사무소 (이은경대표/서울시 협동조합형 주택 설계)

*** 내용**

이재준) 새동네가 오픈 테이블을 주최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 안에서 주거에 대한 대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다. 우리가 정책을 제안한다기 보다는 어떤 의미로 시작하여 현재 어떤 상황이고 향후 어떤 지원, 공공 또는 민간 지원의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 편하게 정보를 교류하였으면 한다.

빈집에 대한 소개를 먼저 부탁한다.

빈집) 해방촌에서 주거공동체 또는 주거 대안 공간에 살고 있는 지음과 집, 라마스페라고 한다. 해방촌 내 주거공간이 총 7군데, 40명 정도 거주 중이다. 개인 보증금을 모아 전세금을 마련했으나 여러 채 구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개인 차원에서 모아 내는 것은 아니겠다 싶어 '빈고(빈 마을 금고의 줄임 말)' 라고 하여 조합 성격으로 출자한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한다. 그 외 분담금(임대금)과 공과금, 생활비를 각 구성원들이 부담한다.

처음에 전셋집을 오픈해서 친분 있는 친구들과 그 후배들까지 모여 공유를 했다. 사람들이 찾아와 한 공간에서 시작한 것이 6년 전 현재는 7군데로 확장됐다. 게스트 하우스 성격과 주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단/장기 투숙으로 나뉜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편이다. 필요에 따라 생기고 필요가 없으면 사라지는 공간이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산 등에 생길 예정이고, 지역과 개수를 필요에 따라 확장할 것이다. 공간이 확장되고 앞으로는 계속 집을 구할 필요가 있어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이재준) 최근 서울시에서 주관한 협동조합 주택을 설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면 한다.

EMA건축사사무소 이은경 (이하 이은경))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설계했다. 가양동 주택협동조합' 형' 임대주택, 만리동 주택협동조합' 형' 임대주택 그리고 은평구 쪽에 하나 더 기획 중이다. 운영은 주택협동조합이라는 운영공모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입주인을 모

으고 그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설계를 마무리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곳에 모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모델은 주택협동조합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관에서 다 지은 후 입주인을 선정, 입주인들이 들어오더라도 임대주택을 담당하는 SH 공사에서 그 전셋집의 유지 관리를 다 한다.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다. 서로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는 없고, 임대주택에 들어온 사람들이 소외되고 자살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그럴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들어올 사람들을 먼저 그룹화하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이웃을 서로 알게 하고 집의 관리도 가능하도록 기획한 것이다. 빈집도 주택협동조합으로 운영할 것을 추천한다.

입주민은 전통적으로 관에서 모아줘야 하는데 그럴 경우 입주민들끼리 공통점이 없다. 그래서 가양동은 아이를 가진 3세 미만의 어린이를 공동 육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하였다. 두 번째는 예술인들로 상대적으로 삶이 팍팍한 예술인들을 모아 예술을 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획했다. 직접 설계를 하면서 입주민들과 소통하며 마무리하긴 했다.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 커뮤니티를 만들 때는 코디네이팅 하는 팀이 따로 있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이다. 컨소시엄을 통해 코디네이팅을 한다. 설계는 일단락이 되었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모이게끔 만들어서 주택을 관리하는 교육을 한다.

주택협동조합은 민관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강한데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 '형'으로 불렀다. 법적으로 모집이 불가하지만 29세대까지 모집이 가능하다. 모집은 별도로 하되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형' 이라 붙여 주도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운영 예정이다.

이재준) 빈집에서는 어떤 형태에 대해 계획이 있는가? 협동조합 형식으로?

빈집)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집 주인과 개인이 입주 형식으로 계약하고 개인이 계약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해 한계를 느낀다. 조합의 형식을 가져야 지속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은경) 빈집과 다른 건 임대주택의 주인은 공공이다. 그 부분이 편하다.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주택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다. 조합이 건물주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꿔야 세입자들도 주택협동조합을 믿고 같이 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재준) 기본적으로 공감이나 공유의 감정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지속가능성을 지닌다 생각한다. 소행주,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한다.

소행주) 소행주는 마포구 성산동의 90년대 중반부터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육아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모여 살기 시작했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3-4년이 지나면 졸업한다. 졸업하면 학교 진학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육아 협동조합을 함께 했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그 마을 중심으로 계속 모여 살다가 주거에 대한 고민을 나누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문제인데, 그 비용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공동 주택이라는 대안이 생긴 것이다.

현실로 발현되기까지 15-20년이 걸렸는데 각자의 생활 때문에 누군가 책임질 수 없어 소행주라는 주식회사 건립으로 토지 구입부터 입주자 모집까지 진행했다. 마을 사람들 기반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마을 사람들이 주거 문제를 함께 풀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4번째 집을 건축 중이고 성미산 부근이다. 수익용에도 새로 시작했다. 개인의 집으로 분양되는 형태이다. 공동 공간을 통해 개인의 주거 비용을 절감하고 공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특징이 있다. 분양의 형태

로 부동산 시세를 따르고, 한 집에 한 가족 단위로 부담한다. 또 이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주택협동조합을 시작했고 작년 법인을 설립하여 1인 가구 공동주택 설립 후 현재 입주민 모집 중이다. 첫 사업은 1인 가구 중심으로, 입주 예정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가족 구성원 면에서 소수자가 많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과 주거를 결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재준 1인 가구 증가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곳에 참여한 이들 중 1인 가구를 위한 쉐어 하우스 라운드 어바웃과 우주가 참여했다.

우주 김정현 (이하 김정현) 12호까지 운영하고 있다. 입주민은 총 70명이다. 기본 계약은 6개월이며 6개월마다 갱신한다. 우주는 하우스메이트라고 하여 한 명씩 전담한다. 직원들이 주거공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케어한다. 쉐어하우스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은 회사의 상주 직원으로 근무한다. 자신이 담당한 사람들을 케어 하기 위해 몇 군데 집을 돌아다녀야 한다. 우주에서 테마를 기획하고 테마가 맞춘 사람들이 모이지만 테마가 그렇게 입주민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추가적 요소이고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재미있게 사는 데 있고, 공동체적 가치를 느끼며 살게 하고 싶다.

공급이 수월하지 않은 것이 가장 아쉽다. 대기자들이 많지만 적시에 제공이 어렵다. 알맞은 공간을 취득하기 어렵다. 가격도 비싸면 안 되고, 공사비도 많이 들 수 없고, 지역 문제도 그렇고 원하는 타이밍이 알맞기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 원하는 집이 나오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작한다. 대기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대기기간은 일정하지 않다. 자본만 투자되면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건 이 정도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지금 70명이고 올해 200인정도 입주 예정이다. 주거 공급이 원활하도록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으면 한다. 자금만 들어올 수 있으면 공급이 수월해질 것이다. 좋은 입지, 원하는 가격에 계약하기 어려우니 저리로 돈을 얻어 쓰면 되니까. 그 점이 제일 아쉽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적 자금이 좋은 여건으로 들어왔으면 한다.

현재까지는 회사의 주주들이 출자하여 운영하고 일부는 대출 받았다. 현재 1년 반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 이후 지금부터는 스케일 업 예정이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았다. 앞으로 더 크게 늘린 예정인데 출자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모델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매입된 것도 있고 경매로 집을 사서 제공하거나 반전세로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리스크를 전부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주인을 대신하여 위탁하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이재준 라운드어바웃과 서울소셜스탠더드가 운영하는 통의동에 있는 집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 다른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의 일들을 하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 말해 달라.

라운드어바웃 성나연(이하 성나연) '통의동 집'이다. 통의동 집에 재생하는 제3공간으로서 '라운드 어바웃'이 따로 운영된다.

서울소셜스탠더드가 움직이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현재 스탠더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스탠더드로 제안하고 기존의 스탠더드의 문제 리서치.

후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들은 통의동 집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목적 의식이 있지 않았다.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집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관심이 있었고 그 방법으로 쉐어하우스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만들 것이라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의미 있고 풍요로운 공간을 줄 수 있는지 전달하려 했었고 그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역 제안을 받았다. 사업을 하려는 의지보다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을 전달하기 위해 통의동 집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다른 분들은 대안의 주거를 만들기 위해 현실에서 타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했으나 우리의 방식은 좀 다르다. 현실 자본 논리에서 고장 난 부분을 이용해 실현했다. 건축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저리의 조건으로 자본을 제안했고, 그 자본을 빌려 누구나 인간적으로 괜찮다 느낄 좋은 컨디션의 건물을 빌려 건축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쉐어하우스를 보여주기 위한 목표 삼아 운영한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성적은 나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지 충실히 실천했다. 사실 가격 면에서 냉정하게 설정하지 못했다. 비싼 곳에 많은 것들을 들여 지었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적음에도 임대료가 싼 편이 아니다. 최근 만실이 겨우 되었다. 의미로운 풍요로움, 인간적인 삶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리서치를 진행한다. 그것을 통해 가능성 있는 것들은 통의동 집에서 '오픈 키친'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오픈 키친'은 한 달에 한 번, 리서치 했던 작업을 통해 만난 사람들을 감사로 초빙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하는 리서치는 집들의 발달사, 발달해온 집을 알아보니가 집값이 높아지고 도시가 팍팍해지면서 사는 공간에 있어서도 계속 인간적인 욕구, 감성적인 부분을 포기한 채 발달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극단적인 예로는 고시원 등. 생활과 효율만이 목적인 집이 있다. 삶에서 감성적인 부분을 떼어야 하는가? 그랬더니 집 밖 다른 곳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집 밖을 집처럼 쓰고 있는 곳(현상)을 찾아 조사했다. 오래된 집들을 무대로 하는 카페, 작은 서점, 갤러리, 레스토랑 등 이른바 제3공간이란 것이다. 감성이나 분위기 위주의 공간들,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관찰하면서 주거와 붙었을 때 어떻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쌓는 중이다. 서비스 런칭은 4월 목표로 만들고 있다.

이재준 실제 사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삶에 연결하며 주변까지 문화적인 영역을 확대하여 향유할 수 있는 가치들을 또 다른 집이라고 보는 것은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현재 집과 관련한 실질적인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이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까지 현재보다 앞으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문제점 또는 필요한 지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가격이란 것을 형성하는 데 주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어찌 보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정부분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는 m² 당 임대료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보증금은 한계가 있고 뭔가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겠다 싶어 장기적인 차원의 것들이 세워진 기준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게 중요한 목표이다. 이런 부분을 실천해서 문제점이 제시되면 수정 보완되면서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체적으로 가격들을 설정할 때의 기준을 공유하거나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가격을 설정할 때 기준이나 공유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 집을 임대해서 다시 사용료를 받을 때 기존 가격을 참고하나?

빈집) 전세는 월세로 하여 공간을 나누고, 보증금은 빈고에서 내고 월세는 n/1. 보증금을 빈고에서 빌리는 이자랑 분담금, 공과금, 식비 모든 것을 다 해서 대충 20만 원정도 부담한다. 금액은 시기에 따라, 회의를 따라 변동되는데 집마다 다르다. 회의를 해서 가격을 설정한다.

집마다 가격대가 따르고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다. 가격을 누가 정한 것은 아니고 사는 사람들이 쓰는 만큼 나눠 내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 부담한다. 오히려 빈집에서 신경 쓰는 부분은 비용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집에서 함께 살고 활동을 하고 밥이라도 같이 해먹으면 비용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나눠 내는 것이다. 다른 곳에 비해 비용을 낮추려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빈집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 모으고 있고, 그것을 다시 재투자한다. 새집을 늘리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투자한다.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필요는 없다. 가족들에게는 돈을 쓰는 것 아닌가? 같이 살고 있고, 관리 비용이라든가 누군가에 일을 시키고 수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니면 아무 보상 없이 보증금을 더 낸다. 월세는 동일하게 내지만 보증금을 더 내는 사람 1,000-2,000만원도 내고 아무것도 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가족끼리는 이렇게 사는 것. 어떻게든 비용을 아끼려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하룻밤에 6천원부터 시작해서 장기 투숙하면 6만원일 때도 있었는데 그 때는 전셋집이었다. 차익금에 대한 이자만 조금 내고 실제로 그렇게도 살 수 있었는데 그 뒤에는 월세집도 구하고 비용이 계속 증가했다. 비용을 낮추는 게 목적이 될 순 없을 것 같다.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누구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다 보니 금액 증가한다. 6만원에서(식비 제외)시작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더 올라갈 일은 없는 것이 이미 월세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은 빈고에 다 같이 모은다. 공동으로 운영한다. 장부 관리 및 계산은 철저하게 한다. 은행이니까.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공동체라 특별한 형태는 없으나 집마다 다르다. 사실 국민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모으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회계처리가 되고 있다. 마을금고는 4년째 운영하고 있다.

어떤 조건이 되고, 어떤 혁신적인 기업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집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타인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는 능력. '저 사람과 살면 좋겠다' 고 느낄 수 있는 매력. 살면서 늘어날 수 있으면 그것이 중요할 수 있다 생각한다.

소행주) 그 안에 경계를 지은 것은 아니고 소행주는 우리가 속한 이웃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주거 문제는 모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그런 집단이 있을 때는 그런 문제를 풀겠다 하면 코디네이팅 하기 위해 자처한다. 많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소행주 집을 세우고 우리도 해보고 싶다. 이 지역에 무엇을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는 도움 요청들이 생기면서 진행이 되었다. 어쨌든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금 조달인 것 같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잔금을 내기는 하지만, 나중에 내는 것이고, 지금 당장 집을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초기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집은 일체 분양하고 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 가격, 시장에서 공급되는 토지가격과 공사 비용을 기반으로 설정한다. 회사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만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다. 비용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 같다.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를 살 때보다 비용적인 측면, 공간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다른 부분에서 해결하려 한다. 공동 공간을 통해 서로의 도움, 효과 등에 대한 혜택이 있지만 살아봐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재준) 주택을 지을 때 토지와 건축비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건축비는 규정되어 있어 큰 변화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토지비이다. 계속 상승하며 취득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공동체 토지신탁이라는 것이 있다. 전은호 연구원님은 CLT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은호(이하 전은호)) 원래 땅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땅은 사람을 결속시키면서 즐길 수 있는 터전인데, 상품화되며 그런 경험이 어려운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 혼자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 공부할 기회가 생겼다. 세금을 통해 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공부 이후에나 세금을 통해 받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세금 밖에 해결책이 없는지 팀들과 해결 방법을 찾다가, 키워드가 맞물린 것이 공동체 토지 신탁이란 것이었다.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Community Land Trust) 는 공동체 (Community) 땅 (Land) 그리고 땅에 대한 신뢰(Trust) 더 정확히는 트러스트 (Trust) 는 트러스티라 (Trusty) 라는 땅에 대한 공동체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은 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땅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CLT이다. CLT의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주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260여 개 CLT가 활동한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체주택으로 보면 0.01% 도 미치지 않는 규모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CLT 원리는 토지는 영리를 추가하지 않는 조직이 영구히 가지고 간다. 건물의 가격에 토지 가격이 포함되지 않아 운영 가격 저렴하다. 그러면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 다음 사람들에게도 영구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간단한 규칙을 설정했다.

한국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 건물 환매토지 임대건물 환매 규제를 실행한 적 있는데 그것은 틀만 가져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자체를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 가격 다시 설정한다. 나중에 원래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가격 재설정인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재판매를 하는 룰이 정해졌다. 주택 가격이 상승한 수준에서는 원래 사람이 가져가고는 축적 중에만 가지고 나갔으니 다음 들어오는 사람이 내야 하는 건데 그것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돌리고 있다. 이것을 년 운영한 확인 하니까 처음 사람이 물가 상승 수준에서 봤을 때 처음 주택 구입했던 수준과 나중 사람이 구입했던 수준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적정 가격이 유지가 되었다는 거고 이게 증명되었던 것이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이 발생했을 때였다. 미국이 대부분의 주택들을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다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 다 정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일반 경매 넘어 간 주택들하고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영향을 받았으니 가격 상승폭을 확인해보니 배 가량의 안전성을 보여줬던 것. 그 뒤로 지역 안정화 프로그램이라 해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들이 경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기금을 모아 매입을 한다. 그런 건물을 매입하고 그 건물을 어떻게 하느냐. CLT같은 지역의 조직에게 전달한다. 그 사람들은 땅을 영구히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수익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 주민들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식의 지역안정화 프로그램을 가동 시켰다. 미국은 철저하게 주택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CLT가 이용되고 있다.

영국이나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영국만 해도 CLT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기존의 개발신탁 디벨롭먼트 트러스트 (Development Trust) 가 많이 있었다. 왕토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 대해 소홀했는데, 영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지역 재생, 지역 개발에 많이 활용됐다. 커뮤니티 오너십 (Community Ownership) 이라는 조금 더 확장한 미국은 비영리조직으로 작은 일을 많이 한다 면 영국은 커뮤니티 차원, 지역 차원에서 활동한다. 지역이 땅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한

다. 흐름적으로 위탁을 먼저 하다가 역량이 커지면 요구가 늘어난다.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저렴하게 장기 임대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국가의 땅을 커뮤니티로 옮기기 위한 제도가 중간에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증명되면서 커뮤니티에서 좋은 유희 공간을 주민이 먼저 신청한다. 자산(asset) 리스트에 올려 달라 신청하면 보통 경매에 나오거나 또는 주인이 팔려고 나온 건물들을 락(lock)을 걸어준다. 6개월 동안, 6개월간 이건 커뮤니티에서만 해볼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권리를 준다. 커뮤니티 라이트 투 바이(Community Right to Buy) 라는 제도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커뮤니티 셰어즈(Community Shares)라고 해서 마을 주식을 주민들이 매입하려 커뮤니티의 소유가 합법화 되는 것.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펍이다. 펍은 수백 년 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매입한 것이다.

이왕이면 현재 우리가 적용 받는 시스템의 상상의 한계, 창조성의 한계를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치에 대한 리셋이 필요하다. 전부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이 공간의 가치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영국 여행 중 특이했던 경험은 기존 지역 허브처럼 운영되는 공간을 방문. 작은 공간을 대여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꾸민 공간이었다. 액세서리, 옷 등 뭐든 판매 가능했다. 시장 통에 있는 1층 짜리 작은 건물에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가 했더니 물건을 판매한 금액의 몇 프로를 가격으로 책정해 공간 사용비를 받고 있었다. 기존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다. 이 방식이 시사하는 바는 누구나 공간에 접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간을 이야기할 때 접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다. 그러나 거기는 가격의 벽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접속 가능하다. 이런 방식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격 책정은 당신이 만족한 만큼만, 당신이 판단만큼만.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가격의 틀 안에 갇혀있다. 그 틀 안에서 하려다 보니 한정적이다. 그런 것들을 리셋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개발하려 한다. 서울시 같은 경우 청년들을 위한 무중력 지대 운영 등 공간 운영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으로 한계가 많다. 매년 30억씩 들어 한 해 2-3개 지어지는 공간은 사회적 혁신이나 사회적 경제가들이 생태를 구축하려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가 지원해주는 공간들은 법에 묶여 있지만 그 외에 일반 재단 같은 경우 사용자만 바뀌는 것인데, 그런 것을 푸는 작업도 필요하다.

최근, 지난달 공익신탁법이 개정. 기존에 있었으나 활용할 방법이 없었다. 일 년 후에 완전 적용되면 물론 기부에 의한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겠지만 공간에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기회가 올 것 같다.

이재준 서울시 차원에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언가를 하고 있긴 한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다. 서울시는 이러한 부분을 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은경 공사의 성격이 이익 추구를 원하는 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부채 감당이 어렵고 임대주택은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형식에 있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지만 그 안에 있는 형식들이 굉장히 딱딱해서 민관이 주관하는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다면 결합 가능하다. SH에서 건설하는 아파트가 포맷화되어 있는 것은 관리의 문제 때문이다. 모든 집의 형식은 관리가 편하고, 하자가 없이 빗물이 안 새게,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많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간 접수한 민원을 토대로 효율화가 극대 되는 건물을 설계한 것이다. SH 공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지으며 좋은 마음으로 일하려고 시작했다가 민원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 잡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입주민들이 관리하니 유연성을 갖자고 제안해도 마음이 닫혀있다.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만리동, 가양동 등 주변의 반대가 심했다. 그런 인식을 없애려면 커뮤니티를 잘 세워야 한다.

소행주 새롭게 시작한 임대 공동 주택과 조합 형식으로 집 짓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집단. 개인 공간이 공공성을 지녀 사회적인 변화를 실천. 그 점에서 소행주와 결합했다. 틀린 사항들은 수정 보완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새동네의 사업도 궁금하다.

이재준 실행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가좌동에 6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지었고, 임대료와 장기 계약 시 혜택이 있는데, 10년 살면 5년, 20년 살면 무료이다. 작년 11월 입주했고 10년을 전제로 한다. 2년 기준으로 사용자가 연장을 선택한다. 법정 기준에 따라 5%이내 인상한다. 당장 실천할 수 있다. 새동네 복덕방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아니다. 집에 대한 개념이 소유도 있지만 삶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짓느냐 보다 예술적 문화적 경험들을 나누고자 집에 관한 책을 모아놓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북카페 같은 공간을 마련했다. 정식 오픈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좋겠다.

직접 짓는 것도 있고, 빌리는 것도 있고, 리노베이션도 있다. 계획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필요에 비해 제공이 적은 것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런 대안들이 실제로 구체화될 수 있을 때 뭔가 지원해줄 수 있다면 계속 자금을 주어야 변화 가능하다.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힘을 빌려 더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3/20

문화, 예술, 여행을 통한 대전 대흥동 지역재생은 가능한가?

송수민

- * 일시: 2014년 3월 20일(수) 오후 6시 ~ 8시
- * 장소: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3층 여행정거장
- * 참석자: 15명 (무순)
- * 테이블제안자: 고두환 /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대표이사

‘자세히 보아야 예쁜,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동네’ 대전 대흥동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여행정거장’에서 지난 20일 오후 6시 오픈 테이블이 열렸다. 나누고 싶은 테이블은 ‘문화, 예술, 여행을 통한 대흥동의 지역 재생은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모인 대상자들은 대흥동에 터를 잡고 10여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부터, 지역잡지 기자, 정당인, 시민단체 활동가, 청소년 및 사회적기업 관련 분야에서 종사자, 그리고 대구에서 달려온 문화예술단체에서 일하는 청년까지 예상 외로 뜨거운 관심에 주최자는 당황하며 열띤 논의는 시작되었다. 주요 테이블로는 원도심 공동화현상, 도시 지역재생, 대흥동의 현 상태와 해결해야 되는 문제 등에 대해 나누었다. 이른바 원도심의 지역재생, 토건이 아닌 문화·예술·여행으로 가능할까?

공감만세가 원도심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지 4년. 지역 문화 예술, 지역 재생 미션을 갖고 여행을 진행하며, 작년 지역 재생과 문화 예술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갖고 ‘원도심 지역재생 워킹그룹’ 활동을 진행하였다. ‘문화, 예술, 여행을 통한 대흥동의 지역 재생은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을 갖고 자유롭게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리 마련하였다.

Q. 토건식 재생이 아닌 문화·예술·여행으로 접근하면서 다른 상상력과 담론들이 있지 않을까?

유병구 / 씨엔유건축설계사무소 대표건축사

현재 원도심 지역재생 관련하여 중앙로 중심으로 은행, 선화동 개발계획이 구체화 되었으나 시장성이 없는 편이며 대전역 부근은 개발 진행 상태가 미비한 편이다. 대전고등학교 옆 자이아파트가 처음으로 주거 재생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나 기대한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기존의 개발방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시점이다.

지역재생이란 거주하는 사람들이 배제된 개발이 아닌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는 지역 재생이 맞다고 본다.

이용원 / 문화잡지 월간토마토 편집실장

우선 지역재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지역이라는 경계는 설정되어있지만, 재생은 무엇을 그리는 지에 대한 서로의 생각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각자가 생각하는 지역 재생은 무엇일까? (대전 원도심에 대한 설정이 애매한 상태이다. 현재는 암묵적으로 원도심이라보면, 대흥동과 선화동, 원동, 인동, 소재동 일대를 일컫는다. 시에서 원도심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나오면서 다른 지역에서 역시 원도심이라 주장하고 실태이다. 하지만 시에서 집중하고 있는 원도심은 대흥동과 테미고개, 은행동과 선화동 일부지역에 속한다.

지역재생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예로, 원도심이 만든 지 1년도 채 안되어 스카이라드를 놓고 '스카이라드 출구전략은 없는가' 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스카이라드에 대해 출구전략을 운운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스카이라드를 없애던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이전하는 것은 더 많은 예산소모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내세우며 건설된 스카이라드를 통해 원도심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도심을 바라보는 관점이 소비적인 관점인가?, 인문학적 관점인가?

결국 핵심은 어떻게 사람을 모이게 하느냐이다. 하지만 현재 시의 정책은 사람들이 모여 지갑을 열고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것이 방침이 짝혀있다. 그 예로 (구)충남도청자리에 시민대학을 설치하면, 하루 수만명의 인원이 원도심에 오고가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그만큼 사람이 오고가지도 않고 그것이 활성화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도심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를 간직하고 있다.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을 소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원도심이다. 시민들이 단순히 대상이 아닌, 함께 해낼 수 있는 주체로 본다면, 돌이켜보면 재정과 인력을 가진 관의 강박에 의해 지금의 원도심 활성화는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Q. 시민사회의 역량과 네트워크, 조직을 갖고 있는가?

전성화 / 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 청춘 활동가

문화예술자원이 모여 있는 대흥동은 흡사 서울의 대학로나 홍대를 연상시키지만, 대전 내의 사람들조차 대흥동의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타지 사람들의 경우, 대흥동에 대한 정보 자체를 접하지 못하니, 더더군다나 찾을 수 없다.

요즘 대전 내 마을을 중심으로 한 신문이 만들어지고, 월간토마토와 같은 지역문화잡지의 꾸준한 활동이 있지만, 대흥동의 수많은 갤러리, 소극장, 체험 공간, 사회적경제 활동 조직 등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는데 한계가 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다면, 문화와 예술이 여행으로 꽃 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덕연구단지나 의료 관광 등으로 외국에서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조차 대전을 둘러보지 않고, 서울 등지로 바로 유출된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한다. 원도심에 집적된 이 자원들이 소중하기에 이를 대중적으로 잘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다.



손근석 / 대전 마을기업연합회 회장

마을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을기업들 역시, 제품 판매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어떤 활동과 스토리를 덧붙여 대중과 만날까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연장 선상에서 원도심에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대전의 여러 마을기업의 제품이 원도심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이것들을 여행하는 꼭지로 함께 엮인다면 우리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을거란 생각하에 전시판매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한창민 / 정당인

소비와 자본, 상권에 대하여 고민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은 사람을 모이게 해야 한다. 커뮤니티는 사람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소비는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소비와 자본 중심이면 경제적으로 낙후됐다고 여겨지는 원도심은 파괴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원도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조직들이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방문했던 성미산 공동체는 외부에서 바라본 희망이 커서였는지 수많은 관심과 주목으로 자칫 공동체가 퇴화하는 것은 아닌지란 의문을 가졌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의 원도심 지역재생, 마을을 만드는 일 들은 잠시 제안하고, 쉽게 좌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청춘 목수 / 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 청춘 대표

'현재의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가 왜 생겼나?' 는 질문으로 돌아가면,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도시에 집중되며 생겼다고 생각한다. 사람도 자본도 모두 도시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그런 도시를 우리는 재생해야 할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도시의 재생을 바라지 않는다. 도시가 생기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해야 한다. 농촌과 연계된 발상이 필요하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병구 / 씨엔유건축설계사무소 대표건축사

사실 설계라는 직업은 재개발을 해야 먹고 사는 직업이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게 어떤 때는 모순적이지만, 사람이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지난 6년 간, 문화예술인이 모인 단체 <대흥동립만세>에서는 여러 활동을 했다. 그 안에서 나도 활동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원도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효과적이란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지속적인 지원이 담보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사업을 지원하는 행정 중심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자생력 있는 변화로의 지역 재생은 그런 방식으로 불가하다.

신동우 / 대구 인디053 기획팀장

대전 원도심의 사례를 들어보니, 대구 원도심의 사례와 비슷하다. 대구역 앞에도 대흥동과 같은 공간들이 있다. 엘리트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예술가를 이용하고 선동한다는 느낌은 항상 지울 수 없다. 사실 정부의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의 사업이나 지역재생을 이끄는데, 나머지가 이벤트 회사 같다는 느낌도 역시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 쪽에서는 문화예술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고두환 /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대표이사

지역 재생 관점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나는 토건을 통해 구성된 회색 도시를 재생해야 할 도시라고 보지 않는다. 소비와 경쟁으로 점철된 커뮤니티 성이 아닌, 사회적자본 혹은 사회적경제라는 방식을 활용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지역 등의 의제를 가진 커뮤니티 성을 어떻게 회복할까가 현 지역 재생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은, 무형의 재생, 특히 대흥동의 경우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문화·예술·여행을 통해 지역 재생을 해낸다는 포부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민사회 전반에

는 이런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급할만한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용원 / 문화잡지 월간토마토 편집실장

(신동우 씨의) 질문에 답 하자면, 문화예술을 다루는 거버넌스 조직은 없다. 문화예술인을 줄 세우는 방식의 정부 혹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방식은 역시 문제가 많다.

대전 원도심의 특이할만한 점은 좋고 나쁨을 떠나 (구)충남도청에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꾸리는 <시민대학>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별별솔루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위의 고민을 계속 해왔다.

도시의 축적 역량이 아직까지는 성숙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이나 역사가 깊은 도시를 절대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생태계부터 파악하여 진단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집행되어야 한다. 시민 역량의 확대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별별솔루션> 프로젝트 내에서는 대흥동 공간에서 위와 같은 의제를 논의하는 일상적인 단위, 마을회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것이 공감되었다.

전선미 / (사)풀뿌리사람들 활동가

풀뿌리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다. 사실 1년 정도밖에 안되었기에 시민단체의 입장에 서서 말하기보다는 그동안 일반 시민이었기에 일반 시민으로서 말하고자 한다. 대흥동의 문화예술 향유자로서 살아온지 4년 정도 됐다. 대흥동의 문화예술 공간에 가면 관객이 없고, 또 관객이 소중하지 모르는 뻔뻔한 느낌이 든다. '여기, 들어가도 되요?' 라고 물어야 할 정도로, 소비자가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들에게 별 소리를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였다.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려하면, 그들을 너무 소비와 경쟁에 재단하려 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서울에 가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그것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문제의식이 있다면, 문화와 예술을 논하는 사람들은 나누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큰 그림에서는 같은 방향일 텐데, 작은 갈등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든다.

그리고 오픈테이블에 오면, 문화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어서 놀랐고 아쉬웠다. 담론과 시책이 아닌 조금 더 편한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격 없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한다. 오픈테이블이 그런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담론', '시책' 등 논문을 읽는 듯하게 어려운 말들이 나와 스스로 위축이 되어 제대로 발언을 하지 못했다.

이용원 / 지역문화잡지 월간토마토 편집실장

(전선미 씨 말에 이어서) 예술 행위자들도 관객이 낯설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문화예술인 끼리의) 갈등이 쌓이면 풀 수 있는 그것 역시 역량이라고 본다. (그 역량을 쌓을 틈도 없이)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고, 모두 급급한 상황인 것이다. 사실, 조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다.

위와 같은 부족함 점들은 정책으로 만들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공의 정책은 예술인을 재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닌 예술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흥동이 그 이용과 활용의 장이 되길 바란다. 우리에게 줄 세우기 정책보단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유병구 / 씨엔유건축설계사무소 대표건축사

대흥동을 볼 때 마다, 무엇을 하기보단 가만히 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한다. 무엇을 도모하기에 역량이 되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라기보다 그들로부터의 작은 변화

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에 갈 기회가 있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그 공간은 과연 사람들이 공감할까?'란 생각과 함께 인간성을 상실한 영화를 찍으면 어떨까란 생각을 했다.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더불어 참여하는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이 절실하다.

신동우 / 대구 인디053 기획팀장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이 대전인지 대구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다. 지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리라 생각이 되는데, 마산과 창원외의 통합에 맞추어 새로 조성된 원도심 예술창작촌과 같은 사례, 즉 외부의 사례를 우리 모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두환 /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대표이사

지난 해, 대흥동을 주제로 글을 쓴 사람들의 원고를 모아 배포자료를 만들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대흥동, 그리고 원도심의 문제를 타인이 아닌 자신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의 초입에 들어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시간 오픈테이블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21 혁신파크 상상메모 투어+포럼

Jeeah kim

서울 혁신파크는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구)질병관리본부 단지를 말합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을지를 상상해보는 시간이었는데, 단지 내부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단지 내에 미 활용되고 있는 공간들을 둘러보고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포럼에서는 첫 번째, 혁신파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발제, 두 번째, 혁신파크 사례 나누기, 세 번째, 혁신파크에서 주민되기+워크숍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네 개 조로 나누어 각각 테이블에서 자유로운 상상의 시간을 갖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워크숍을 통해 조별로 나왔던 내용들을 러프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① 혁신파크 안에서 우리가 주인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다. 처음에 관리자가 있다 보니 공간 쓸 때마다 물어봐야 되고 눈치를 보면서 쓰고 있다. 이용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공간이 되면 어떨까 한다. 예를 들어 더러워지면 스스로 자보를 만들고 모든 공간이 아닌 일부 공간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한다. 이렇게 하면, 관리 부분에서 에너지를 줄이거나 할 수 있는데, 입주단체 협의회를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일정부분 관리비를 내야하는데 똑같이 내면서 대신 우리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캠페인, 그럼 점점 관리비가 쌓여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재구성하는 구조로, 이 공간이 지금은 몇 개 단체가 없지만 공간 활용해서 단체들이 늘어나게 되면, 조건들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 입주단체 협의회를 이용하는 광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운동회 할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공간, 재활용센터 만들어서 모든 걸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 등.

② 혁신파크에 있는 공간이나 단체들이 다양한데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 공간이 들어가 있는 단체 특성에 따라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청년허브는 청년들이 많아서 액티브한 반면에 사경센터나 마을 같은 경우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인 느낌이 없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청소년들은 용역 업체 분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파크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많은데 일부 실무자들은 관계를 맺지만 대다수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겠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동호회 활동 등을 공유하고, 캘린더를 만들든지, 게시판만 만들든지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결합 할 수 있

도록 하면 좋겠다. 작년에 청년허브가 개소하면서 꾸었던 것처럼 주차장의 선긋기 등을 놀이로 재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③ 혁신의 키워드: 함께, 친구, 동료, 상생 등이었다. 이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밖에 사람들과 신뢰하고 상생해야 한다. 가장 빨리 단기적으로 오는 길에 인사를 해본다. 이 안에 맛집 팝업 스토어 같은 것 열어서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자. 이 안에서 뽀빠지면 재밌는 축제 해보면 어떨까, 이 안에 뭐가 있으면 더 많이 같이 할 수 있을까? 아기방이나 육아시설이 있으면 더 교류가 될 것이다. 교육을 위해 청년들이 독서모임 등이 있으면 좋겠다. 놀이터인데,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 애기들도 어른들도 놀 수 있는 놀이터. 숙박이나 밥, 화석연료 제로, 퀵보드 등 이용. 또 하나의 키워드가 휴식 등이었는데, 휴식하려면 뭘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떨까. 인터넷을 일시적으로 끊어버리자.

④ 맨 처음 질문이 혁신은 무엇인가로 시작했다. 질문이 질문을 낳았다. 뭘 혁신을 할 거냐. 중심은 뭐고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 혁신이 별 거 아닌 사소한 거다.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그곳이 내가 사는 곳이어서 좋게 바꾸자.



3/21 도시재생특별법에 제안하는 주민들의 특별한 테이블

홍성재

- *장소: 000간[공공공간] 플랫폼
- *참석자: 김종임, 김형철, 임인섭, 육재윤, 조은형, 김상훈, 박규아, 송재욱, 오단, 이나경, 이나영, 이영의, 이영동, 임소형, 최연희, 김소연, 문충실, 신윤예, 이예슬, 홍성재

참여자: 창신동의 주민들과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진 외부 참가자로 이루어졌다. 창신동 청년들과 25년 경력의 봉제사 김종임씨, 창신동 라디오 덤의 국장 조은형씨,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창신동의 청년 봉제사 임인섭씨가 참여하여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밖에도 건축을 전공하는 청년들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과정 중에 종로구가 창신·송인 지역을 지원한 상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3대 요건이 충족된 지역만이 선정될 수 있으며, 그 선정기준은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노후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4년 동안 총 200억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21일 금요일 오후, 창신동에 위치한 000간 플랫폼에서 <도시재생 특별법>에 대하여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픈테이블 자리가 마련되었다. '창신동' 지역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 주축인 열 명의 외부인원과 다섯 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진행은 000간의 대표 홍성재씨가 맡았다.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는 각자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의미였다. 크게 세 가지 의견이 나왔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 측면에서 공유지 및 사유지 부분만을 터치하고, 그 외 문화적·산업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을 살려 변화시키는 것 같다.

둘째, 말 그대로 도시가 다시 산다(再生)는 의미로 생각하였다. 타 지역의 예로 부산의 감천마을이나 성북동의 장수마을처럼 주민이 원하면 필요한 곳은 수리를 해주고, 또 건물을 원하면 세워주는 등의 방식이다.



셋째, 도시재생의 3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이 나서서 '같이 재생시키자'는 의미 같다. 기존의 재개발은 정부 중심의 물리적 개발, 즉 하드웨어적 측면이 강했다면,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내생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한다.

이를 통해 오픈테이블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재생을 건물의 보수·재건의 측면보다는 문화적·산업적·역사적 측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는 주민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의 중간에는 도시재생 특별법에 대한 맹점 또한 지적되었다. 법안 2조 7항 라, 마에 따르면 재개발의 논리가 도시재생 특별법 안에도 내제되어 있다는 점과 자치단체장이 이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악용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안건 결정주체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16개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등의 민간 전문가들로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은 빠져있다. 즉 주민은 제안 정도만을 할 수 있고,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동산이 새로운 찬스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선도지역으로 선정 가능성 있는 지역의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면 정부가 보수해준다는 식으로 정보가 잘못 전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관한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이 원한다면 옥상텃밭을 만들어주는 등 사유재산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제기되었다고 한다. 이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 시 공유지나 사유지에 한정하여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창신동'의 경우 봉제업 밀집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봉제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을 겸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불어 이곳은 낙산 성곽, 돌산 절벽 등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자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충분히 새로운 산업과 결합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이다. 이 후 사람들이 창신동에 오게 되면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즉 음식점이나 카페 등이 필요한데 이렇게 될 경우 실거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실거주민(월세 세입자 포함)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데, 지역발전예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건물주에게만 그 이익이 돌아가고, 다시 월세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결국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건물주가 손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 지역 발전과 함께 생길 수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카페 등의 거대자본의 유입을 막는대거나 임대료를 향후 몇 년간 올리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실거주민의 주거 복지를 위한 규제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분명 재개발과 다른 지점이 있다. 도시재생은 있던 것을 잘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모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외부인의 협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이 재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생이냐에 대해 물음표를 가져야 할 것이다. _ 정리 000간 이예슬

3/21 자동차가 없는 사람 혹은 세대에게 "대중교통바우처"를!

백해영



자동차 없는 세대에게 대중교통 바우처를 주자

*장소: 구로 느티나무 카페

*참석자: 이혜련, 홍은숙, 이을선, 백해영, 주경임

(제안배경)

- 이웃과 얼굴 맞대고 얘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놀던 골목이 사라졌다. 주차장화 되어버린 골목을 찾자!
-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 때문에 이웃과 얼굴 붉히는 일이 많다 (사회적 비용)
- 자동차의 증가로 도로확충과 주차장건립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주차 1대를 위한 예산은 5,000만원~1억 수준
- 탄소배출과 석유사용을 줄이자-자동차를 줄이자 → 대중교통이용하자.
- 자동차 없는 세대는 보통 저소득층, 그런데 그들은 예산이나 사회적 비용, 환경문제, 에너지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토론내용)

- 역발상인 것 같다. 아이디어는 좋다. 소박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자는 것 아닌가. 자동차 없어서 쪼는 것이 아니라 기 펴고 살게 하자는 취지는 좋다.
- 세대별로 한 달 10,000원의 대중교통이용권을 준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지 파악해야 한다.
- 10,000원 받자고 자동차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게 벌고 적게 쓰자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방향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

3/19 소셜픽션워크샵. 꿈꾸는 놀이터

이한아



꿈꾸는 놀이터라는 제목으로, 서울숲 내 환경놀이터를 소셜픽션 하였습니다.

꿈꾸는 놀이터란? 왜 이런 주제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서울그린트러스트 이강오 사무처장의 여는 말과 함께 참가자 소개와 더불어, 꿈꾸는 놀이터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며 시작하였습니다.

놀이터를 상상하기에 앞서, 과거 놀이터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근향 예견 디자인연구소 소장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 놀이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국내 데이터와 사진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아쉬웠다는 말씀과 함께 미국의 놀이터 역사와 자료를 많이 소개해주었습니다.
- 도시에 놀이터가 등장했던 것은 공공복지를 위한 놀이터 운동이었고, 레크레이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곳이었음을. 1800년대 말 뉴욕이민자가 급증하던 시절, 길거리로 쏟아놓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고 1890년대에 정착의 집이라는 단체가



최초의 놀이터 - sand garden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정착의 집 활동가 두 사람이 단체를 설립해 도시공간에 좀 더 많은 놀이터를 만들자는 운동을 벌여 민간의 후원으로 9개의 놀이터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 놀이터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듣고 도시에서 어린이놀이터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본격적인 소셜픽션을 위해 우선 대상지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직접 돌아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놀이터의 아쉬운 점과 놀아본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 혼자서도 쓸쓸하지 않은 놀이터, 활동적인 운동기구가 아니어도 자연과 더불어 사색을 즐길 수도 있는 품 같은 공간
- 친구가 있는, 돌이상의 놀이터, 혼자가 아닌 돌이상이 참여 가능한 친구를 만들어주는 놀이터
- 이동 가능한 변형 가능한 놀이터, 시설이 아닌 유량놀이터
- 자연스러운 놀이터, 동네 (마을, 삶과 놀이의 공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의 공간을 활용한 일상적 놀이터
- 모두를 위한 놀이터
- 세상에 어린이를 해치고 배려하지 않고 디자인된 놀이터는 없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놀이터는 좋을 것이다.
- 놀이도구가 없는 놀이터
- 사계절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놀이터
- 부모와 아이가 모두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
- 제한된 행위를 유도하는 놀이기구가 시시하다. 주변 환경/맥락 없는 나 홀로 놀이터였다.
- 놀이터의 물리적 경계와 심리적 경계

놀이터가 공원이라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놀이터로 영역이 한정된 것 같은 아쉬움과 마을과 가깝고 중, 고등학교 이용자들이 많음에도 어린이에게만 한정된 놀이시설도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공원에서 놀이터로, 놀이터에서 공원으로 경계가 무너지고 놀이시설만이 아니라 놀이공간으로 기능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3개조로 나누어 각자 원하는 미래의 놀이터를 그려보고 조별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상상했던 놀이터의 핵심키워드와 놀이터를 실현시키는데 제약조건을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공유했습니다.

- 목적성이 있는 놀이터, 이동형 (찾아가는 놀이터, 천막형 놀이터), 비어있는 놀이터, 안정적인 놀이터
- 모두를 위한 놀이터, 위험한 놀이터, 어디서든 놀이터
- 자연과의 공존, 영역과 경계가 없는 놀이터, 사람과 사회,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터

전체적으로 놀이터라는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놀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놀이터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커뮤니티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이동하는 놀이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터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터에 대한 생각도 정리하며, 꿈꾸는 놀이터 소셜픽션에 참여한 소감을 나누고 마무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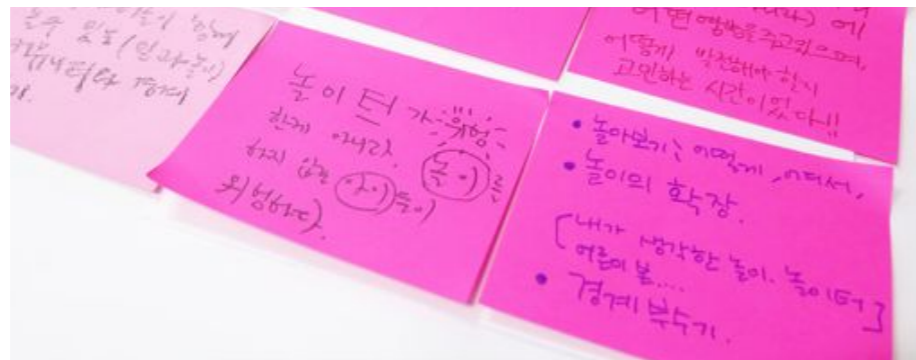
노는 것도 권리다. 함께 잘 놀려면 생각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한 놀이터의 상상을 이야기하고 '내가 만드는 놀이터'를 꿈꾸다.

'놀이'를 일반적인 개념으로 한정짓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과거의 놀이터는 잊어라. 새로운 공공적인 놀이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답은 보이지 않는다.

사람+ 사람 = 만남 / 다양한 나(아이) 놀이 / 공간 + 사람 = 만남 (생태/미래적)
 놀이 = 삶. 경계 허물기.
 '놀이터' 는 꼭 만들 필요가 없다. 친구와 즐겁게 놀 수 있는 어느 '곳' 이던 놀이터 놀이시설 말고, '함께 놀이' 가 존중되는 시공간
 일단 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놀이터가 (아이들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놀 수 있길 (일과 놀이)
 커뮤니티의 경계 허물기
 놀이터가 위험한 게 아니라 놀이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위험하다.
 놀이의 확장: 내가 생각한 놀이와 놀이터, 어른이 본 놀이와 놀이터



3/20 소셜픽션워크샵. 함께 상상하면 병원이 재미있는 공간이 됩니다

항동 (오픈테이블: 일상폴플2014_ 청년취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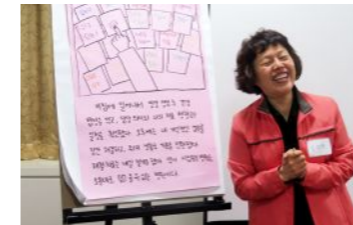
3월 20일 서울시북부병원에서는 “재밌는 병원이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프로그램은 국제공인 퍼실리테이터인 '인피플'의 주현희이사님께서 기획, 진행해주셨는데, 덕분에 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더불어 좋은 병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셜픽션 워크샵에는 병원직원, 환자 및 보호자, 시민, 시민위원회, 의과대학생 등 병원의 발전을 바라는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1조~3조로 나누어 서로 다른 분야의 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어요. 가장 먼저 네일 클로버에 이름과 하는 일, 참석동기, 이야기하고 싶은 점, 행복한 경험 등을 적어 서로를 소개하고 이후에는 재밌는 병원, 또는 좋은 병원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자신이 상상하는 좋은 병원을 나타내는 이미지카드를 골라서 포스트잇에 그 이유를 적고, 조별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발표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조의 경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병원, 환자 보호자 직원이 함께 어울리는 좋은 병원, 환자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안내해주는 병원이라는 의견이 나왔구요.
 2조의 경우 환자가 행복한 병원, 외롭지 않은 병원, 생로병사를 대비하게 해주는 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 등의 의견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3조는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환자 보호자 직원 모두 가족 같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병원, 소통하는 병원, 선택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병원, 환자와 직원의 노력을 이끄는 병원, 편안한 휴식을 주는 쉼터 같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각 입장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소통하고 휴식하고 모두가 즐거운 병원을 바란다는 지향점을 알 수 있었어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좋은 병원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내년엔, 내 후년엔 이렇게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제약조건을 제거한 정말로 이상적인 병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병원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도전적인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구체적으로 시설, 직원, 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상상을 해볼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최고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구체적인 작품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지요. 조원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병원이 실현된 모습을 그림일기, 해외토픽 TV뉴스, 인터넷 기사, 신문 기사 등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1조의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 좋은 병원이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와서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치료되거나 마사지, 음식, 취미생활, 집과 영상통화도 가능한. 그림으로 표현해주었어요. 환자의 일기 맛있는 밥상으로 식사를 하고, 담당의사와 영상통화를 통해 치료일정을 확인하고, 본인의 업무를 해결, 영화 등의 취미생활도 가능한 일상을 그린 병원이었습니다. 환자의 필요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병원에 대한 열망이 나타난 것 같아요.

2조는 직원참여분들이 많아 직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어요. 아이의 입장에서 그린 육아일기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육아휴가가 3년이라 휴가 중 회사에 아이와 함께 놀러 온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한 환자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이고 마법장갑으로 모든 질병이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오후 세시가 되면 무료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는 굉장한 직원복지가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조는 TV뉴스를 준비해주었어요. 5년간 북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국에서 온 외국인 환자, 301네트워크를 통해 치료를 받고 취업까지 성공한 노숙인 직원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이들이 소통하고 행복한 병원. 외국에서 온 환자들에게는 한국이 부러워지는 병원으로, 301네트워크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는 병원으로 표현 해주셨습니다.

즐거웠던 발표 이후,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자원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병원을 실제로 만들어가기 위해 해나가야 할 현실적인 일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씩 벽에 붙여가며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도, 예산, 소통, 마음가짐 등에 이르기까지 좋은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가하신 직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프로그램에 참가한 환자분과 시민위원분의 이야기는 모든 참석자가 공감하는 소감이었는데, 오늘 함께 만든 아이디어가 모두는 아니더라도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직원 분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했지만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러한 분들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정책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경우에는 스스로 무엇이 필요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꼭 필요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03 1) 도시재생 - 재생이 에너지다 청년들의 공화국

3/20 신춘공화국 임시정부 국무회의

장성욱

- 3월 20일, 신춘공화국 임시정부회의.
- 청년, 공간, 축제를 기반으로 신춘지역의 새로운 문화브랜드를 만들자!
- 신춘을 상징하는 축제와 랜드마크를 만들자!



올해 초 위와 같은 모토로 신춘지역을 주 무대로 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춘공화국 건립을 위한 임시정부 수립, 이후 각 주무부처 구성 (새마을운동본부, 오늘창조과학부, 신춘대학교, SBS, 국쇠청, 헌법재판소, 애교부 등) 최근 신춘공화국 9국공무원 채용(107:1의 경쟁률)까지ダイナミック한 준비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 이후 4월 19일 신춘대학교 예비학교를 시작으로
- 5월 10일 신춘공화국 독립선포식.
- 5월 17일 신춘대학교 움직이는 학교.
- 6월 4일 신춘공화국 대통령선출까지...

신춘을 중심으로 한 유쾌한 반란을 위해 많은 청년들이 신춘공화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일상포플 오픈테이블을 운영하며 새로운 실험과 도전에 목마른 청년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픈테이블 신춘공화국은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계속 운영되며, 열린 테이블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향한 청년들의 창의적 에너지들이 꾸준히 모여들고 구체적 성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 네이버 검색창에서 [신춘공화국] 검색하시면 연결됩니다.

3/20 지역 청년들의 혁신과 공유에 대한 고민

코끼리

광주 청년, "지역 / 혁신 / 공유" 에 대하여 일상포플하다.

1시간 30분 동안 광주 청년 12인이 모여 "지역/혁신/공유"에 대하여 생각을 공유했다.

2014년 3월 20일, 오늘은 코끼리공화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 선포를 천명하는 날. 박지민, 송승한, 이정현, 윤현석, 한우일, 노지애, 신지훈, 김진영, 김용원, 이철주, 하승창, 오다영, 박정록 이상 광주에서 활동하는 어마무시한 12명의 청년들이 상기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토로(吐露)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코끼리의 이사장이자, 코끼리공화국의 1대 대통령인 박지민 대통령께서 마치 유재석의 진행을 보는 듯이 능수능란한 진행을 선보였고, 서기는 사회적협동조합 코끼리의 공간매니저이자 코끼리공화국의 안전행정부 박정록 장관이 테이블 위로 날아다니는 대화들을 어느 하나 빠짐없이 기록하고자 귀를 쫑긋 세우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01. 오픈테이블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참가자 소개

처음엔,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친 후, 박지민 대통령이 『2014 일상포플 오픈테이블』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광주에서의 공유의 아이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02. 공유의 아이콘? 혁신!

공유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남들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굉장히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대체 왜 21세기에 들어서 공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의견.

최근 들어서 공유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공유라는 것이 '무엇을'에 대한 공유인지? 또한, 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인지에 이해가 부족하고 공유라는 목적이 개인의 이익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

광주에서 나타나는 '책 읽는 벤치 & 끼치밥홍시' 운동이 광주의 공유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는 의견. 공유를 하는데, 공유가 공유를 위한 공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공유인지도 중요하다는 의견.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는 잡담도 공유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공유에 대하여 커다란 의미보다는 작은 의미에 초점을 맞춰 살아왔고, 이 자리에서는 지역 사회, 세대 간의 문화적 인식 공유에 대하여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견.

공유와, 나눔, 기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보편화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 공유를 통해서 혁신, 공유를 통해서 다른 무언가가 사회적 현상으로서 나타났으며 공유를 통해서 변화와 혁신이 나타나는데 광주에서는 어떤 것들이 변화, 혁신의 요소로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나눔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유가 이슈화 된다고 생각하며, 원래부터 광주는 관계지향적인 성격이 탄탄하기 때문에 공유가 이슈화되기 힘들다는 의견. 뭔가 활동으로서 나타나고 있으면 그것을 재해석하여 붙여주면 된다는 의견.

공유경제란, 남아있는 어떤 무언가 잉여 된 요소를 찾아내어 그것을 물질단위든, 시간단위든 어떤 행위로든지 거래하게 만드는 경제적 모델이 공유경제라고 생각하는데, 논제가 공유경제에 대하여 이야기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

광주에서는 5.18과 같은 정신 공유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며, 공유에서 공감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공유라는 건 소유를 짓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며, 정부가 가진 자원을 공유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을 공유하자 라는 것. 그 자원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공동으로 소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며, 그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

공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알음 알고 있는 대안적 가치에 대한 열망의 아이콘이며, 과연 어떤 것 에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혁신을 원하는지, 현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뜻하는데, 사회가 어떤 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지,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생산성에 대한 강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 공유는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주는 좁은 지역성을 이용하여 공유문화를



좀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

광주의 금남로에 대해서, 기성세대는 그 곳을 투쟁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그 곳을 놀이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더라, 공유를 통하여 소통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재생산하지 않고 공유와 소통을 통하여 서로 다른 세대들이 함께 다시 만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

금남로에 대한 세대 간의 공유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나왔는데, 같은 공간에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필요하며, 공유를 하지 않으면 세대 간의 분열로 이루어진다, 나쁘게 말하면 짐이지만, 좋게 말하면 자산이며 이를 세대 간에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공유라는 이름으로 체득하고 다양한 승화방식으로 기억에 남길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기성세대들은 광주의 역사적인 건물인 '전일빌딩' 의 공간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들을 청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고, 충장로를 보면 거의 3층 이상은 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곳들을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공무원들은 '전일빌딩'에 대한 공간 개념이 공유에 대한 개념은 없으며, 공유를 분배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인식을 청년들이 제안하여 인식을 개선했으면 한다는 의견.

옥상셰어링을 통한 옥상녹화 프로젝트, 시유지 / 구유지를 '시민을 위한 가든'으로 형성하여 시민에게 오픈해야 한다는 의견.

광주에서는 음식이 공유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며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발효 음식, 음식들에 대한 지식 공유 및 공동 활동도 가능하다는 의견.

공유가 사회적 가치가 발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광주는 재능기부센터에서의 교복 나눔, 광주가 경제인구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인맥에 대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인맥공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

사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아쉬운 마음을 고이 접어두고, 다음에도 꼭!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기로, 또한 다음번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재! 라고 서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던 청년들이 코끼리공화국이라는 공간에서 잠시 만나 다음을 기억했답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유의 단계를 넘어 공감의 단계로, 가까운 미래에는 오늘 이 곳에서 논의 되었던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06-2

테이블별 논의내용 모음

2.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 순환이 동력이다

01 나눔이 생활화 되는 공유경제

[3/19] 집을 소유하기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3/20] 강남구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02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3/19] 대구 사회적경제 상상컨퍼런스 “여럿이 말하면 달라진데이~”

[3/20] 지역에서 교복을 만들면?

[3/21] 강동구 지역기금 조성방안 토론

[3/21] 협동조합 간 홍보 및 정보공유 어떻게 할까요?

03 소비에서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

[3/20] 도시에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04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순환

[3/18] 농촌에서 재미+의미있게 살기 위한 깨알 아이디어 찾기

[3/20] 청년공판장@동강 ‘도시청년, 왜 떠나지 못하는가?’

[3/21] 청년+농촌



01 2)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 순환이 동력이다 나눔이 생활화되는 공유경제

3/19 집을 소유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민달팽이 유니온



수요일 점심, 이제야 봄이 온 것만 같은 날에 얼티즌 허브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사회적 집짓기에 대한 희망을 가진 7명이 모였습니다. 두 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요 질문을 뽑아 정리해봅니다.

***주택협동조합의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 하는 것과 한 개인이 집을 갖는 것은 뭐가 다른가요?**

집에 대한 소유는 처분권이라는 초점에 맞춰져있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이 주택을 팔아 버리는 거지요. 그 남은 차익을 그대로, 노동하지 않고 얻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투기라고 하죠. 그래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조합원 공동이 소유하고 있고 거주권은 모두에게 있고 이에 따라 한 명 또는 그 집단이 집을 팔 처분권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할까요?**

빌라나 아파트 같은 기존의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민들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게 어려워요. 특히 업무가 많은 활동가들은 일이 많아서 일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으니깐 같이 살면서 커뮤니티가 가능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커뮤니티는 좀 더 느슨하면서도, 공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밖에 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내놓고 그걸 지도로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해요. 서울시의 공유허브 같은 것인데 이걸 지역적으로 좁혀보는 거죠. 그리고 직접 만나서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교환도 하고요.

이런 일상적인 만남이 하나라도 생기면 세입자들이 임대인에게 생길 힘들이가 생겨요. 서로가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 빌라나 아파트에서 협동조합처럼 주민 커뮤니티를 만들어 임대료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리비를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집이 비싸니까 좋든, 안 좋든 새로운 주거 모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메나 룸메를 구하는 게 많아졌잖아요. 이처럼 주거 문제는 대상이 다양해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쉐어하우스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 지금 법적으로는 보호 받기 힘든 쉐어하우스 이용자들에게 대한 법 개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임대인이나 임차인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건축법 쪽에서도 이야기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적 주택이라 했을 때 좀 더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요.

#주택협동조합에 대해서 더 쉽고 편하게 스스로 언어를 만드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협업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하자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19 강남구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김연아



***참여한 이(5명):** 상상(相相)마을 주민이자 한울공동체 운영위원 4명 (현사, 해바라기, 짱구, 광희영)과 김연아
***기록한 이:**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김연아 사회복지사

〈강남종합사회복지관 3층 북카페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풀풀 쏟아냅니다.〉

2010년 10월부터 강남구 개포동 우리 마을에 지역주민들의 품(재능)과 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쑥쑥 크는 아이들에게 작아진 옷과 신발을 들고 찾아오셨고,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을의 한 엄마가 컴퓨터를 가르쳐주겠다며 이 공간으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분의 엄마들, 어르신들이 모였던 이 공간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오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에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들고 오시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공간에는 마을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물건들이 자꾸만 쌓여갔고, 이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뵙는 마을 활동가분은 물건을 정리하느라 너무나도 바쁜 하루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이 공간에 오시는 분들이 꼭 무언가를 들고 오지 않으셔도! 오셔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더욱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도록 무엇을 해 보면 좋을까? 앞으로 이 공간을 더욱 마을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를 함께 둘러 앉아 1시간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을 많이 만들어보자! 상상나눔터에 오시는 마을 사람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최OO님, 중국에서 한국어로 시집오신 OO엄마, 손재주가 좋아서 손으로 만드는 공예 종류는 다~ 잘하는 김OO씨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마을 사람들과 한번 모여보자!' 는 의견을 모았고, 4월에 다시 만나 이들과 상상나눔터에서 할 수 있는 재미나고 즐거운 꺼리들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 이 공간을 더욱 마을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의 물품을 정리하고 진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운영위원들이 지켜봐주고,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더욱 공간의 주인답게 행동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가의 역할을 운영위원들이 함께하고, 서서히 이 공간을 방문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즐겁게, 재미나게 마을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을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이 되는 시발점이 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상상을 하며, 계속 모여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02 2)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 순환이 동력이다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

3/19

[대구 사회적경제
상상마당]
"여럿이 말하면
달라진데이~"

김원한

* 몇 가지 규칙

- 서로 '별명+님' 으로 부르기
-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따지지 않기
- 다른 이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오~해주기
- 시군(?) 없이 얘기하더라도 뭐라하지 않기

* 대구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 조선시대 : 경삼감영이 설치되면서 명실상부한 영남지방의 중심지로
- 1900년대 :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 대구
- 1960년대 : 사과하면 대구, 대구농금사과가 전국을 주름잡던 시절
- 1970년대 : 전국 섬유산업의 시작과 끝이 만나다

앞으로 또 전성기가 올까요? 온다면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행정의 중심? 산업의 중심? 지금처럼, 경상지역 최고의 소비도시? 오늘이 지난 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대구의 전성기를 미리 그려봅니다.

시간	소요시간	내용	
10:40~11:00	20분	참가자접수	
11:00~11:05	5분	〈오픈테이블:일상포럼2014〉 동영상 시청 및 소개	
11:05~11:20	15분	참가자 자기 소개	
11:20~11:30	10분	〈소셜픽션 키퍼런스〉 동영상 시청 및 진행방법 안내	
11:30~11:50	20분	대구사회적경제 상상컨퍼런스 "30년 뒤 대구, 상상하기"	①모듬별 자유논의
11:50~12:00	10분		②모듬소셜픽션공유
12:00~12:30	30분		③전체 자유논의
12:30~13:30	60분		④선결과제 논의
13:30	-	마무리	

1부 2040년 소셜픽션

- 1) 가족
 - "가족 개념이 변할 것 같다"
 -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로 조합 : 동성애자, 미혼모, 독신주의자, 일부다처, 다부일처

2) 산업

- "환경, 재활용 분야가 커질 것 같다"
- "사람들은 휴먼서비스 분야만 일할 것이다"
- "가치적인 생산활동에 사람들이 일할 것 같다"

3) 공간

- "문화활동을 근거리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전선들이 지하로 내려갈 것이다"
- "지상 공간이 넓게 확보될 것이다"

4) IT

- "전기를 무선으로 보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 "이미 무선전기장판 나왔다. 다만 아직 비싸다"

5) 교육

- "이대로 가면 학교는 없어질 것 같다"
- "동네에서 가르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6) 마을

- 자본주의 심화 : "정말 더 심해졌거나, 아니면 극복했을 것이다"
- 자급자족 시스템 : "공동체의 힘이 강해질 것이다. 필요성에 의해 뭉치지 않을까?"
- 현재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 모습 : "그래도 평등사회로 본다"
- 모든 생활의 베이스캠프 : "마을에서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 하지만 소중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 촘촘한 마을 만들기 : 100여개 협동조합 / 민간 주도 센터 설립

7) 농업

- "도시농업이 대두할 것이다"
- "노지 재배 한계상황 오고 있다"
- 오래된 아파트를 활용한 농사 : 1층 벼농사 / 2층 사무실 / 3층 문화공간
- 사례 (식물공장) : 싱가포르 / 일본 파소나그룹본사 건물
- "새로 짓는 건물에는 식물공장을 필수로 넣었으면"

8) 의료

- "덜 태어나고 덜 다치고 덜 죽을 것 같다."
- 불치병 완치제 개발 : "에이즈 예방제보다 완치제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2부 2040년을 위한 선결과제

- 1)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전담조직 신설
 -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다."
 - "네트워크를 주로 하는 공무원 필요하다"
 - "행정단위에서도 조직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 전문성 담보 인력 배치 / 장기간 근무

2) 성과 측정

- "공공분야 예산을 받았으니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은 맞다."
- "아무리 가치가 좋아도 성과를 측정해서 보여줘야 한다."

- "사회적가치 측정도구 도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 "획일화된 기준이 이미 너무 강하다."
- "다양한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다."
- 3) 희망의 선순환 구조
 -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영역에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선배 (사회적경제 1세대)의 경험을 전하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 매력적인 조직문화 만들기: "결국 휴먼서비스이니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 외부인에 의한 조직문화진단 및 컨설팅
 - "실무자들 스스로 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기금 조성 : "선배들이 월10만원씩 모아보자"

3부 참여 소감

- 1) 노경민 대표 (메세지팩토리 협동조합)
 - "청년일자리인턴제 같이 6개월 기간 동안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있으면 좋겠다"
 - 자포스CEO 토니세이 : 라스베가스 마을 만들기 (4천억원 기금) "탐방해보고 싶다"
 - 2030년을 생각하는 2030대를 위한 기금 조성 : 월 3만원
- 2) 주창성 사무국장 (월성사랑회 심심한팜)
 - "주3시간 근무하려면 내공부터 길러야겠다"
 - "지역에 공부모임을 만들어보자"
- 3) 김지영 대표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 "덕분에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뒷이 되지 않도록 잘 설계해야겠다"
- 4) 강현구 단장 (동구행복네트워크)
 - "젊은 사회적기업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젊은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펀드 조성 : "먹고살 걱정 없이 몰입할 수 있는 펀드 조성"
- 5) 유창우 관장 (동구지역자활센터)
 - "우리 세대에는 이제 새로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우리 세대에 제안했으면 좋겠다"
 - "그 아이템을 우리 세대가 지원하면 좋겠다"
 - "우리 안에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뿔어지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
 - "편한 자리여서 좋았다"
- 6) 박성익 대표 (아울러)
 - "인턴직원 이상의 경우 본인의 삶 이야기를 공유하는 과정을 기본으로 가진다"
 -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 "대표가 하는 모든 말은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
 - "근무시간 내 교육시간을 잡았다"
 - "기업의 뿌리가 되었던 많은 교육 자료를 시간 나는 대로 공유하고 있다"
 - "기업이지만 선후배가 존재하는 영역이라 기쁘다"
 - "공익을 추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 "이 일을 하시게 된 과정을 진지하게 들어보고 싶다"
- 7) 박진영 팀장 (커뮤니티와경제)
 - "사회적경제 영역은 사람이 중요하다"

- "오늘처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싶다"
- 8) 이지원 연구원 (커뮤니티와경제)
 - "너의 삶은 행복한가?" "위로와 위안을 받을 기회가 잘 없다"
 - "일상의 모든 소비행위가 사회적경제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 "낯설지 않게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 "오늘 위로 받고 격려 받는 자리여서 기뻐다"
- 9) 김원한 연구원 (커뮤니티와경제)
 - "큰 그림이 있어야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오늘 오신 분들이 큰 그림 하나를 그려주신 덕분에, 일 년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마인드맵 기록
 사회적경제 상상컨퍼런스 기록 140319 from Kim Won-han
<http://www.slideshare.net/iwonhani/140319-32926201>



3/20 지역에서 교복을 만들면?

김준열

- * 장소: 성수동 어느 호프
- * 참석자: 신만수(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인성환(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김준열(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단), 이성우(교북지역생산공동구매추진단), 장동성(논골신탁), 최영덕(서울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

교복을 지역에서 만들어서 공동구매로 공급할 수 있다면? 4대 메이저가 부리는 횡포에 맞서 가계 소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자와 학부모, 학생, 학교가 교복을 함께 창조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어떨까요? 원가를 낮추고 지역의 영세봉제업자들의 근무환경을 높이고 유통 구조를 혁신해서 지역 안에서 직거래를 할 수 있다면? 요런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상남자들이 모여 이래저래 수다를 펼쳤습니다. 봉제업을 비롯한 제조업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지혜로운 덕담이 많이 오고갔습니다. 아래는 참여자들과 난상으로 대화한 것을 추린 것입니다. 단락마다 이야기한 분이 다르다는 것만 유념해주세요 ~

애들(학생들)이 사야하는데, 교복 시장은 독점형태로 되어 있다. 4대 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 상표만 빌려서 파는 형태일 듯싶다. 그 구조를 깨뜨려야 하는데, 쉽지 않은 선택 같다. 지역에서 교복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자. 매월 교복을 사는 게 아니다. 한철 장사다. 교복이라는 아이템이 그렇다. 시장이 그렇다. 교복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가기 어려운 구조다.

계속 소비가 되는,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교복도 봉제이지 않나.

사회적 의미는 알겠지만 시장 자체의 구조를 보니깐 어려울 것 같다. 또 하나는, 일반 시장에서의 기술자를 확보하는 게 공장의 생산성과 연결된다. 에이급 숙련공이 하는 양이 비급 봉제노동자가 하는 일의 500%를 해낸다. 에이급 숙련공을 확보하는 과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유통이다.

독자적인 유통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가? 소비량이 적다. 교복 시장 자체가 적다. 강북구의 경우는 6천벌이라고 하는데 하복/동복 포함해서 50만원이라고 치면 연 시장 규모가 30억원 정도가 된다. 그래도 적은 시장 규모이지 않을까. 논골 신희은 의류봉제협동조합을 해 본 경험이 있다. 시장이 파이가 커서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면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생존하기 어려울 듯싶다. 그만큼 교복을 지역생산해서 공동구매하는 방식의 공급이 사회적인 유의미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교복이 만들어진다면, 다른 아이 템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 같다. 지역 봉제업자들의 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꾸준한 일감이 없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일 아닌가. 거기다 유니폼, 제복, 실버 의류나 병원 쪽 봉제 수요로 연결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 않나. 현실적인 과제를 잘 극복한다는 전제를 지닌다면.

여전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크다. 교복을 만드는 봉제업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 시장이 매출 규모를 확장할 수 있겠는가? 자연히 유통 구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유통 구조를 만들지, 유통망에 들어가던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말았다 한다. 사장들은 한 달 일하고 논다. 고정적인 오더량이 있어야 지속적인 고용과 인건비 지출이 가능하지 않는가. 교복뿐만 아니라 상품의 다양화를 단계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강북에는 교복지역생산공동구매추진단이 있다. 교복을 만드는데 핵심공정을 만들어서 교육적 기능도 넣고 고정적인 주문량을 확보하고, 구매력이 있는 추진단을 만들려고 추진위원을 확대하는 전략을 고민 중이다. 핵심 공정 시설을 만들고 생산자분들을 조직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 모 아진 의견은 추진단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이다. 교복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추진위원 확대를 하고 유통과 판매를 통해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어떤 사회 공헌을 할 수 있을지도 상상해봐야 하는 과제가 있긴 하다. 교복지역생산공동구매 모델이 지니는 대사회적 의미를 지역사회에 잘 소개하고 조직하는 일이 만만하지는 않지만 울림이 있는 의제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추진단을 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다. 운동이나? 사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간다면 생산자와 구매자와의 유대감이 관건일 것이다. 생협,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나게 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추진단이 지역에서 유미한 성과를 창출하려면 지속가능한 사업체를 만들어야 한다. 생산,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이 과제다.

수제화 영역을 보면 다양한 협동조합이 연결되어 있다. 생산자 협동조합, 피혁협동조합, 유통협동조합, 부자재협동조합 등. 뜻이 맞는 사람들이 단위별 협동조합을 만드는 상황이다. 어쩌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력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으는 게 힘들 것 같다. 공동구매를 하려는 사람들. 결국 그들에게 교복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판매되는 시스템을 알리고 불합리한 구조에 관해 설명하고 교복을 지역에서 만드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 퀄리티, 가격은 물론 보장되어야 하는 전제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가 차별점인가? 디자인, 퀄리티, 가격이 좋아야 한다. 학부모, 학생 마음에 들어야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생산자 협동조합과 연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산은 외부로, 추진단은 유통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제품 가지고 대기업을 이겨야 하는데, 대기업은 진짜 잘 만들어서 들어온다. 이런 지점에서 허탈해지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대기업이

어떻게 생산, 유통, 판매하는지 잘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다. 나중에는 규모를 통해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미지나 생산 이력이 있어야 한다.

생산력? 협업 생산력? 규모는 차츰 늘려갈 생각이었다. 현재까지는 고정적인 주문량을 가져오기 힘들다. 오히려 부분 공정으로 시작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암울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미 많은 봉제협동조합이 생겼다 망했다. 20년 동안이다. 하지만 체념할 일은 아니다. 사회적경제가 의미 있는 것은 그래도 사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꿈꾸기 때문 아닌가.

교복 공동구매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http://www.slideshare.net/ssusera192da/ss-32298784>)

교복 생산의 핵심은 자켓, 숙련공들이 하루에 15벌 제작한다. 동복 기준으로(20만원) 하루의 생산가 300만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제도가 어렵다. 해야 할 게 많다. 차라리 에이급 숙련공을 만드는 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 에이급 숙련공은 10년 이상을 종사한 분들이다. 봉제업에서 생산력은 결국 숙련공의 유무다. 생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생산은 늦어질 수 있다. 교복 추진단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먼저 살려야 한다.

금전은 디자인, 샘플실만 운영한다. 사무실은 마포에 있다. 디자이너는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샘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미싱사)은 흔하지 않다. 수제화의 경우를 보면, 디자이너와 제작자가 있다. 원래 디자이너는 따로 두어야 한다. 디자이너는 시장의 흐름과 산업 동향과 칼라, 재질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샘플사가 만들어주고, 봉제, 제조는 비슷하다. 구두는 내구성도 추가해서 봐야하는 것이라 더 복잡하다.

제조업은 생산, 기술, 유통 등 사업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비즈니스까지 관찰해야 한다. 제조하는 협동조합이 제일 어렵다. 유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복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협동조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협동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마이너다. 대부분 협동조합(생산자)는 이미 은퇴한 사람(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들일 경우가 많다. 더 성공하기 어렵다. 기존 시장에서는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협동조합을 해야 한다.

전국을 보고 생각해야 한다. 추진단이 할 수 있는 일은? 판매 협동조합으로 가는 게 어떨지? 결국 판로다. 10원을 벌었다고 치자. 제조업에서 일반적으로 생산, 유통, 판매의 비율이 3, 4, 3 정도다. 좋은 것은 생산이 4 정도가 되어야 한다. 추진단은 생산 : 유통/판매 = 5:5 비율로 가져간다면 좋을 것 같다. 생산자가 4만 가져가도 좋다.

교복, 봉제, 제조업을 잘 되게 하려면 생각할 게 너무 너무 많다. 유통/ 판매는 어떤 방식? 온라인? 매장?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찮지 않겠지만, 학교 현실은 오더 따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기독교, 가톨릭학교 등 종교학교를 뚫어보자.

한 지역에서만 꿈지락거리지 말자. 다른 지역과의 협력 모델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 지역생산 협업화 모델이다. 예를 들면 한 자치구는 봉제학교를 하고 다른 자치구는 생산 라인과 연결하는 것이다. 추진단은 강북에서 구매력이 있는 추진위원을 잘 확대하고 핵심 공정을 만들어서 다른 영세업자들과 네트워크 분업을 잘 꾸리면 좋겠다.



3/21 강동구 지역기금 조성방안 토론

이주현

- * 장소: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
- * 참석자: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주현, 희동, 두선
 - 마을 순환 경제살이를 고민하고 있는 진영, 지선
 - 사람을 위한 금융의 가능성을 찾고 싶은 금융업종사자 현민, 호걸

* 토론결과

■ 지역기금 운용 주체

- 사단법인(or 사회적협동조합) '강동' 2014년내 설립 추진
- 지역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신협 등 포괄하는 강동 협동경제공동체 네트워크(가칭) 추진
- 이를 법인화하여,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주체로
- 새롭게 설립되는 통합법인이 마을기금 적립 및 운용, 통합기금 운영에 관한 민간 책임주체의 역할도 검임

■ 사회혁신채권

-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 충족되지 않는 대상층에 대한 민간 주도의 복지사업
- 민간 영역에서 단체 회비 및 기부금 조성, 기업 영역에서 지정 기부금 조달, 행정 영역에서 이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통합 운영
- (사업에서)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사업
- (돌봄사업의 경우) 희망나눔센터, 해뜨는집 사업단, 통합예술상담협동조합, 장례문화협동조합 등이 사업에 참여



3/21 협동조합 간 홍보 및 정보공유 어떻게 할까요?

주수원

현재 협동조합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위키피디아 식으로 만드는 것부터 해서 협동조합 페이지 링크 모으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모색하거나 진행 중 입니다.
(https://www.facebook.com/events/597358257015627/?ref_notif_type=event_mall_reply&source=1)

시작은 가벼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 해결하고 싶은 이슈에 대하여 직접 제안하고 개최하는 <오픈테이블 : 일상폴플2014>에 꽃혀서 협동조합에서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였습니다. 통상 우리가 접하는 토론회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발제를 하고, 청중들은 쪽 듣다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 끝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는 일방적이고, 청중들은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협동조합적인 방식으로 모두가 주인이 되어 각자의 이야기 꾸러미를 가져와서 얘기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니 재미나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그렇게 테이블에 모여 오순도순 얘기해볼 주제가 무엇일까를 떠올려 봤습니다. 4,000여개 넘는 협동조합이 생겨났고 이들의 고민과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 수만큼 다양합니다. 과반수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에 성공적인 사업모델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클 것입니다. 또한 1인 1표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독특한 사업체인 협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냥 어려움만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산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고민하던 참에 협동조합 7원칙이 떠올랐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정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은 협동조합의 올바른 설립과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니만큼 이 7원칙을 떠올려봤습니다. 6번째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눈에 띄네요. 우리는 이 원칙대로 협동조합 간 협동을 하고 있을까? 지역 내 다른 협동조합,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도 알기 힘들고, 서로 간에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앞서서 겪은 시행착오가 전수되지 않자니 뒤에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도 똑같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제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고민도 덧붙여졌습니다. 협동조합 전문 팟캐스트 공존공생 시즌2부터 참여하게 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널리 안정적으로 알리고 싶은데, 늘 항상 부족한 자원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공존공생을 제작하는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은 공존공생 이외에도 월간협동, 공공티브이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지역별, 업종별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협동조합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려 준비 중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이런 협동조합 이야기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는 비단 공존공생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세모펀치, 두레뉴스를 비롯한 협동조합 홍보매체들의 공동된 고민인 셈이죠. 또한 홍보매체만이 아니라 소평물이나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만들려는 것처럼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곳들이라면 협동조합의 정확한 수요의 파악과 이에 부응해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마련에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고민 맞는 사람 5명이상 모여 함께 협동조합적인 방식으로 얘기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자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렇게 페이스북에 이벤트를 벌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 상이 정해지자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공존공생 식구들이 모두 신이 나서 결합되었습니다. 새사연의 이수연 연구원님은 휴가 중인데도 행사기획과 무대세팅, 진행까지 맡아주었고, 생강PD님은 행아웃 화상채팅까지 준비해 더욱 외부로 오픈된 판을 만들었습니다. 점점 참석 예정인원이 늘어 처음에 까페로 하려던 것에서 성미산마을극장으로 장소를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연극 무대로 쓰는 곳에 자그마한 소파를 동그렇게 늘어놓으니 몇 십 명이 와도 문제없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각이 다가오자 조금은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의사를 표시했지만, 불타는 금요일에 과연 몇 명 정도 올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우였습니다. 협동조합 운영하시는 분을 비롯해 중간지원 기관에 있는 분들까지, 저 멀리 충남, 진주에서까지 전국 곳곳에서 협동조합 고수들이 30여분 모였습니다. 먼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보하고 싶은 내용과 정보공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은 스티커를 적어 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작은 스티커를 적어, “이름이 뭐예요” 노래에 맞춰 흥겹게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적은 분에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10여분 간의 스티커 붙이기를 통한 교류의 시간이 끝나고, 가장 많은 스티커가 붙은 이플약초협동조합의 노봉래 이사장님,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 류시윤 사무총장님을 중심으로 조를 나눴습니다.

각 조별로 동그랗게 앉아 협동조합 간 홍보 및 정보공유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보따리가 풀어졌습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와 고민의 지점은 다양했으며 그만큼 여러 층위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홍보 관련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황세원 팀장님이 센터에서 만들었거나 추진 중인 매체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회적경제지도 (www.mapplerk.com/semap)가 운영 중이며, 4월 1일 오픈을 목표로 협동조합 포털 사이트가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 이 글이 실리는 서울 사회적경제 뉴스레터 세모편지가 14호 발송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팟캐스트 공존공생과 같은 협동조합 방송, 두레뉴스와 같은 협동조합 언론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협동조합 앱이 개발되어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소식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중요한건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의 기능적 구현과 함께 실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정보들을 유통시키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협동조합이 사업체이자 결사체이기에 이 역시 이러한 양면적인 속성에 따라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체로서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모델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사체적인 측면에서는 운영 노하우, 유형별, 업종별 규약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특화된 교육이 공유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가 개별화되지 않고 정보공유 앱이나 아카이브 그리고 선후배간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되길 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협동조합 내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판로개척 및 상호거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진행 중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사파이어몰이 (<http://www.482a.co.kr>) 함께누리로 이름을 바꾸고 4월 중순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쇼핑몰 사이트와 별도로 사회적경제 안에서의 상호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등이 모여서 또 하나의 소비자협동조합을 구축하는 방법, 선 지출 후 납품 방식의 거래 모색, 개별 협동조합이 고용하기 힘든 홍보, 사무관리 등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한 상호거래 활성화 방안 등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처음 만나신 분들도 많았지만, 협동조합을 함께 고민하는 열정적인 마음은 모두 같았기에 7시 30분에 시작된 행사는 2시간을 훌쩍 넘어서도 열기가 지속되었습니다. 돌아가며 정리 발언을 하면서도 다음 모임에 대한 기대가 뜨거웠습니다. 협동조합 온리의 김명진 이사장님의 다음 발언이 이런 함께한 기쁨과 이후에 대한 기대를 잘 보여주는 듯해 소개합니다.

“다시 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하면, 여기 모이신 이사장님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협동조합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여러 경험을 하신 분들이니까요. 한편으론 앞서 협동조합들이 경험한 시행착오가 전수되지 못하고, 뒤따라 만드신 분들이 그대로 겪게 되는 부분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홍보와 정보공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조금씩이나마 실행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오신 분들이 다시금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추진력 강한 분도 있고, 경험이 풍부한 분도 있으니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순간 이사장들이 모인 협동조합으로 슈퍼 히어로들이 결집한 어벤져스가 생각났습니다. 혼자선 어려운 일도 함께 힘을 모은다면 가능하겠죠. 10시가 되어서야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정리를 했습니다.

재미난 행사로 일상 탈출을 해볼까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이를 차근차근 실행해봐야 한다는 다소 무거운 짐을 받았습시다. 하지만 이 짐은 나만의 짐도, 모임을 함께 주도한 공존공생팀만의 짐도 아닌, 같은 고민을 하는 모든 협동조합들의 숙제이기에 마냥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흔히 잘되는 협동조합은 끊임없는 수다가 이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럿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각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알아야 하니, 수다는 사실 숨겨진 협동조합의 8번째 원칙일 것입니다. 이번 오픈테이블은 이러한 협동조합적인 수다의 힘이 발현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주 모이며 수다를 통해 홍보와 정보공유라는 협동조합들의 공동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또한 그 수다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공존공생, 세모편지, 두레뉴스와 같은 매체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길 희망해봅니다.



03 2)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 순환이 동력이다 소비가 아닌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

3/20 도시에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이유진

도시에서 에너지자립마을 어떻게 만들까?

* 제안자: 이유진 (녹색당공동정책위원장)

* 참석자: 성대골에너지 자립마을 사람들, 신촌재생포럼을 포함해 15명

이유진) 우리 정부는 향후 15기 이상의 원전을 지을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형이고요. 2017년 고리원전 1호기가 수명을 다하지요. 이것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원전 문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고리1호기 폐쇄를 말씀하시고 야당후보는 탈핵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에 출마하시는 분도 탈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척도 원전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밀양은 산꼭대기에서 짓던 송전탑이 평지로 내려오면서 주민들이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밀양송전탑 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에너지문제가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원전하나줄이기' 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성대골 같이 공동체나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 자립을 해보자는 시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구요. 신촌에서도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하자센터도 오랫동안 활동했잖아요?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밀양을 위한 공약' 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동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공약을 세우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곧 밀양이 과도하게 지고 있는 짐을 덜어주는 길이니 지자체들이 각자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서울, 과천,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에너지 자립마을, 자립도시 하면서 만났던 마을이 있습니다. 영국 남서부의 작은 마을 토트네스입니다. 이분들은 피크오일, 그러니까 석유 생산량이 정점을 지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해서 2030년까지 에너지 독립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에너지가 안 쓰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식량도 그렇고 집은 더 당연하고요. 그래서 식량,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곳에 에너지 자립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자고 말했습니다. 상상의 나라를 뺀어 나갑니다. 토트네스에서 시작된 전환마을 운동이 전 세계 1천여 개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전환 대학, 전환 마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후변화, 석유정점, 그리고 세계경제가 더 이상 성장경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우르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석유가 우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석유를 떠나면 돼' 라는 정신으로 석유 없이 사는 삶을 준비할 것인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준비해왔거든' 하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석유가격이 오르면 다이소가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아요. 1천원, 2천원 가격은 운송비가 맞춰지니까 가능한 거지만 운송비가 2배 이상 되면 다이소가 없어지겠죠. 값싼 물건 시대가 종말을 맞을 거예요. 그리고 운송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요. 쿠바의 예를 들면, 소련이 무너지면서 쿠바에 석유 공급이 끊겼지요. 물류가 안 움직이니까 도시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농촌엔 여전히 먹을거리가 쌓여 있지만 옮겨올 수가 없으니까요. 석유가격이 오르면 물류가 멈춥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타격이 크죠. 식량자급률, 에너지 자급률이 낮

은 나라는 타격이 매우 큼니다.

식량, 에너지, 경제,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세 가지는 지역 안에서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시 지역이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토트네스의 2030년 까지 석유독립 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이 사람들 정말 질린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왜냐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개인이 해야 할 일, 지자체가 해야 할 일,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깨알같이 시간표로 적어놨어요. 계획만 짜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0가구가 에너지 자립을 시작해 20가구, 30가구 늘어나서 독립. 풍력발전기를 몇 년에 세우고 태양광 발전기를 언제 세우고, 주차장 몇 개를 없애서 텃밭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성대골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핵심은 어떻게 석유에서 독립할 것인가 예요.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에너지 총량을 줄이는 것' 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 하는 것' 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쓰는데 이것을 꾸준히 줄여서 2030년에는 2009년에 쓰던 에너지의 절반 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절반의 에너지는 어디서 생산해 내느냐.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요. 토트네스에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동네에 엄청난 프로젝트 들이 진행됩니다.

트랜지션 홈(transition home) 각각의 집이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집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트랜지션 팜(transition farm),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석유를 쓰지 않을 수 있을까. 지역 화폐, 어떻게 하면 지역 안에서 돌아갈 수 있을까. 로컬 푸드와 로컬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등 정말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태양광 풍력 협동조합을 중심으로요.

제가 감명 받았던 방식을 하나 소개할게요. 마을은 작은 가정, 주택이 이루고 있죠. '전환 거리 프로젝트' 였어요. 한 사람만 에너지 절약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금방 지쳐요. 그런데 열 가구를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해요. '왜 우리가 전환을 해야 하지?' 에 대해서요. 필요성을 느끼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움직여요. 교육을 하고 생활 속에서는 실천을 같이 합니다. 성대골에서 절전소를 만든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단열 사업을 합니다. 냉난방 에너지 때문입니다. 집이 허술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렵습니다. 그런 다음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에너지 절약기구 그룹 모집해서 에너지 소비량 3분의 1을 절감하고 그 다음으로 습관을 바꾸면서 단열 사업을 하고, 보조금과 용자금을 지급하면서 태양광발전기 설치하도록 하는 것. 이 일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10가구가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면 전환거리 하나가 생깁니다. 거리가 모여서 마을이 바뀝니다. 지금 현재 토트네스에서 60개 가까운 전환거리 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2030년에는 전 가구가 전환거리에 참여해서 '우리는 석유 없이 살 수 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도시에 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런 모델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트네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짧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성대골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공부할 때 토트네스 이야기를 했었죠. 그 때 성대골 분들은 '회복력' 이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자 하고 반응하셨고 그렇게 해온 역사가 4년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 김소영 단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신촌에서 준비 중인 에너지실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이후 동작구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를 해오고 있어요. 마을에서 '탈핵과 에너지전환' 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지, 한국의 핵발전소는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 어떻게 하면 핵발전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다섯 번째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절전소 운동을 하기로 하고, 30여 가구가 전년대비

전력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시작했어요. 한 가구가 절전한 것이 아니라 30가구 이상의 공동체가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를 줄이기 시작했고, 도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방안을 찾고 실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2012년에는 마을공동의 공간인 마을학교를 단열사업과 고효율화목난로를 통해 전기와 가스 없이 난방 하는데 성공했어요. 2013년에는 태양광을 올린 이동하는 에너지 카페를 만들어 에너지 절약 교육과 캠페인에 활용하였고, 마을 800개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진단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마을과 에너지를 축제로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축제를 열기도 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에서는 주택에너지효율화와 마을살림을 돌볼 주체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마을에너지기업으로 '마을닷살림'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주민 35명이 조합원이 되고, 2014년 1월 24일에는 '성대골 에너지슈퍼마켓'을 개관했습니다. 에너지슈퍼마켓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과 에너지 효율화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대골의 장기적인 목표는 에너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 동네예요. 동네에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에너지자립마을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영 신촌에는 젊은이들이 많죠. 하지만 이들이 주인으로 불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신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풀뿌리 회의체' 신촌민회의 사무국장 이태영입니다. 이곳의 청년들과 함께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밀양과 신촌이 만나는 주제, 에너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최근 신촌의 상권을 살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단순히 상권이 살아나는 것만 아니라 삶과 문화가 풍성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촌민회가 제안해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신촌의 문화를 재생해보자며 '신촌재생포럼'(가칭)을 발족했습니다. 신촌재생포럼을 통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요. 며칠 전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답사를 갔었는데, 성대골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바로 신촌에서 해봐도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안정배 2013년 만들어진 <신촌재생포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뭔가 일을 도모하고 있어요. 신촌 에너지협동조합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촌 건물 및 거리에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보급해 비용도 줄이고, 쾌적하고 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상가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행, 연세대학교 및 신촌 지역의 에너지협동조합 조직, 재생 에너지를 매개로 하는 주민모임 및 청년 예술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대골 주민팀과 신촌재생포럼팀이 만났고,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오신 직장인, 카톨릭뉴스 기자님 등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1. 서울에서 에너지란?
2. 아깝다! 동네에서 낭비되는 에너지
3. 동네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수 있을까?
4. 성대골 에너지 슈퍼마켓에서는 무엇을 팔면 좋을까?
5. 신촌에서 할 수 있는 일
6. 마을에서 에너지와 축제가 만나는 법

- 1. 서울에서 에너지란?**
- 풍족한 것,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공기 같은 것,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밀양을 통해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멀리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약탈'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 전기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줬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전기도 원산지 표시를 하자.

- 2. 아깝다! 동네에서 낭비되는 에너지**
- 버스타면 TV영상 틀어주는 것 너무 과하다. 눈도 아프고.
 - 한낮에 불 켜진 가로등, 아파트 지붕 조명, 간판 광고판이 너무 크고 화려하다
 - 정부에서 에너지절약하자고 온도 규제하는데, 정작 겨울에는 개인전열기를 사용한다. 이걸 바보 같은 짓이다. 그리고 USB에 꽂아 쓰는 소형가전제품, 이것도 전기를 소비하는 것인데 요즘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다.
 - 자연채광이 사라졌다
 - 도시에서 에너지 잡는 사람들 "에너지바스터즈"를 만들어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잡으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나들면 좋겠다.
 - 사람들이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기를 킬로와트시로 표기하지 말고, 돈으로 표기하는 것은 어떨까?

- 3. 동네에서 에너지 어떻게 생산할 수 있을까?**
- 안경에 태양광을 붙인 상품을 봤다.
 - 교회 십자가 불끄기 운동을 하자
 - 휘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자.
 - 워니워니 해도 생산보다는 불편함에 익숙해지자
 - 대학 식당의 폐식용유를 모아 학교 스쿠터와 버스를 가동해보자.
 -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자
 - 신도림역에 사람들이 많은데 밧으면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나 놀이터 발전소를 만들자.

- 4. 성대골 에너지 슈퍼마켓에서는 무엇을 팔면 좋을까?**
- 태양광패널 청소기
 - 전력사용량 표시기
 - 모시웃, 내복, 패션 뽁뽁이
 - 무동력 아이템
 - 겨울에 난방에너지를 줄이려면 뜨거운 물주머니 온단보
 - 에코컵 에코백
 - LED 전구, 햇빛전구 음식물 건조기 각종 세트, 각종 에너지 교육 키트를 팔자

- 5. 신촌에서 할 수 있는 일**
- 상인들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실천해보자
 - 친환경음식점을 만들자
 - 옥상태양광발전소
 - 대학축제 활용 그린페스티벌
 - 대학이 전기를 많이 쓴다. 학생들이 반발한다. 전기를 아낀 만큼 등록금 반환해주자 (빈 강의실의 전기료는 여러분의 등록금입니다)
 - 원룸난방 효율개선(공유)
 - 물을 흡수하는 보도블럭
 - 텃밭을 만들자
 - 한강다리에 패널을 설치하자
 - 신촌상가 간판을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보면 어떨까?

6. 마을에서 에너지와 축제가 만나는 법

-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이야기하려면 문화가 필요하다.
- 무동력 축제
- 암흑축제. 전기불이랑 모든 소리를 고요하게 만든다면, 평소에 얼마나 시끄럽고 환한지 체험할 수 있다.
- 에코 패션쇼 <디자인학과>
- 풋볼 켜는 도시
- 누드축제를 하자.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하자

이렇게 아이디어와 웃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대골과 신촌에서 오늘 나온 아이디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두 공동체가 이웃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에너지 자립을 실험하게 위해 성대골과 신촌청년들이 서로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아마 2년 뒤면 오늘 나온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소설 같은 이야기가 곧 현실이 됩니다.

04 2)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 순환이 동력이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순환

3/18 농촌에서 재미+의미있게 살기위한 깨알 아이디어 찾기

이수형

순창 지역주민과 초보귀농인들을 함께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끼리 모여 농촌회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취지였다. 모듬꿈에서 배운 오픈스페이스 테크놀러지(OST)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제시된 논의주제는 다음과 같다.

1. 10년후 농촌 : FTA, TTP, GMO 등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에 대한 10년 후 모습을 그려보며, 지역단위의 대응책을 마련해봅니다.
2. 물물교환 : 돈으로만 거래되고, 전문가에게만 의지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현물을 교환하는 시스템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3. 재능나눔 : 아무리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본인의 재능나눔을 통해 큰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요?
4. 귀농10계명 : 초보 귀농자들이 농촌에 정착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 10가지를 추려봅니다.
5. 청년 100가정 :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야 희망이 보입니다. 3040세대 100가정을 순창에 들어오게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6. 상상력10 : 10이라는 숫자를 통해 연상되는 온갖 재미있는 일을 찾아주세요. 순창에서 가능한 일 우선입니다.
7. 귀농SOS : 초보귀농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선배귀농인을 호출합니다. 막 정착했을 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8. 마을살리기 : 지역민과 귀농인 화합하여 마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거기에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행사시간을 길게 잡고, 오후 1부 의견나눔, 저녁 2부 파티로 안내를 했더니 지역분들이 자체모임을 마치고 1부 시간에 맞춰서 오신 반면에, 젊은 귀농자그룹은 이리저러한 일정 때문에 저녁 2부 시간에 오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어울리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역분들 중심의 의견 나눔을 진행했는데, OST방식의 의견 나눔에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너무 진지했던 접근이었던 것 같았다. 젊은 사람들이 쉬어서 분위기를 잡아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이다.

충분한 의견 나눔은 되지 않았지만, 시도자체가 의미 있었다고 위안 삼으며 자리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막걸리와 돼지바베큐 파티로 아쉬움을 달랬다.

이후계획: '사단법인 10년 후 순창'의 창립기념 의미를 살려서 매달 10일 저녁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위 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 볼 계획이다.



3/20 청년공판장@동강 '도시청년, 왜 떠나지 못하는가?'

Young Ju Kim

- *참석자: 김동완, 정성석, 정규현, 박경아, 전권일, 날씨, 나무, 제이, 달(제안자)
- *장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동강사랑(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제장길10)
- *진행순서: 참가자 소개
아이스브레이킹(3키워드, 6X6,픽셔너리, 아바타그리기)
오픈테이블 소개
청년공판장@동강 프로젝트
월드카페 진행 소개
월드카페 진행
회고 및 소감 나누기





*** 기록:**

- 오픈테이블 회고, 소감나누기

박경아: 친구, 동반자를 찾을 수 있는 꽤 괜찮은 시간.

전권일: 반갑고 고마운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기대됩니다.

정정석: 또 만나요~

김동완: 귀농귀촌에 대한 다른 생각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규현: 심심해요

날씨: 어려운 고민을 불편하지 않게 이야기 하였다

나무: 삶의 터를 바꿀 사람들에 생각, 고민 등을 현실적으로 말해줘서 좋았음.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음.

제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편안한 분위기→좋은 대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깨닫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얻는다.



[테이블1] 정정석, 김동완, 날씨, 제이, 규현

김동완) 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정착할 때 정보가 부족하고 부담해야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위험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하고 다른 지역에서 정착해 볼 수 있는 경험과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정착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나 정보를 모은 백서가 필요하다.

날씨) 소위 귀농이나 귀촌에 대해 주위에서 겁을 주더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배낭여행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길을 잃을까봐, 여권을 잃어 버릴까봐 여행을 포기 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로 충분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할 수 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이 가는 곳을 만난다면 좀 더 오래 지내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때부터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해도 충분하다.

제이) 다른 지역으로 정착하기 전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할 수 있을 까하는 두려움과 도시보다는 낙후된 곳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불편함, 그리고 심심함 때문에 도시를 떠나기 힘들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즐거운 일을 기획, 실행 하고 싶다. 또한, 정착에 필요한 배움의 기회가 필요하다.



[테이블2] 전권일 호스트, 박경아, 나무

전권일) 365일 축제가 필요하다. 스스로 즐거울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나는 사람들끼리 재밌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 경쟁과 성공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돈 말고 채울 수 있는 있는 것에 대한 고민 필요. 변화를 예감하지 못해서 생긴 적응실패, 스스로의 생활양식의 변화 필요. 내부적 변화의 결단. 자신은 자유와 행복을 찾아 내려왔다. 귀농한 사람들의 농산물 판매로와 문화공간의 필요.

박경아) 귀농 혹은 귀촌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든다. 내가 시골을 애당초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이라는 말은 어불성설. 차라리 이주나 이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유롭게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공공서비스의 부재에 대한 생각을 염두 해두고 귀농&귀촌을 계획해야함. 지금 살고 있는 곳 (정선)에는 산부인과조차 없어 태백, 강릉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료, 교육 등)를 이용하려면 도시지역보다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도시보다 시골은 공공서비스의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 중에 비조직적인 사람이 많은데 내려오면 조직적인 무언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총각이 내려오면 결혼 못한다. 지역에서 배우자를 찾아 결혼 하는 게 낫다.(웃음) 지역에서는 다양한 일거리가 없다.



나무) 도시청년의 입장, 대상지역에서의 입장으로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할 듯. 꼭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질문인 것 같다. 막연한 불안감, 기존 관계의 단절.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떻게 무엇을 하고 싶다." 라는 개념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 귀농에 대한 환상보다는 현실적 고민과 실천이 필요. 시골(지역)에서 귀농자들의 네트워크 필요.



3/21 청년+농촌

Minjoo Ginger Kim

- * 장소: 장곡집에서
- * 모인이들: 형일,민주,소희,해길,태균,원영,훈준,해강,남지 총9인
- * 이야기꾼: 협동조합 청춘, 박형일 / 정리: 민주

홍성군 장곡면에서 농사도 짓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협동조합 청춘>의 식구들과 <젊은협업농장>의 막내 해강, 그리고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인 <마을활력소>에서 일하는 남지가 모여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지역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농촌과 도시는 우리 사회에서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리 될 수는 없는 유기체적 관계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도-농 교류' 라는 이름으로 농촌과 도시의 유기적 연결이 시도 되어왔으며, 그 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 된다. 하나는 농촌의 농산물이 적극적으로 소비되는 방식 (관계성에 바탕을 둔 직거래), 또 다른 하나는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에서 다양한 체험(대개의 경우 수확체험이나 문화적 체험)을 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 왔다.

지금까지의 도농교류를 질적으로 다른 방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농-도 순환(또는 도농순환)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고 연결된 하나의 문제로 바라보는 유기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도-농의 문제는 '농촌과 도시의 지속불가능' 이며 도시와 농촌의 지속불가능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도시에 사람이 집중되고, 농촌은 계속적으로 사람이 떠나면서 해체되고 소멸되어가고 있다.

농도 순환의 핵심에는 농산물이 얼마나 거래되었는가, 도시민들이 얼마나 농촌에 방문했는가를 넘어서 삶과 삶이 구체적으로 연결되고 사람과 일이 순환되고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농도 순환의 우선적 과제는 또는 해결의 실마리는 '농촌과 도시의 지속불가능성과 청년들의 진로 또는 일' 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방식과 구조로는 농촌과 도시 모두 지속불가능하다. 도시에는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늘어나고, 농촌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해체되어가고 소멸되어가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은 단순히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촌 체험을 양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해결의 핵심에는 청년이 있고, 청년의 일(또는 진로)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과 농촌과 도시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한다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와 일이 펼쳐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에서 농-도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지역이라는 방식과 가능성을 소개받고 이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이런 관점과 관심에서 일을 만들어나가고 자신들의 진로를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농-도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의 해결이 또 다른 방향과 방식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이 지역에서 또는 농촌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순환하도록 하는 새로운 일을 펼쳐내는데 여러 어려움과 장벽이 따르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은 청년 개인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도 지역과 연결된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간지원조직이나 그룹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직이나 그룹을 통해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사회적 자원과 기반, 또는 풀이 길러진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구조로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청년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전망하는 것을 넘어서, 도-농 유기적으로 바라보고 농촌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전망을 펼쳐내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시도를 개인의 역량과 운에만 맡기지 않고, 이를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나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 방식은 청년 개인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나 그룹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그래야 사회적 자신과 기반, 풀이 길러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조직과 그룹, 단체를 통해 청년들이 지원 받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도시의 청년들은 농촌이나 지역을 전혀 경험해 볼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선도지역이나 그룹을 통해 지역에서의 일을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역시 필요하다.

06-2

테이블별 논의내용 모음

3. 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 사람이 먼저다

01 마을 교육 생태계 구축

- [3/18] 색채 디자인 학교가 열립니다
- [3/19] 달팽이 수학 정원
- [3/19] 아이랑 책이랑 잘 놀기
- [3/19] 부산 교육에 할 말 많은 이들
- [3/19] 가재울마을학교 - 가재울낭독회
- [3/21] 초등학교 저학년 3명만 모이면 방과후 집으로!

02 마을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 [3/18]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를 꿈꾸다!
- [3/19] 예술인 창작지원금의 쓴 맛 단 맛
- [3/20] 마포, 그곳에 예술가가 살게 하라!
- [3/20] 마을에서 삼삼오오 독립영화 보기
- [3/21] 모색영화제



01 3) 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 사람이 먼저다 마을 교육 생태계 구축

3/18 색채 디자인 학교가 열립니다.

Young Lee

'손빛그림' 을 그리다, 색채디자인학교

지난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전남 장흥 웅산면에 위치한 '정남진생약초체험학습장' 에서 색채디자인학교가 열렸습니다. 송호삼 대목과 함께한 '색채디자인학교' 는 휴집에 천연염료로 색을 입히는 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송대목은 '천연페인팅' 이란 말 대신 '손빛그림' 이라고 표현합니다.

긴 여행의 끝, 정남진.

17일 학습장에 도착한 분은 2명. 금산 간디 학교에 재학 중인 이태연 양과 충주에서 공정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조정미 님. 정남진은 서울에서 정남쪽 끝에 있다고 해서 '장흥' 을 부르는 다른 말입니다. 충청도에서 전라도 땅 끝까지 달려와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그렇게 두 사람은 송대목과 만났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색의 흙.

18일, 고흥에서 건축일을 하시는 최병우 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날은 직접 점토페인팅과 석회 페인팅 기법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분 모두 재주가 뛰어나셔서 다들 놀랐답니다.

휴벽과 만나다.

19일,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우주복 같은 작업복을 갖춰 입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디자이너들의 손길을 기다리던 휴집과 만났지요.

흙벽에 색을 입히다.

20일, 하루 종일 비가 내려 작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 온 창석군과 지원군들이 나타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람을 피해 하우스 안 정자에서 막걸리도 한잔씩 하면서 자신이 그리는 생태건축과 색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슬슬, 손에 익는 도구들

21일, 이제 슬슬 낯설었던 재료들과 도구들이 손에 익어가나 봅니다. 알아서 척척, 동료들과 마음을 맞춰가며 색을 채워갑니다.

장흥을 돌아보다.

22일, 오전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송대목이 작업했다는 천관산문학관에서 열린 시낭송회에 참석했습니다.

떠나는 길, 남겨진 마음

평소에 그림 그리는 것과 디자인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낀다는 태연 양은 새로운 재료와 방법들로 색칠놀이를 했다는 것에 뿌듯해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손으로 직접 생태건축을 해보고 싶다는 조정미님은 장흥을 더 많이 둘러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일주일동안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탁구도 치고, 회도 먹고, 바다도 보고... 자연 색에 푹 빠진 사람들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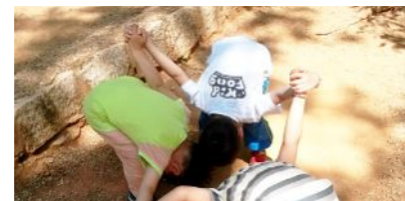
달팽이 수학정원

Mi Sook Song

‘달팽이 수학정원’ 첫 번째 모임은 ‘오픈 테이블 일상폴폴’과 함께 시작 했습니다. 시작 전, 어색함을 덜어내기 위해 ‘한상직’ 대표 진행으로 ‘종이 오각별 만들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오각별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접은 띠를 불빛에 비추어 보세요.”
“진짜 보이네요, 오각별이 ~”

‘오각별 찾기’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참여자 소개를 하였습니다. 평택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계신 ‘오우훈’님, 수원에서 ‘협동조합’을 하시는 임영우, 정대현님, (주)역사만들기 이기만 대표님, 창의공작소 한상직 대표, 송미숙, 박경숙 팀장 등이 함께 소개를 나누었습니다.



한상직 대표가 준비한 ‘달팽이 수학정원’에 대해 10분정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창의공작소는 자연에서 배우는 오감, ‘생태수학놀이’ 프로그램을 1년간 어린이집 학생들과 진행한 경험을 모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PT 소개 후 참가자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달팽이 수학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은 일부만 만들어져 있어요. 버려진 물통으로 ‘빗물저금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달팽이 수학정원’은 폐자재, 폐플라스틱 등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곳은 칠판페인트를 칠해, 학생들이 이야기들이 모락모락 피어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구요. 검정 공룡은 버려진 인형에 페인트를 입혀 재사용한 것 입니다. ‘빗물저금통’ 위를 지키는 마스크트로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가짜 ‘공감’ 공간으로 내려와 ‘달팽이 수학정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참여 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학은 추상화된 학문이지요, 수학과 생태를 연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구상이 안 됩니다” 한 대표는 ‘유아생태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이야기와 사례를 들어 ‘생태와 수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풀어 놓았습니다.

“아래 잎은 8개의 잎이 동일하게 자라는 것을 관찰하면서 곱셈을 이해 오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만 대표)

공유공간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달팽이 수학정원’을 만들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파는 ‘달팽이 시장’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한 ‘달팽이 수학정원 코디네이터’ 과정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3/19 아이랑 책이랑 잘 놀기

박운정

- *장소: 책읽는마을 북카페
- *참가자(7명): 책읽기에 관심 많은 엄마 6명, 열린사회복지시민회 활동가 1명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어서 3가지 질문으로 '①이름과 자녀 ②나를 표현하는 한 단어 ③요즘 최대 관심거리' 자기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의 주제를 살려서 우리들부터 책도 읽고 책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고 『창덕궁의 하얀새』 그림책을 영상으로 보고 참가한 엄마 한명이 읽어주었고, 『딸과 떠나는 국보 건축 기행』 책을 북마스터가 주요 내용을 발제했다. 위의 책을 살펴보고 엄마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과 친하게 잘 놀까? 엄마와 아이가 잘 소통할까'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1. 아이들과 책읽기, 체험활동이나 견학 등 야외활동이나 나들이 경험 나누기

- ◆ 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경우
 - 어떤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어야 할지 모르다 보니 유명한 책 중심으로 읽힌다.
 -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챙겨야 할 짐도 많고, 손도 많이 가고 교통편이 어려워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 아빠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현실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 힘들게 가셔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대화를 하거나 설명하기도 힘들고 놀아주는 것도 힘에 부쳐 일찍 오게 된다.

- ◆ 고학년 학부모 아이들이 어릴 때 품앗이로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는 오세암의 경우
 - 놀아본 아이들이 잘 논다는 말처럼 어릴 때인 유아, 초등 저학년 때부터 지역어린이학교 '또랑' 에서 그림책도 읽고 책놀이도 하고 박물관 견학이나 동네 탐사활동, 자연생태 놀이 등을 했던 아이들이 그때는 건성건성 하는 것 같았는데 중, 고등학교에 가서도 친구관계도 좋고 주도적인 태도, 이해력도 높다.
 - 아무래도 엄마 혼자서 아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놀아주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2. 아이들 키우는데 있어 어렵고 난감한 경험들과 고민나누기

- 아이들을 자유롭게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6살 아이에게 한글도 따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유치원에 보내면서 다른 아이들과 많이 차이가 나고 엄마가 아이에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둘째는 일찍 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 품앗이 활동도 했던 엄마들의 경우도 학교 학부모 모임 등에 가면 주변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다보면 교육소신도 흔들리고 아이한테 큰 죄를 짓는 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축된다.
-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대학입시에 엄마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할지 자신이 없다는 속마음도 털어 놓았다.

3. 동네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나 제안 내용

-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고 아울러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즐길 수 있는 오감으로 하는 책놀이, 체험, 견학 프로그램 등이 많아졌으면
- 특히 강북지역은 아이들의 진로탐색이나 체험활동이 부족해서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생겼으면.
- 그리고 위의 것들이 멀리까지 찾아가지 않고 동네에서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청소년센터나 놀이터가 생겼으면..
- 유아 엄마들도 취미나 자기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 있었으면.
- 아이들, 엄마들이 고민이나 오늘 같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모임과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오로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니 동네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 지었다.



3/19 부산교육에 할 말 많은 이들

장유성

- 1. 부산교육에 할 말 많은 이들은 널렸지만 이 날은 매우 소수정예(?)로 모였다. 2012년 12월1일과 2일 열린 부산시민의제컨퍼런스와 2013년 6월의 정책학교, 7월부터 10월까지의 분야별 세미나 개최, 10월 하순 시민의제컨퍼런스, 12월 부산시민의제사전 2014 발간에 이르기까지 1년간 일상포플 2014 오픈테이블과 유사한 작업을 해온 터라 느낌 아는 참가자들이었지만 참석예정자에 비해 지나치게 소수정예 멤버가 모였다.



- 2. 현재 우리 학교 문화는 매우 피폐하다.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에는 교사의 교육적 마인드, 학생들의 인성적 문제, 규제일변도의 학교 규칙, 교사의 교육행정적 업무 과중, 학교 경영자의 보수적 교육관, 교육당국의 무리한 성과주의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교

육적 마인드이다. 교사들의 혁신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행복한 공교육이 되어야 한다.

- 3-1. 부산에도 혁신학교가 도입되어야 한다.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과감한 학교 혁신의 정책이 필요하다.
- 3-2.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 없이는 변화 없다.
- 3-3. 다양한 체험학습이 가능한 공립 대안학교의 도입이 필요하다.
- 3-4. 학부모교육의회, 청소년교육의회가 설치되기를 바란다.
- 3-5. 특수교육 재정비를 통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현이 필요하다.
- 3-6. 특목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로 인한 교육 양극화, 또는 지역의 경제적 격차에 기인한 지역 교육격차가 심각하다.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7. 청소년 생활세계를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3-8. 인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학교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 3-9. 교육청 예산, 학교 예산,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등 교육 예산 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절실하다.
- 3-10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은 교육자치구현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3/19 가재울마을학교- 가재울낭독회

양재성

- *참석: 양재성, 박효숙, 이해인, 강세기, 이소애, 차승연, 문지민
- *장소: 가재울 마을학교
- *진행: - 7시30분 / 종소리와 함께 묵상 (성찰) - 7시35분 - 8시 30분 /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 양재성님 - 8시30분 - 9시25분 / 느낌, 감동을 나눠요 (자유롭게). - 9시25분 - 9시30분 / 알리는 소식 및 종소리 묵상 5. 감동 나누기

올해 첫 낭독회는 마을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일정들이 겹쳐 많은 분들이 불참했지만 낭독회 단 두 명이 있어도 열립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자기소개와 함께 낭독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는 2011년 출판되자마자 프랑스에서 200만부 이상 팔렸으며, 현재 전 세계 1,000만부 이상 팔린 스테판 에셀의 마지막 강연과 인터뷰를 요약한 책입니다. 스테판 에셀은 1917년 독일에서 태어나 세계 인권선언문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평생 레지스탕스로의 신념을 갖고 살아내신 분이라는 소개와 함께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효숙) 분노가 참여로 가야 하는데, 분노가 다만 분노로 그치니 지치기만 한다. 오늘도 서울시 공무원 한사람과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건에 대해 의견을 물었는데, 동료 공무원의 얘기인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의아했다. 이건 비단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 듯하다. 그러면서 개혁이 쉽지는 않겠구나하고 생각했다. 이게 우리 현실인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해야 할 듯하다. 꼭 마지막까지 직접적으로 위협이 닥쳐야만 느끼고 개혁할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다.

양재성) 그 일과 무관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바로 내 일이라고 인식시켜 주기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문지민) 낭독을 들으면서 글을 듣는 게 아니라 저자의 육성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듯하다. 폭력과 비폭력에 대해 들으면서 우리 역사에서 있었던 안중근 의사의 폭탄 의거, 광주 항쟁으로 대표되는 폭력과 3.1운동,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비폭력에 대해서 언뜻 생각하면서 그 둘 사이의 경계

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차승연) 응어리가 풀리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한다. 촛불집회를 매주 하는데, 사실 이미 설득은 포기한 단계다. 사람들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분명 반격의 기회는 오겠지만 그때 사용할 힘을 어떻게 비축하고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

강세기) 93세라는 저자의 낱선 감각과 의지가 놀라웠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저자의 낱선 의지와 그런 분을 품을 수 있는 프랑스 사회가 부럽다. 우리 사회는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회가 된 것 같다. '분노하라' 다음에 올 것은 '연대하라' 가 아닐까 싶다. 지금 우리는 그 연대가 깨진 것처럼 보인다. 그 역할을 해줄 언론이나 학교가 이미 무너지고 이제 남은 종교만 촛불을 들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 어느 누군가 연대의 주축이 되 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분노하고 일어나는 자가 있다면 같이 연대하는 세력,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소애) 낭독 내내 나는 분노가 아니라 저자가 말하는 부당한 증오인 화만 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분의 글로 인해 언제까지 증오만 할 건지, 그걸 깨는 계기가 될 듯하다.

양재성) 주변에 세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들 모두 폭발할 것만 같은 분노를 갖고 계신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계신 청렴, 검소, 소신으로 산 삶의 근원은 바로 그 분노에 있었던 듯하다. 작년 후쿠시마에 갔을 때 임시가옥에 있던 피해자들이 아무런 분노 없이 너무 조용했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곳에 있던 일본의 지인은 그걸 '일본의 절망' 이라고 부르더라. 사실 거기에 비해 분노가 많은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많다고 느꼈다. 스테판 에셀, 죽을 때까지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건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분노 뒤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분노와 비판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대안도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개혁의 근본,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교회 개혁보다 사회 개혁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사회 개혁의 많은 부분이 교회 개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두 개혁을 어떻게 같이 갖고 갈까 하는 고민을 한다. 그리고 저자의 분노 말고도 낙천적인 성격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문학적 소양과 헤겔의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덕분인 듯하다. 분노만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할 텐데 이런 낙천성이 에너지를 오히려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듯하다. 지금 매우 절망적이긴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응답할 수 있는 길에 최선을 응답한다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공지사항
- "2014년 가재울 마을학교 생태문화 탐방"
- 자연생태 탐방 체험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지구 사랑을 키워 글로벌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다. - 기행에 동참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성을 높인다.
- 대상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 마을 사람들
- 장소 : 서울과 경기 근교의 생태 탐방 우수 지역

3/21 초등학교 저학년 3명만 모이면 방과후 집으로!

백해영

- 방과후 시설투자 없이 해결하자
- *장소: 구로 느티나무 카페
- *참여자: 이해련, 홍은숙, 이을선, 백해영, 주경임 (제안배경)
- 유아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면 되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맞벌이 부부는 아이들 방과후 때문에 힘들어진다.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 도 운영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으려 하지 않고 또 많은 수요를 충족할 수도 없다.

- 동네마다 예산상 방과후시설을 짓기도 힘들다.
- 자신의 집에서 3명~5명 정도의 동네 아이들을 돌봐주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간식비 등을 지원해서(자부담원칙, 행정은 간식비 지원)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덜어주고 시설비 없이 방과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 이웃들 간 작은 관계가 형성되는 효과도 있다.
- 숙제 봐주고 학원가는 것 챙겨주고 간식 먹이는 베이스캠프가 되면 된다.

(토론내용)

- 학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부모들이 달라지고 욕심이 많아져 효과적일지는 모르겠다.
- 행정이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한 아이 당 20만원을 낸다 해도 3명이면 60만원인데 오후 내내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것치고 수입이 너무 적다. 간식비지원도 한 아이 당 5만원이면 15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저녁 시간 한 두 시간 아이들을 돌봐줄 분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더라.
- 수입이 효과적이지 않아 이 아이디어는 일단 세모!



이어서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유창복 대표님께서 마을 만들기과 미디어와의 관계, 주체기관의 협력 상황에 대하여 발표하셨습니다. 마을미디어센터들이 보다 안정성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북 마을방송 '와보송TV'의 이소영 대표님께서 작년에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느끼신 점을 바탕으로, 마을미디어 사업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센터인 마을미디어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FM'의 안병천 대표님께서 중간 거점들의 필요성과, 마을 단체의 성장 환경에 대해 발제해주셨는데요.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마을 공동체 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역량을 강화하고, 규모 환경을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마을활동가님들을 중심으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장비나 인력, 공간지원에 대한 문제와 미디어 교육의 대상 확대, 중앙정부 차원의 공동체라디오 도입 사업 등 마을미디어 사업을 진행함에 뒤따르는 문제점과 건의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토론회에 대한 피드백을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메모하셔서,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주셨고 앞으로 마을미디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각 마을에서 오신 취재단 분들의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인터뷰와 질의응답이 활발히 오갔습니다. 지난 마을미디어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올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02 3) 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 사람이 먼저다 마을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3/18 지속가능한 미디어를 꿈꾸다!

마을교실

마을미디어를 말하다! '2014 마을미디어 정책토론회'

지난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시민청에서 '마을미디어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마을 활동가들, 마을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2014년 마을미디어 사업과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사가 열린 장소는 서울 시민청 내의 '바스락홀'이었는데요. 토론회가 열리기 전날부터 당일까지 현수막을 걸고, 마을미디어 소개 판넬도 설치하며 부지런히 준비하였습니다. '성북 문화재단'의 김종휘님께서 사회를 맡으셨습니다! 매끄럽고 센스 있는 진행으로 토론회장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셨어요.



2014년 마을미디어 사업과 관련하여 네 분의 발제자께서 각기 다른 주제로 발제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미디어트'의 이주훈 부소장님께서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셨습니다. 마을미디어를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와 소통 문화를 일구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마을미디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제안하셨습니다!

1.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2. 지역기반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3. 단계적 지원을 통한 성장 견인(마을 맞춤형 지원)
4. 민간협력 거버넌스 정비

3/19 예술인 창작지원금의 쓴 맛 단 맛

에이컴퍼니 인턴 정은정

미술작가들의 복지에 대해

*장소: 미나리하우스

*참여작가: 진영, 이은영, 배빛, 연정현, 박노을, 박선양, 이취원, 이승아



지난 19일, <미나리 하우스> 8인의 작가가 '예술인 복지' 라는 주제로 한 데 모였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한 논의부터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과 고민들, 예술인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솔직 담백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시다!

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약 1년이 되었어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술인 창작 지원금" 제도가 가장 큰 이슈인 듯해요. 6개월 간 예술가에게 매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이 제도에 대한 작가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작년 1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당시 첫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재단의 지원금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원 이후에는 재단 측이 지원금 사용을 전적으로 작가의 자율에 맡겨 주었는데, 이 점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원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실제로 2차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1차에 비해 더욱 까다로운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등본 상 가족원 전체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그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4인 가족 기준 약 160만원 이하)애매하여 많은 지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기준을 맞추는 것도 힘들지만, 심사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건 공무원들인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서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나'가 선정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또 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 부족하다 보니 매뉴얼대로 처리할 것 같은 느낌이고...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도 탈락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창작지원금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리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예술가를 돕자는 취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작정 소득수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마치 저소득층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져 버린 거죠. 현행 체제 대신에 모집단계에서부터 작가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 이후에는 결과 보고를 하는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예술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이 뿐 아니라 예술가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해준단든지..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의 예술 관련 사업들이 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접지원 위주였다면, 이제는 점점 예술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바뀌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해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중 하나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재보험 지원의 경우가 그래요. 연극이나 영화 분야는 공연을 준비하거나 연습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회화 작가들의 경우 작업 도중에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만약 부상을 입는다고 해도 혼자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게 작업 도중이었는지 증명할 방법도 없고요... 영화, 연극, 미술, 음악 모두 "예술"이란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엄연히 다른 분야이고, 처한 상황도 매우 달라요. 분야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술인 복지재단에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도시 내 유휴공간을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대여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용 부담 때문에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요. 갤러리에서 작품을 보고 싶다고 할 때라든지... 한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소방서 건물을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실로 대여해 주었다고 해요. 이처럼 공공기관이나 도시 곳곳의 유휴공간들을 작업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준다면, 더욱 적극적인 창작활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의 예술인 증명에서 나아가 인증된 예술인이 자신의 작품들을 포트폴리오화 시켜 올릴 수 있는 아카이브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 예술인들은 그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아카이브에 올려진 작품들도 공식적인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도 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요즘에는 '대학평가제도' 때문에 예술대학에서도 취업률을 따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취직을 권유하진 않을까 걱정도 돼요. 얼마 전 지역아동센터에서 미술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재능을 살려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이를 통해 수익도 창출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런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지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3월의 밤은 예술인들의 열띤 토론과 함께 저물어 갔습니다. 예술인 복지에 대한 더욱 뜨거운 관심과 함께 예술인의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을 위한 복지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0 마포, 그곳에 예술가가 살게 하라!

이원재

지난 3월 20일, <일상폴폴2014_OPEN TABLE>의 수많은 이야기 중 또 하나의 이야기였던 "마포, 그 곳에 예술가가 살게 하라!"가 마포구 연남동에 자리한 문화연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개최된 "마포, 그 곳에 예술가가 살게 하라!"는 "예술가에서부터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주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마포의 문화정책에 대한 수다를 위해 기획된 오픈테이블이었습니다.

오픈테이블이기는 했지만 사실 널리 홍보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한 번의 수다보다는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 그리고 협력의 씨앗을 뿌리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별다른 홍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흥대 앞, 성미산, 연남동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자리였습니다.

흥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과 일상예술창작센터의 김영등 대표, 문화로놀이장의 안연정 대표, 서울프린트네트워크의 황혜진 사무차장, 미술가이자 예술기획자인 양철모 작가, 서교예술실험센터의 배소현 매니저 그리고 문화연대의 최준영, 박선영, 이원재 활동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더욱 좋았던 것은 문화예술영역의 분들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마포마을넷의 갈숲과 오리, 그리고 구의원 예비후보이신 설현정님이 참석해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덕분에 문화예술계의 입장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마을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포, 그 곳에 예술가가 살게 하라!"라는 주제에 걸맞게 그 동안 마포구의 문화, 예술정책이 보

여준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들이 먼저 이야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흥대앞 문화생태계,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창의주체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마포구가 보여준 문화행정의 수동성, 행정편의주의, 비전 부재 등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포구 문화정책, 문화행정에 대한 지향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을 비롯하여 창작자들의 생산 환경과 지원에 대한 이야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과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통될 수 있는 구조들, 나아가 마을이나 생활권내에서 직업을 넘어 문화적 권리와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날의 수다들이 일회적인 투덜거림, 불만에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포구의 문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결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마포구 내에서 자율적인 문화생태계네트워크를 형성하자. 둘째, 다함께 연대하고 요구하고 개입할 수 있는 단 1개의 의제를 도출하고 협력하자. 셋째, 이번 마포구청장 선거에서 어떤 형식(추후 결정)이든 마포구 문화예술생태계의 의견을 모든 후보자들에게 반드시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다음 오픈테이블 일정을 잡았습니다. 4월 9일 오전 10시, 문화연대입니다. 이 날은 마포구 문화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공유 및 토론할 예정입니다. 물론 마포구 문화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일상포플2014의 공식 프로그램들은 마무리 되었지만, 그 취지처럼 “마포의 일상포플”은 계속됩니다. “마포, 그 곳에 예술가와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 까지!

여기서부터는 후기를 작성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마포구청장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고민해야 할 문화정책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다음 모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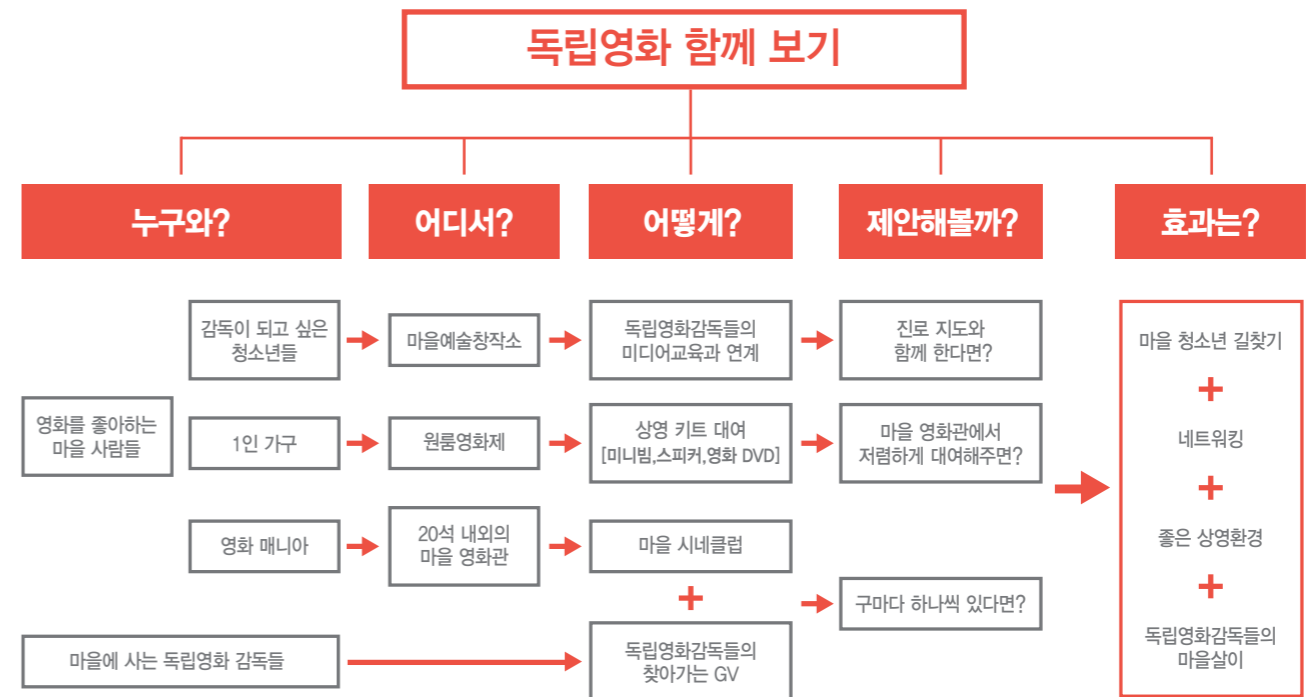
- 주민,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마포구 문화비전:도시계획의 혁신적인 재구성
- 창의성과 공유의 가치에 기반한 생활권역(마을, 동네) 교육+문화+복지 통합정책 수립
- 마포구 안에서 창작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제도 도입
- 마포구의 <학교-도서관-서점-북카페-책벼룩시장-헌책방> 등 교육 및 지식순환생태계 형성
- 마포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
- 사회적 문제의 창의적 해결, 공공예술 활성화를 위한 마포공공예술기금 및 센터 조성
- 마포구의 대표적인 문제를 사회협력 모델로 해결하는 사례 만들기
- 마포와 농어촌을 쌍방향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가칭)문화귀촌지원센터 설치
- 마포구 동네기술네트워크 구성
- 마포구 문화자원 빅데이터센터 설립
-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 협력팀 운영



3/20 마을에서 삼삼오오 독립영화보기

스이

지난 3월 20일 저녁 7시 상수동 카페 오픈테이블에는 4명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에서 독립영화를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이것들을 간추려서 간단한 표로 만들어보았어요. 독립영화를 마을에서 보는 것의 의미가 다양하게 얽혀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네트워킹’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좋은 상영환경’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진로 체험’으로 의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영 방식을 상상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대에 독립영화를 볼 수 있도록 대여 가능한 상영키트 혹은 마을마다 20석 내외의 독립영화전용관이 있다면 어떨까, 꿈을 꾀보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3/21 모색영화제

씨네에그

소통과 가능성

모색영화제는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를 소통과 가능성의 매개체로 삼아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는 문화 모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3회의 모색영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 제1회 모색 : 철도민영화 / 켈로치 감독의 <네비게이터> 상영 / 철도노조 이충렬 서울수석부본부장 강연 / 오프 더 컵프 공연
- 제2회 모색 : 생태,환경 / 다큐 황대권의 <Life is peace> 상영 / 야생초 편지 저자 황대권 선생 초청 강연 / 봄눈별 공연
- 제3회 모색 : 희망에 대하여 / 김동원 감독의 <명성, 그 6일간의 기록> 상영 / 김동원 감독과의 대화

지난 3회를 거치며 모색영화제에 참여하고, 함께 이끌어주었던 모색회원들과의 만남! 모색에게 바라는 점은? 모색회원 김동빈님) 모색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장소(소셜 스튜디오 공감) 또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색회원 김경아님(행복한정릉카페)) 다큐멘터리도 좋았지만 직접 황대권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보니, 요즘 고민이(마을 만들기) 많았는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영화란 하나의 예술이기 이전에 사회와 인간에 대한 탐구가 아닐까요? 모색영화제는 단지 영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가 품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우수한 다양성 독립예술영화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들을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모색영화제 같은 작은 영화제(문화행사)가 마을, 학교 등 소규모 단위로 퍼져나가 공동체 상영 문화가 형성 되기를 바랍니다.

www.facebook.com/cinegg (모색 staff : 조준용(씨네에그), 김경서(아트버스킹))



06-2

테이블별 논의내용 모음

4. 일과 삶의 자리 구축 : 균형을 넘어 공존으로

01 일과 삶이 공존하는 토대 구축

- [3/18] 은퇴 후 새로운 삶, 어떻게 준비할까?
- [3/18] 지속가능한 대내리 발전방법
- [3/19] 기획자,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 하다
- [3/19] 청년들의 일과 삶, 균형찾기
- [3/19] 청년이 말하는 일, 자리
- [3/20] 불편한 연구소
- [3/20] 청년, 마을에서 놀다
- [3/20] 위기청소년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건?

02 협업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3/21] 함께 뛰는 법을 잇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활프로젝트



01 4) 일과 삶의 자리 구축 - 균형을 넘어 공존으로 일과 삶이 공존하는 토대 구축

3/18 은퇴 후 새로운 삶, 어떻게 준비할까?

신은희 (벨류가든)

- *장소: 카페드러와
- *참가: 서초강남 베이비부머 5인과 진행자
 - 교육공동체, 시민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 지역 내 문화생활 주민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분
 -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
 - 가정주부로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

베이비부머의 주요 이슈는 돈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픈테이블에서 나온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수입이 줄거나 없어지는 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큰 과제이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픈테이블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참가했다.
- 작더라도 수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활동이 필요하다. 그럴때 더욱 적극적인 사회참여도 가능할꺼 같다.
- 은퇴 후에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 예전에 직장과 관련하여 만나던 사람들이 아닌 마을에서 관계가 중요한데, 그러한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어렵다.
- 주부는 남편이 은퇴 후가 걱정이다. 수입도 그렇지만 그 동안 주부는 개인적인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남편이 계속 집에 있을 때 시간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외부활동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답답하다.
- 은퇴하고도 30년 이상 건강한 삶이 유지된다 했을 때 일을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 같다. 일의 주인이 되는 것,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즉 모두가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 노인정하면 노인이라 하더라도 가길 꺼려한다. 노인정(경로당)에 대한 이미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정말 늙은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 같아서 어른들도 가기 싫어한다.
- 노인정에 대한 이미지, 나아가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 등의 개념도 그 세대에 대해 주체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 노인정에도 생산적인 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꺼리와 이슈가 필요하다.
- 노인정이 아닌 마을회관으로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변신이 필요하다.
- 베이비부머와 그 윗 세대의 지혜를 어떻게 공유하고 나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은퇴후 생활/마을 적응메뉴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 배움의 기회는 많지만 소비적 배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생산의 기회가 되도록 배움의 과정도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 일이 주는 자존감이 있는 만큼 새로운 일을 찾고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참가한 분들의 경험과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다르긴 하지만 당사자로서 직접 문제를 꼬집어내고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해나가는 과정은 너무 중요해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료 의식 같은 공감도 있고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일괄적용이 아닌 상황에 맞는 준비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또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도록 마련된 강좌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교육을 위해 씨앗자금을 마련하여 그 강좌를 다시 열 수 있도록 준

비하고 있는 분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중이시라네요.

일터에서 다시 마을로 돌아온 은퇴자에 대한 환대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마을에서 제 2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어울림의 과정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네요. 잘 적응하고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앞으로도 몇 차례는 더 이러한 주제의 오픈테이블이 열리면 그 씨앗자금도 제대로 쓰일 곳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3/18 지속가능한 대내리 발전방법

Inki Hong

지속가능한 영주산마을 협동조합 발전방향

[체크인]

머루 기쁜 마음으로 왔다.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도 좋다.

옹달샘 마음의 부담감. 야근이라고 뺑치고 옴. 복직하고 조합 일을 많이 못한 부담감.

꿈원 월세를 올리기 전부터 일할 사람이 없다는 상황. 해보고 싶은 마음과 쉬고 싶다는 생각. 쉼은 회복가능한 정도만 필요.

이 공간이 잘 돼야 보람도 기쁨도 있다. 혼자 할 수는 없다. 사람을 시키는 일도 힘들다.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들어오면 일거리만 보이는 상황.

이야기도 나누고 관계도 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 쫓기는 삶이 힘들. 카페 지기가 없으니 좋다.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상황. 5명이 한꺼번에 모이기 힘든 상황

드림맘 나대신 신랑이 오고 깊어 함. 마음이 무거워요. 오기가 부담스러움. 왜 협동조합을 했을까 후회함. 이 동네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들어옴. 이 공간도 같이 살고 싶어서 시작함. 이 동네에 들어와 말을 많이 하게 됨. 신랑도 조합에 너무 푹 젖어 있다고 말함. 이 공간에 대한 규명이 좀 안됨.

이렇게 하지 못함. 쫓기는 삶이 힘들. 카페 지기가 없으니 좋다.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상황. 5명이 한꺼번에 모이기 힘든 상황

드림맘 나대신 신랑이 오고 깊어 함. 마음이 무거워요. 오기가 부담스러움. 왜 협동조합을 했을까 후회함. 이 동네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들어옴. 이 공간도 같이 살고 싶어서 시작함. 이 동네에 들어와 말을 많이 하게 됨. 신랑도 조합에 너무 푹 젖어 있다고 말함. 이 공간에 대한 규명이 좀 안됨.

이렇게 하지 못함. 쫓기는 삶이 힘들. 카페 지기가 없으니 좋다.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상황. 5명이 한꺼번에 모이기 힘든 상황

드림맘 나대신 신랑이 오고 깊어 함. 마음이 무거워요. 오기가 부담스러움. 왜 협동조합을 했을까 후회함. 이 동네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들어옴. 이 공간도 같이 살고 싶어서 시작함. 이 동네에 들어와 말을 많이 하게 됨. 신랑도 조합에 너무 푹 젖어 있다고 말함. 이 공간에 대한 규명이 좀 안됨.

이렇게 하지 못함. 쫓기는 삶이 힘들. 카페 지기가 없으니 좋다.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상황. 5명이 한꺼번에 모이기 힘든 상황

드림맘 나대신 신랑이 오고 깊어 함. 마음이 무거워요. 오기가 부담스러움. 왜 협동조합을 했을까 후회함. 이 동네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들어옴. 이 공간도 같이 살고 싶어서 시작함. 이 동네에 들어와 말을 많이 하게 됨. 신랑도 조합에 너무 푹 젖어 있다고 말함. 이 공간에 대한 규명이 좀 안됨.

이렇게 하지 못함. 쫓기는 삶이 힘들. 카페 지기가 없으니 좋다.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상황. 5명이 한꺼번에 모이기 힘든 상황

드림맘 나대신 신랑이 오고 깊어 함. 마음이 무거워요. 오기가 부담스러움. 왜 협동조합을 했을까 후회함. 이 동네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들어옴. 이 공간도 같이 살고 싶어서 시작함. 이 동네에 들어와 말을 많이 하게 됨. 신랑도 조합에 너무 푹 젖어 있다고 말함. 이 공간에 대한 규명이 좀 안됨.

이렇게 하지 못함. 쫓기는 삶이 힘들. 카페 지기가 없으니 좋다.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상황. 5명이 한꺼번에 모이기 힘든 상황

드림맘 나대신 신랑이 오고 깊어 함. 마음이 무거워요. 오기가 부담스러움. 왜 협동조합을 했을까 후회함. 이 동네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들어옴. 이 공간도 같이 살고 싶어서 시작함. 이 동네에 들어와 말을 많이 하게 됨. 신랑도 조합에 너무 푹 젖어 있다고 말함. 이 공간에 대한 규명이 좀 안됨.

이렇게 하지 못함. 쫓기는 삶이 힘들. 카페 지기가 없으니 좋다.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상황. 5명이 한꺼번에 모이기 힘든 상황

드림맘 나대신 신랑이 오고 깊어 함. 마음이 무거워요. 오기가 부담스러움. 왜 협동조합을 했을까 후회함. 이 동네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들어옴. 이 공간도 같이 살고 싶어서 시작함. 이 동네에 들어와 말을 많이 하게 됨. 신랑도 조합에 너무 푹 젖어 있다고 말함. 이 공간에 대한 규명이 좀 안됨.



-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다. 배우는 모임은 하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드는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배우의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으로도 의미가 있다.
- 사람들을 바쁘게 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에 절망.
- 집안일은 끝없는 반복, 어떻게든 가치를 부여하며 극복.
- 교육 공동체는 1/n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목표가 뚜렷한 곳. 자녀를 키우는 연대감을 극복하기 위한 원가가 있어야 한다. 육아에 대해서는 과잉되게 한다. 가족이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
- 봉사는 참 힘들다. 사람에게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 내부의 청소나 정리가 안 되는 것도 고민.
- 이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많이 내려놓았다.

[우리에게 닥친 구체적인 문제점]

- 버티는 게 중요하다. 몇몇 모여서 담판을 벌이자.
- 3천에 66만원, 2천에 77만원 3년 기간으로
- 계약 시 시설보수와 이용시간 문제. 누수문제 있음.

3/19

기획자,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다

유다원

슬리퍼를 신고 나온 '예술가/기획자' 들의 수다 같은 정책 제안 오픈테이블

- *장소: 모기동 문화발전소 & 카페 숙영원
- *참석자: 총 8인
- *진행순서
 1. 간단한 소개
 2. 베를린 이원생방송 _ 최찬숙 작가님의 베를린 예술정책 & 예술복지 관련 간단한 소개
 3. 불만성토크 _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봤다
 4. 국내 -외 지원정책 발제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유다원 / 사운드아티스트 홍초선)
 5. 예술가 -기획자 지원정책에 바란다. (정책제언)
 6. 소감

모기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소소하다. 이번 오픈테이블 역시, 최근에 숙영원에 모여 뭐 먹고 살지 고민하는 작업자, 기획자들이 자신들의 고민이나 나누어 볼까? 하는 소소한 생각에서 시작되었고 '오픈테이블'이라는 이름을 달고 조금은 '공공'의 정책이 될 수 있을 방법을 고민하면서 조금 발전되었던 것 같다. 그냥 떠는 수다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선의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데이터(사례)를 모아보자며 두 개 정도 준비를 했다. 그 한 축으로 2013년 베를린 탐방을 다녀와서 인연이 닿은 '최찬숙 작가'(모기동 팀이 베를린 탐방을 했을 때 통역과 안내를 해주셨던 분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 스튜디오 이안(www.studioiaan.com)의 공동 운영자)에게 베를린의 지원 사례를 물어보면, 현재 한국의 지원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락을 취했고, 다른 한 축은 국내 지원정책을 조사해보는 것이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정책 상황에 부끄러움을 떨며 테이블을 기다리던 우리는 토론을 하면서 폭발하자며 테이블 전에 말을 아끼고 있었다. 사실 외부인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우리끼리도 충분히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기다렸다. 6시가 가까워져 왔고, 사회혁신공간 'There'에서 관계자와 촬영(이렇게 일이 커질 줄 상상도 못했음...)하는 분이 오셨고,

전화로 약속했던 한 분이 당도하셨다. 삶은 달걀(?잉) 빵을 준비하고 스카이프를 베를린의 최찬숙님과 이원생방송 준비를 마쳤고 6시 5분정도 간단한 '오픈테이블'에 대한 소개, 아주 어색하지만 간단한 자기소개를 진행했다(늘 느끼는 거지만, 처음 만나 인사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어색함에 모두 부끄러움을 떨었던 기억이 스물스물.

일상포플 전체 디렉터를 맡고 있는 수빈님께서 행사해주셨네요~ 일상포플은 먼지를 저 멀리 베



를린에 있는 찬숙님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감사하어요~ 미디어 아티스트님 담게 화면처리 한번 알흠답습니다! 여신님같은~

1. 베를린 이원생방송 _ 미디어 아티스트 최찬숙님의 베를린 정책 및 예술 복지에 대한 이야기

베를린 시에서 지원하는 예술가 지원정책

베를린 내에는 예술관련 학교가 5개 정도가 되는데 졸업을 앞둔 학생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내-외국인 구분 없음) 작가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생활비는 1,126유로(한화로 160만원 내외)와 재료비 연간 1,500유로(한화로 220만원 정도) 한 달에 한화로 180만원 정도의 금액을 2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여성작가 같은 경우 출산을 할 경우 년 수가 연장되기도 하고 아이 보육 지원이 따로 있다. 또한 국제교류, 인큐베이팅 코스, 1년짜리 프로젝트 지원 등이 별도로 있다.

지자체(구별) 지원금: 작가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작업을 할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원하는 예술가에 한해 진행된다.

예술가 사회보장제도 _ 카에스카 제도 (KSK [Kuenstlersozialkasse])

- 작가로서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예술인활동증명서와 유사한 형태임- 1년에 3,600 유로(한화로 500만원 이상의 금액) 정도를 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험료의 50% 지원과 연금을 납부해준다.

- 카에스카에는 예술단체, 예술 산업을 하는 기업, 예술가의 세금과 기업의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많다보니 카에스카가 재정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예술지원제도가나 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하면 프로젝트가 대부분 예술가의 생활비, 거주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점이다. 또한 심사가 까다로운 반면, 결과물/정산 등에 대한 별다른 보고가 없다. 그래서 보고 전시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다. 한국에서도 지원 사업을 받아봤는데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많고, 작가와 지원기관과의 관계가 종속적인 면이 높은 것 같다.

- 베를린은 사회주의 체제와 맞물려 있어서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다.
(본 내용은 조금 축약된 내용이고, 작가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향후 자세한 내용은 일상포플 사업집에 실릴 예정입니다~)

2. 나는 이런 경험을 해봤다 _ 불만 성토회!!!

이원생방송을 마치고~ 각자 돌아가면서 불만성토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어 볼까요?

A사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거나 '했다' 퍼포먼스에 익숙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작가는 불신의 대상이다. 그래서 기자재 지원 / 유통채널 지원 / 디자이너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취약한 것 같다. 한 사례로 '아름다운 가게'의 뷰티플 펠로우 같은 경우는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4단계에 걸친 심사) 반면, 선정이 될 경우 3년간 생활비 지원을 해주고 정산 증빙은 일절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자가 좋은 방식의 성장을 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B사람: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나름 체계적으로 강사비/기획비 등을 지원 받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행정에 취약한 작가들이 정산을 할 경우 어려움이 많고, 정산의 방식이 현장과 많이 괴리가 있다.
또한 국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간만 지원해주거나 역으로 사용비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

3. 국내외 지원 사업에 대한 집중 분석!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에서 준비한 국내 사례 내용 발제에 이어 베를린 2014~15 예술가 지원 정책에 대해 베를린에서 9년간 유학을 다녀오신 사운드 아티스트 홍초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베를린 2014~15년도 지원 사업 정리

- 문화예술진흥금(한국의 언어임) 2천만유로 책정됨(한화로 290억원)
- 지원의 기본 철학: 예술가는 '걱정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회화분야 : 인건비(기획-디자인-예술가에 대한 인건비 책정 가능) / 예술인 사회보험 / 운송비 / 로열티
- 공연분야: 기획단계-진행단계-마무리단계 총 3단계에 걸친 폭넓은 지원 가능

(본 내용은 아주 축약적인 내용이고 이후 홍초님께서 독어를 번역해서 정리해서 저희에게 주실 예정입니다~ 능력자!!)

4. 정책 제언 _ 예술가-기획자 지원 정책에 바란다!!!

1) 지원 사업의 경우

- 지원 사업 세부 항목의 다양화: 프로젝트 성향별 (시각-영상-공연제작 등)로 세부 항목을 다르게 하여 지원해주어야 한다.
- 지원 사업 항목에 보험 필수 포함: 입찰 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항목에 필수 항목 중 하나는 산재-고용보험이다. 작업 중 부상을 입거나 프로젝트가 마무리 된 후 벌이가 없는 경우 산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보험" 과 노후가 불명확한 예술가와 기획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 가입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 프로젝트 정산의 간소화: (ex. 뷰티플 펠로우)

2) 예술가-기획자 아티스트피(기획자, 디자이너, 예술가 본인에게)는 30% 범위 내에서 지원: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제안하는 본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지만 정작 일에 대한, 노동력에 대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안하는 본인에게는 필수적으로 아티스트피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3)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금(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현재는 지정-법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만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 단일 경우에도 작품 구입이나 후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경우 기부 문화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4) 기타

- 예술가 복지: '예술가에게 자유를' 예술가 멤버십 카드 발급(교통비나 입장료 할인)
- 예술가 레지던스: 작업에만 집중 할 수 있는 구조 마련 (공공형 프로그램 참여 지양)
- 예술가 작품 판매 루트 개발: 청년샵, 사회적 기업 매장 등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만들기 / 국제 공모를 통한 파급력 확보
- 국가기관 및 지자체, 문화기관 등 배치 공무원의 역량 강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 했지만 이원생방송이라는 재미있는 방식이 도입되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고, 각자 현재의 고민 부분이 맞닿아 있어서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현재의 문제를 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 총 3시간에 이르는 긴 시간 테이블을 진행했지만 누구한명 소외(?_나만의 생각인가...ㅜㅜ) 되지 않고 골고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사실 정책제안을 위한 다양한 포럼, 심포지움 등이 열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팀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번 오픈테이블을 통해 소소하지만 작은 목소리도 담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테이블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작은 단위의 이야기 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고, 계속해서 이러한 활동을 모색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즐거운 상상도 하게 되었다.

오픈테이블이라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진행했던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내 사례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해외 사례 역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와 유

학을 다녀온 작가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다만 페이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향후 지방선거와 나아가 대선까지 정책에 제안 될 수 있다면, 1%를 위한 정책이 아닌 99%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구현되고 실현화 될 수 있는 사회를 꿈꾸어본다.

3/19 청년들의 일과 삶, 균형찾기

박효진

지난 3월 19일 홍대 씽크카페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 균형찾기> 라는 오픈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일'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삶'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지요.

첫 시작으로 가볍게 아이스브레이크를 했습니다. '진진가'라는 게임인데요, 자신에 대해서 5문장으로 소개해 보는 거예요. 단, 그 중 한 가지는 꼭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거짓말일까 궁금해 하면서 소개를 들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해봤던 경험들을 나누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재미있었습니다.



> 나의 하루 계획표 그리기 + 바나나 Talk
한층 친해진 후에 본격적인 오픈테이블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일과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동그란 하루 계획표를 그려보았어요. 초등학교 때 이후 처음 그려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일은 몇 시간 정도 하는지, 여가나 휴식은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바나나 Talk'에서는 한 사람씩 질문을 뽑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준비되었습니다.

- 최근 나의 삶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한다면?
- 요즘 가장 마음이 쓰이는 일은 무엇인가요?
- 하루 중 나를 웃게 만드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인가요?
-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나요?
- 계획표에는 없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 내 삶에서 더하고 싶은 것 하나, 빼고 싶은 것 하나 말해주세요
- 휴식,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나나요?
- 언제, 어느 곳에 가면 특별히 에너지를 얻나요?
-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 3가지는 무엇인가요?

참석자들은 각자 질문에 대답하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휴학을 하고 관심 있는 수업을 청강하거나,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활동 중인 학생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삶에 대한 만족이 높았어요. 반면, 취업을 앞둔 졸업반 학생들은 수업을 듣거

나, 취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많이 공감하게 되었지요. 또한, 직장 생활을 경험한 30대들은 늦은 퇴근과 이어지는 술자리 등 '저녁이 없는 삶'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운동이나 취미 생활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스스로 시간을 계획해서 쓰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여가 시간을 분리해서 색칠해보니 삶에서 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 새삼스럽게 놀라는 참석자들도 많았습니다.

> 전성기 나의 하루 그려보기

그렇다면, 앞으로 살고 싶은 이상적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 새로운 계획표를 한 장씩 더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성기'에는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워하던 참석자들은 이내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상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자신의 전성기는 70살이라고 생각하며, 오전 시간에 텃밭을 가꾸고 싶다고 이야기 했어요. 어떤 참석자는 근무시간이 유연해서 하고 싶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삶을 그렸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부모님이 바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족 시간의 소중함을 느낀다며,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앞서 늦은 퇴근 시간이 불만스럽던 참가자는 정시 퇴근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소박한'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 삶의 균형을 위해 변화해야 할 것들은?



이상적인 삶을 그려본 참석자들에게 그런 삶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물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실현될 수 있을까요? 각자 포스트잇에 3가지 이상씩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 지점을 적어 보았어요.

-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정책
- 입시경쟁, 시험 스트레스 줄이기
- 사회 보장제도 (연금, 보조금, 의료보험 등), 안전망 확충
- 공동체 문화, 교류가 활발한 마을
- 야근 없애기, 저녁이 있는 삶이 당연한 분위기
- 자기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
- 자신의 확고한 목표
- 자율적인 기업문화
- '가정의 날' 정책 시행
- 결혼 예비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
- 부모 출산 휴가 확대
- 파트타임 인적개선
- 유연한 일자리, 탄력근무제
- 실질적 청년인턴제도
- 열정페이 대신, 정당한 급여 지급
- 중장년 일자리 다양화
- 중소기업 지원
- 근로 복지 관련 정책의 다양화, 활성화
- 환경 친화적인 국가정책

이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몇몇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점도 눈에 띄었어요.



〉 사회적 투자자가 되어 변화에 투자하기

만약 우리가 '사회적 투자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위의 아이디어 중 꼭 투자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은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한사람마다 5개씩 별 스티커로 투표를 하면서 어떤 점이 꼭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스티커를 보면서 결과를 다함께 확인할 수 있었어요.

- 야근 없애기, 저녁이 있는 삶이 당연한 분위기 ★★★★★★ 7
- 근로 복지 관련 정책의 다양화, 활성화 ★★★★★★ 6
- 중소기업 지원 ★★★★★ 4
- 공동체 문화, 교류가 활발한 마을 ★★★★★ 3
- 사회 보장제도(연금, 보조금, 의료보험 등), 안전망 확충 ★★★★★ 3
- '가정의 날' 정책 시행 ★★★★★ 3
- 결혼 예비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 ★★★★★ 3
- 부모 출산 휴가 확대 ★★★★★ 3
- 열정페이 대신, 정당한 급여 지급 ★★★★★ 3
- 입시경쟁, 시험 스트레스 줄이기 ★★★★★ 2
- 자율적인 기업문화 ★★★★★ 2
- 파트타임어 인식개선 ★★★★★ 2
- 유연한 일자리, 탄력근무제 ★★★★★ 2
- 중장년 일자리 다양화 ★★★★★ 2
- 실질적 청년인턴제도 ★★★★★ 1
- 환경 친화적인 국가정책 ★★★★★ 1
- 자기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 ★★★★★ 1
- 자신의 확고한 목표 ★★★★★ 1
-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정책 ★★★★★ 1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야근 없애기, 저녁이 있는 삶이 당연한 분위기'와 '근로 복지 관련 정책의 다양화,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우리 같은 청년세대가 원하는 정책 의제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일과 삶을 분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근무 여

건이나 복지가 높아져야 삶의 질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청년세대를 '윗세대와 이어달리기를 거부한 최초의 세대'라고 이야기 합니다. 오픈테이블에 모인 사람들의 이상적인 삶도 대다수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꿈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회의를 느끼거나 퇴사를 선택한 분도 있었지요. 다들 처음 사는 인생이라 이리저리 시행착오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진되는 삶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고민들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작은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변화의 지점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은 미완으로 남겨둔 채 마무리 했어요.



3/19 청년이 말하는 일, 자리

장수정

“일상의 장면이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된다” 하고 싶은 일과 먹고 사는 일 사이, 내가 뭔가를 해보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거나 어렵다.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져든다. 열망과 현실 사이의 일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그 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이런 정책이 있다면' 을 상상한다면?

청년들이 말하는 일, 자리에 대한 속풀이 테이블 토크

★장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

★참여 : 먹고사는 일? 지속가능한 일? 하고 싶은 일? 청년에게 필요한 일과 그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상의 소소한 상상을 가진 청년 20명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삶에서 부딪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자리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등의 폭넓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 이야기 안에서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말들을 함께 정리해 보면,

- 일터가 또 다른 문화생활의 삶의 공간이면 좋겠다.
- 하고 싶은 일과 먹고사는 일 중에서 갈등하다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했다. 나는 포기했지만,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청년들에게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
- 주변 친구들과 모여서 견업일자리를 시도하고 있다. 그냥 소소하고 작은 일을 찾고, 만들어보며 공동체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월 30만원만 준다면 삶의 다음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저성장시대의 청년. 부족한 일자리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 학벌에 따라 자기 주위에서 모방할 수 있는 사례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더 격차가 생긴다. 학벌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청년들의 구직을 위한 스펙, 자격증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자

- 사회적인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
- 일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영어로는 labor, work, job 다양한데 그래서 일이라는 단어를 놓고 이야기할 때 어려움이 있다.
- 노동이란 건 창조행위인데 우리사회에서 노동운동이 타율노동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 같다. 노동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노동조건, 임금을 올리고 시간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만 보는 것은 아닌가? 노동의 창조행위, 자기실현 같은 사례들을 잘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50만원 정도를 벌어서 생계를 꾸려가려는 오늘의공작소 같은)
-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 일자리 수의 한계 같은 것들을 현실로 인정하고 다음을 고민해야하는 것 같다.
- 결혼도 다가오고, 예전에는 그런 불안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해졌고 그런 현실들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마냥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게 되는.
- 사회적 소득이라고 하는 것(실제 소득 외에 여러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이 라는 것이 올라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능하는 일들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
- 일자리 문제는 기존의 일자리들을 잘 나누는 것들을 공공이든 어디든 시작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청소년의 사례에서 보면 통경험이 중요한 것 같다. 통째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완결지어 본 경험을 한 친구들이 뻘쳐라든지 무언가 도전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례들이 있다. 겁이 없어지는 거다.

현재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그 중에 서도 청년은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 노동시장진입을 포기한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나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한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과도한 스펙 쌓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성장시대의 일자리에 대한 다른 해석과 삶의 양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생활가능한 수준의 임금보장, 사회보험 지원 개선, 실업부조제도, 사회적 협력과 협약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청년고용할당제, 공공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 일자리 수의 한계 같은 것들을 현실로 인정하고 다음을 고민해야한다. 새로운 사회를 대비한 “청년”, “일”, “자리” 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해석과 준비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정책과 연계되어야 할지 청년들의 삶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나누는 자리였다. 오늘, 지금의 일상이 모여 우리의 삶을 축적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일상폴폴과 함께 기대해본다.



3/19 불편한 연구소

이원재

청년의 불편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 불편한 점들을 편하게 바꿀 수는 없을까?

청년의 불편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 불편한 점들을 편하게 바꿀 수는 없을까? 2014년 3월 20일 20:00 홍대 인근. 불편한 연구소에서는 우리들의 일상 속 불편한 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했습니다. 이번 오픈테이블은 2개의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Part. 1 청년들의 일상은 과연 편할까?

1. 지금 왜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가?



과거와 달리 현재 청년의 일상은 나날이 불편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결과 청년들의 삶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청년이라는 세대는 사회적으로 아동, 노인, 청소년 등 다른 세대를 받치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이라는 세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의가 필요하며 청년

문제에 대해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건전한 사회의 구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한다.

또한 청년이라는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중, 장년세대는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의 실질적 버팀목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노인세대는 은퇴 이후 공경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청년세대는 이들과 달리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부모, 가장, 사업가 등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청년이라는 세대에 맞춰진 정책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고 적용되고 있다.

2. 주위를 보면 일자리는 많은데 왜 청년들은 일을 하지 않는가?

다수의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묻는다. 주위를 보면 일자리도 많고 사람을 구하는 곳들이 많은데 왜 일을 하지 않느냐, 꼭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좋은 일자리' 만 고집하느냐,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지만 청년세대의 문제는 일자리의 유, 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일자리냐가 문제이다. 과거의 노동환경은 현재와 많이 다르며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할 때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지고 보면, 청년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이 일을 선택했을 경우 보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쉽게 아무 일이나 선택을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다. 삶에 대한 불안감,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높은 실업률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즉 직종에 따라 암묵적으로 계급이 정해지는 사회에서 적어도 열패감에 젖어 살고 싶지 않다는 항변이기도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대학은 인생의 필수코스이며 이에 더해 영어는 기본 그 외의 것들은 옵션으로 무장한 고스펙을 강요한다. 경제적 논리로만 따져 봐도 대학 등록금과 스펙장착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아무 일자리'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회비용적 관점에서 봐도 이견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는 '직업의 귀천은 없다' 면서 일단 일을 시작하라고 하지만 대학 졸업장과 고스펙을 요구하면서 '직업의 귀천은 있다' 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고 있다.

3.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이 이러하고 당장 변화되기 어렵다면 청년들이 최소한 먹고 살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은 조성 해주어야 한다. 당장의 비용이 아깝다고 청년을 계속 방구석으로 몰아 넣는다면 절대로 사회는 건전해지고 건강해질 수 없다. '청년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다' 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년들의 노동력이 사장되고 계속 움츠린다면 청년들이 받치고 있는 많은 세대들 역시 궁핍해질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를 증대해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그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러한 활동들이 사회 구조를 선순환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복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생산성 있는 복지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인 청년이라면 '생활급여' 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가족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계학적인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생계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노동의 즐거움을 지속할 수 있고 사회 역시 건전하게 지속될 수 있다.



한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심리 상담사를 통한 지원방법이 있지만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상담사와의 1:1이 아닌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킹 하여 본인들의 고민들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부정적 정서는 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이나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을 높여 긍정적 정서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의 일상화를 습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인 운동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운동을 안 할까?' 가 아니라 '좋은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반복되는 운동이 재미가 없어서라면 재미요인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변형하거나 혼자 운동하는 것이 싫어서라면 운동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외의 것도 지속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운동과 관련한 정보를 나누고 삶에 대한 정보도 나누면서 네트워크 된 사람들과 운동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청년' 이라는 대상을 한정해서 의견을 내는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세대들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이라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Part. 2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한 점

Q 다른 사람들과 사회이슈에 대해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회이슈는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예능감을 가지고 전달시킨다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썰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무한도전' 같은 곳에서 이슈를 재미있게 다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SNS의 방식을 차용



하여 (양쪽의 입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공정한 정보제공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오늘의 사회이슈' 같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Q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배우생활만 하고 싶은데 살려면 투잡을 해야 하네요
A 문화예술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공연 등의 활동을 노동 시간으로 산출하여 근로자의 '생활급여' 방안과 연계하여 활동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Q 과도한 업무(과로)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살이 안 빠져요
A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을 늘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당45시간 초과는 다른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여가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Q 이력서 기입사항이 너무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 같아요
A 현재 표준이력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 이에 대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시작으로 암행어사 팀을 파견하여 표준이력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Q 쓰레기통이 없는 곳이 많아요. 쓰레기를 계속 가지고 다니거나 길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A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앴으나 그 결과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오히려 미관을 망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길거리 쓰레기통을 비치하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면 좋겠다.

Q 일회용을 너무 많이 써요
A 현재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는 간편식품 등의 용기를 재사용 가능한 용기로 교체하여 반납하는 사람들에게 재사용 반납금과 함께 에코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등 지속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추가적으로 제품에 일회용품이 사용되는 사업장(원청 기준)의 경우 '매립세' 같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열띤 논의에 대해 대중 마무리를 해보니 밤 11시 20분을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청년의 불편함과 우리 생활 속 불편함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20

청년, 마을에서 놀다

KyungMin Noh

저희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메세지팩토리가 운영하고 있는 “숨 쉬는 공간, S.U.M” 에서 오픈테이블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3가지 키워드로 자신의 마을을 이야기하고, 마을에서의 놀거리와 볼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그려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오픈테이블 소개**

*** 이야기 규칙**

- 자유로운 시간
- 잘 들었습니다
- 존중하는 시간

*** 이야기 순서**

차례	프로그램	시간	내용
소개 시간	- 나는 누구? - 우.마.소	7:30~8:00	자신을 소개하고 각자의 마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
이야기 시간	- 놀거리 - 볼거리	8:00~9:00	- 마을에서의 놀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 마을에서의 볼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그리기 시간	- 내가 그린 우리 마을은?	9:00~9:30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그려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무리 시간	- 사진촬영	9:30~10:00	뒷정리 및 마무리

***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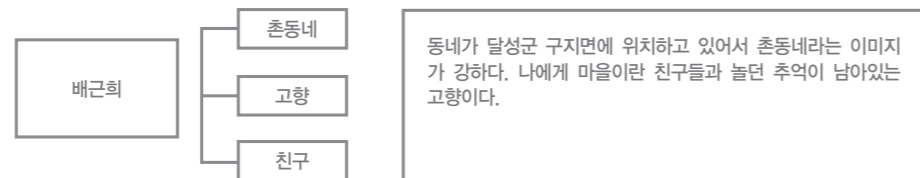
1) 주제 공유

아이 한 명이 자라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마을에서 친구들과 뛰어 놀던 기억이 생생하시죠? 예전에 마을에서 재미있게 놀았던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 수 있을지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2) 참석자

연번	소속	이름
1	강북청소년단체 너울	김원
2		홍수민
3		이다윤
4	계명대학교	배근희
5	경북대학교	김유정
6	회사원	구은지
7		배윤정
8	메세지팩토리	권순민
9		성영덕

3) 마을에 대한 3가지 Key Word



홍수민	영화관 3호선 촌+도시	우리 마을인 칠곡에 영화관이 많이 생기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편리해졌다. 또한 앞으로 3호선이 생기면 더 편리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칠곡이 예전에는 촌의 느낌이 강했는데 개발이 많이 되면서 촌과 도시가 공존하고 있다.
김유정	5일장 아파트 개발중	우리 마을(안심)에는 5일장이 열린다. 5일장은 좋은 볼거리로 열리는데 어릴 적에 작은 아파트에 살 때에는 많은 분들과 인사하면서 지냈는데 요즘은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마을도 계속해서 개발 중인 동네이다.
김원	고수 축제 벼룩시장	칠곡에서 40년 가까이 살고 있다. 마을에서 더 좋은 문화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숨은 고수들을 발굴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다양한 축제도 계속해서 열고 있는데 올해에는 청소년 주도의 버스킹축제를 열어보려 한다. 또한 제대로 된 벼룩시장도 열 계획에 있다.
배윤정	마을 가족 낯선곳	의성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마을은 유명한 특산품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특산품이 있다.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가족들이 살고 모두가 의성이 고향이다. 동네사람들도 다 알고 지낼 만큼 유대가 깊다. 하지만 17살부터 타지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은 동네 길도 잘 모를 만큼 낯선 곳이 되어 버렸다.
구은지	별 물 산	팔공산 자락에서 산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 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한다. 별도 많고 물도 좋고 산도 좋아서 별,물,산을 세 가지 키워드로 잡았다.
이다윤	자연 아이들 살기좋은	칠곡은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기에 좋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면 기분이 좋다. 요즘에는 많이 발전해서 살기도 좋고 자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성영덕	대구 변화하는 곳 추억	어린 시절에는 중구에서 살고 학창시절은 칠곡에서 그리고 학교와 직장은 달서이다 보니 대구가 전부 마을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추억들이 스며있다. 대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권순민	놀이터 공부 일터	마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생각난 것이 친구들과 뛰어 놀던 놀이터였다. 마을은 동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친구들과의 추억이 많다. 하지만 대학교는 구미에서 다니면서 그 곳 또한 내 생활 터전이었고 지금은 이곳 두류동이 일터로서 새로운 나의 마을이 되어 가고 있다.

*2부

▶이야기 시간 : 마을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과거, 현재 그리고 마을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

1) 주제. 놀거리

- 어린 시절 놀거리를 생각하면 오락실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다. DDR 같은 것들을 친구들과 하면서 놀았었다.
- 촌에는 오락실도 없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마니또 하고 자전거 타고 놀러다니고 산에 가서 놀았다.
- 오락실이라고 하니 추억이 생긴다. 친구들과 오락실 기계에 동전 구멍낸 것을 넣어서 공짜로 하거나 라이터 전기충격으로 공짜로 했었다. 공중전화 공짜로 통화하기도 많이 했었다.
- 요즘 아이들에게는 추억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추구 한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그렇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놀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
- 마을 그리고 놀거리라고 하니 친구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다. 어릴 적에 종이인형 가지고 놀거나 뽀기, 고무딱지치기 이런 거 많이 하고 놀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난다.
- 요즘에는 그런 놀이할 공터가 딱히 없는 것 같다. 땅따먹기도 재미있게 했었는데 아스팔트 바닥에 그리기도 힘들고 재미도 없는 게 사실이다.
- 동네마다 놀이의 룰과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편가르기 할 때 하는 구호도 다 달랐다.
- 발야구 규칙은 지역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미리 공지하지 않으면 싸움난다.
- 봉봉(텀블링)도 많이 하고 놀았었는데 지금은 시간당 이용료도 많이 올랐더라.

- 놀거리에 대한 주제에서는 주로 친구들과의 추억들과 놀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
- 요즘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들이 존재
- 아이들이 관계를 맺으며 마을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놀거리에 대한 '같이' 라는 가치를 만들 필요

2) 주제. 볼거리

- 5일장과 같은 시장이 즐거운 볼거리인 것 같다.
- 질문) 시골에 장이 열리지 않으면 장을 못 보는 건가?
- 답) 그래서 장돌뱅이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었다. 그와 비슷한 것으로 예전에 홍삼, 인삼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었다.
- 길이 많이 변했다.
- 예전에는 걸어서 3시간씩 걸리던 길이 지금은 편리하고 빠르게 다닐 수 있다.
- 어릴 적에 극장과 레슬링이 큰 볼거리였다. 극장이 잘 없다 보니 숨어 들어가서 보고 도망 나오고 그랬었다. 있을 수 없는 추억?으로 만화영화 관람 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찾아오고 그랬었다. 당연히 집으로 가야 했지만 만화에 대한 욕심으로 엄마에게 반항했었다. 이 기억이 떠오른다.
-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고 하면 안되는 행동이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있다.
-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다방이 동네마다 많이 있었다. 배달원에 대한 비속어로 오봉순이라고 불렀었다.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불렀다가 엄청 혼난 기억이 있다.
- 어릴 때 옛장수나 칼같이 아저씨들이 동네로 오시면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해주셨다.
- 모기차(방구차) 따라다니던 것도 추억이었다.

- 아저씨한테 잘 보이면 더 많이 싸주시고 그랬었다.
- 예전에 왜관에 살 때 미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때 감자주먹 날렸다가 도망가던 기억이 있다.
- 지금은 개인화되다 보니 예전에 비하여 볼거리, 놀거리들이 많이 사라졌다.

- 볼거리에 대한 주제에서는 주로 마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주를 이룸
- 추억 속 볼거리들에 대한 이야기도 친구, 마을사람들과의 관계가 주축
- 사라져가는 마을 속 볼거리에 대한 보존과 개발이 필요
- 볼거리와 놀거리에 대한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

▶그리기 시간 :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마을을 그려보고 그린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김원 (강북청소년단체 너울)



-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 강 옆 둔치에서는 공연장과 쉼터 그리고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마을" 입니다
- 좋은 시설과 좋은 문화가 만나서 좋은 마을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2) 배윤정 (회사원)



- 내가 생각하는 마을은 "모두가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자매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가장 친한 친구들도 가까운 곳에서 모여 사는 것입니다
- 파티장과 공연장, 정자를 만들어서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 마을에 동물도 키우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3) 구은지(회사원)



-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농사를 지으시며 함께 살고 있으며, 야채가게를 뒤서 은퇴 후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벽화를 벽에 만드시는 일을 통해 소통합니다
- 열심히 일하신 아버지들께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나 엄마들이 요리, 뜨개질 등의 재능 나눔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 우리 애기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통해 층간소음 걱정 없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 이다윤 (강북청소년단체 너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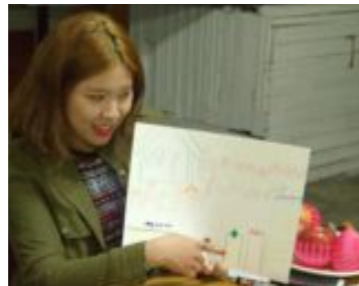
- 내가 생각하는 마을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마을과 유사합니다
- 제가 어렸을 시절처럼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으며, 마을에 있는 강에서 수영도 하고 놀고 싶습니다
- 여러 가지 여가시설도 함께 있어 지냅니다
- 여러 동물들이 사람을 겁내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편안한 마을입니다
- 편리한 시설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5) 김유정 (경북대학교)



-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편의시설들이 너무 멀리 있어 E-마트나 CGV 등의 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가까운 곳에 공원 시설이 잘 이루어져 있고, 지압판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편리함을 강조한 마을로 편안하면서도 자연이 가까운 마을을 생각합니다

6) 홍수민 (강북청소년단체 너울)



- 마을에 자연환경과 편리한 시설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 가까운 거리에 편의 시설들이 있어서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 영화관을 비롯한 편의시설도 있고 큰 엔터테인먼트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엑소를 좋아해서 생각한 아이디어입니다

7) 배근희 (계명대학교)



- 대구에만 살다보니 바다를 보기 힘들지만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생각 "바다 옆에 위치한 마을" 입니다
- 현대적인 아파트와 전통적인 한옥이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 고양이와 개들이 천대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자연과 도시가 함께 어울리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 성영덕(메세지팩토리)



- 내가 생각하는 마을은 "모두가 살기 좋은 대구~" 입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청소년들도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입니다
- 나무와 강물도 맑아 자연도 깨끗하게 보존하며 살아갑니다
- 돈 걱정 없고, 전쟁이 없는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마무리

마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억들 그리고 기억들을 함께 나누고 동시에 서로가 생각하는 마을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같이'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추억 속 이야기에서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현재의 이야기에서는 '관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마을의 모습은 현실이 되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 마을에서 놀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청년, 마을에서 놀 예정'입니다.

3/20 위기청소년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신바다

위기청소년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해결 방안

*참여자: 5명

1. 신바다 / 31세 / 서울 / 사회적기업 자리(주) 대표
2. 조축인 / 28세 / 안산 / 백수
3. 신윤정 / 27세 / 서울 / 디자이너
4. 김국희 / 31세 / 서울 / 아티스트, 기획자
5. 김정은 / 31세 / 서울 / 게임 기획자

*주제: 위기청소년의 원인과 현황(인식), 그리고 해결 방안

위기청소년의 정의 : 가정이라는 1차적 안전망과 학교라는 2차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청소년 → 범죄에 쉽게 노출

가정에서 사회적 보호막을 찾지 못한 청소년은 거리로 나와 범죄를 유발하는 주체가 됨

• 위기청소년을 양산하는 불우한 가정

- 불우한 가정환경은 충동성, 불안 등 정신적 불안을 초래하며, 이는 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몰리게 함

•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가출 청소년

- 서울시에서 18,578명(1.5%)의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서고 있다. 매년 1.1%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떠나고 있으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2012)
- 만 14~19세 가출청소년 2007년 1만 2,237명에서 2011년 2만434명으로 증가

사회적 편견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 학업 부진, 범죄 경력 등 어두운 과거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취업의 기회를 얻기 힘들



제한된 일자리

일명 '블루칼라'라 일컬어지는 단순 기술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수. 일자리를 얻더라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함



성인이 되어도 자립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범죄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

청소년들의 이야기

“가난 때문에 가장이 되어야만 했고, 아버지의 폭력으로 가족과의 헤어짐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위기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꿈꾸고, 나를 위한 인생을 그려갑니다. 다른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며, 청소년들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학교생활 밤에는 TM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까지 세 식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버거웠기에 꿈을 꾀다는 제가 창피하였습니다... (홍xx, 22세)

바리스타가 꿈인 저는 커피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교육전부터 굉장히 떨렸어요. 커피 교육을 계속 받아서 학교 안 '비반트카페'에서 일하고싶어요.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고 사람들이 행복해 졌으면 좋겠어요... (김xx, 20세)

어릴 적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는 바다에서 갯지렁이를 잡는 일을 하십니다. 소득이 없는 매년 겨울이 보릿고개와 같았습니다. 사춘기 시절 가솔은 물론 술 담배까지 해가며 방황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저를 잡아주신 것은 제가 원망하던 아버지였습니다... (윤xx, 19세)

커피향기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커피는 손님들에게 즐거움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커피로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xx,21세)

아버지의 알코올중독과 폭력으로 어머니, 남동생과 쉼터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여러 번 가솔도 하였지만 지금은 쉼터에서 열심히 자립 준비를 하여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임xx, 20세)

이번 교육을 참여하게 되면서 나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훌훌 털어버리고 아오로 나아가는 계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더 큰 것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생활에 활력이 됩니다... (이xx, 21세)

거리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명목의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들에게 부담스럽고, 도움이 되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

“가출청소년 쉼터, ‘모범생’ 지향 탈피, 개별사례 맞는 자립 프로그램 마련을” (2013.06.05. 한겨레)
현재 전국에는 청소년을 위한 일시 쉼터 10곳, 단기쉼터 46곳, 중장기쉼터 25곳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엄격한 규율과 통제 탓에 가출 청소년들로 부터 외면 받고 있다...
조사팀은 “새로운 방식의 가출 청소년 쉼터가 마련돼야 한다”며 “쉼터가 ‘모범생’ 아이들의 행동 양식에 맞춰 설계돼선 안 되며 가출한 10대에게 맞는 자립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구실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질적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 프로그램

지켜야 할 수많은 규율과 통제

➡ '가정' 과도 같은 '쉼' 공간의 필요. 자립을 위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육의 필요

결론 → 아직 국내에는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완벽히 지원 하는 조직은 없으며, 완전한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감이 되어줄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자리(주) 와 같은 훌륭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함.



02 4) 일과 삶의 자리 구축 - 균형을 넘어 공존으로 협업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3/21 함께 뛰는 법을 잇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활프로젝트

백현석

- 행사개요**
- * 일시: 2014년 3월 21일(금) 오후2시 ~ 4시
 - * 장소: 서교동 씽크카페
 - * 주최: 국회 김현미의원실
 - * 전체 참석자: 총 17명
 - * 주요 참석자 명단
 - 국회 김현미 국회의원, 백현석 보좌관
 - 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 최영덕 이사장, 정선진 상임이사
 - 프레시안협동조합 허환주 기자
 - 인생이모작센터 원창수 사무국장
 - 고양시 백규선 택시기사
 - 동네빵네협동조합 신희준 이사
 - 대리운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 이상국 본부장
 - 고양가구협동조합 강점희 조합장, 전창렬 조합원
 - 사회혁신공간 'There' 정상훈 사무처장
 - * 주요 내용
 - 베이비부머 세대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문제임
 - 정부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펼쳐지고 있고,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들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개별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나, 더 근본적인 것은 '협동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임
 -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를 흔히 50대와 20대 간의 일자리 싸움으로 보는데, 중년의 기술과 자본이 청년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서로 합쳐서 협업한다면 두 세대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녹취내용**
인사말

(백현석 보좌관)

오늘 테이블 진행은 첫째 '왜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논의를 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대를 통한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대안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김현미 국회의원)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마련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포플'이라는 테이블을 마련했기에 나눠드린 안내 자료와 같이 베이비부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제가 마침 베이비부머에 관련된 책을 썼기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어 함께 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1963년까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세대가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다. 이 세대들이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했다. 옛날에는 은퇴를 한 후 별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은퇴 후 30년 동안 새로운 인생을 살고 10년을 앓다가 돌아가신다. 생애 주기가 바뀐 것이다.

사람들이 대개 은퇴 후에 닥친 환경을 나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재주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로 태어난 사람들의 공통의 문제이다. 그래서 개인들에게만 문제를 맡겨놔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고 자살율도 높다.

지금 이 50대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이 세대 전체가 빈곤층으로 추락한다. 엄청난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못 나서 이런 세상이 온 것이 아니고, 이런 세상의 변화를 극복하고 잘 살아가서 인생의 후반기에도 잘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겠다.

50대는 부모님 모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결혼, 취업 문제를 짊어지고 있고 본인의 노후문제도 남아있는 등 잘 아시다시피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이전에는 이것을 다 개인들이 해결하려고 했고, 이에 따라 자영업 등 개인사업을 하면서 모아 놓은 자금을 소진했다.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열악하다 보니 '함께 하자' 해서 협동조합도 많이 생겼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셨고 또 극복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함께 이야기 해보자. 아이디어를 푹푹 내주시면 '일상포플'이라는 이 행사의 취지가 살 것 같다.

본론

(대리운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

내년에 만 나이로 60이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들어가 있다. 난 뭇 모르고 살았다. 과거에는 뭐든지 다 잘 됐다. 열심히만 하면 잘 되는 시대에 살았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급성장을 하는 보통의 시대에 보통으로 따라가면 쫓아갈 수 있었다. 돈도 쉽게 만져봤는데 IMF가 정점이었다. 일반적으로 전체 사회가 급성장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세대 같은 경우 모든 일을 쉽게 투자하고 쉽게 덤빈다.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세월이 지나 다 까먹고 나니까 '아 내가 세상 쉽게 살았구나' 라고 느꼈다.

이제 오직 내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때가 왔다. 지금은 어느덧 '부모'가 되어버렸는데 아이들은 나같이 살지 말라며 전부 투자한다. 아이들한테 투자한 금액이 내가 노후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자금과 맞먹는다. 아이들 유학비의 절반 정도를 내가 갖고 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길, "아들한테 사기당하는 거다" 라고 했다. 그런데 후회는 없다. 큰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못 버는 건 아니다. 먹고 살만 하다. 전기설계분야로 나가서 5천만원 연봉이고 며느리도 외국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들보다 더 낫다. 그런데 둘이 사는 거 보면 빠듯하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용돈 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 난 부모님도 돌아가셨을 때까지 모셨고, 새끼도 키웠고, 내가 죽을 자리도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만들어야 되는 샌드위치 세대이다.

(백규선 고양시 택시기사)

저희들이 처음 택시를 시작했던 시절에는 단칸방에 사과 껍질을 갖다놓아도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졌다.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대로 사업조합이 있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사업조합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나마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일부는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다.

택시가 중장기 계획으로 1차 5개년, 2차 5개년 이렇게 하다 보니 전국에 택시가 과잉 공급되어 택시를 증차할 수 없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택시도 늘어났는데 인구가 줄어들다보니 어려워졌다. 대도시 같은 경우 그나마 낫지만 지역은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없고 정부가 신규 발급도 안 해주다 보니 힘들었다.

2009년 9월 10일 개인택시가 신규 발급되었던 적이 있다. 이 대상자들 중 작년 말까지 사망자가 20명이 나왔다. 전부 50대 베이비부머이다. 그 중 자살이 6명이다. 그 자살의 원인이 전부 다 금전적인 문제였다. 현재 중증환자가 14명이 있다. 이 중 6명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저희 세대가 그런 세대이다. 포기를 하게 된다. 왜?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진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택시들도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 해법을 여기서 찾고 싶다.

(동네빵집협동조합 신홍준 이사)

만나서 반갑다. 저 같은 경우에는 52년생이다. 제가 빵을 배운 이유는 배가 고파서였다. 시골에서 올라와 잠자리가 어려울 때였는데 빵집은 잠도 채워주고 밥도 주는 가게였다. 그래서 들어왔다. 후회는 안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일했다. 거기 있어야지 밥을 굶지 않았다. 쉬는 날이 없었다. 그래서 '나도 내 가게 하나 가져서 자식들과 살아보자' 오직 이 생각으로 일했다. 그때는 빵이 달면 다 팔렸다. 잘 되었다.

80년대 중반부터 개인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98년 이후 대형 프랜차이즈가 골목마다 들어오

기 시작했다. 기존 빵집 80%는 도산해서 문 닫고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거나 생을 포기한 사람도 나왔다. 남은 사람들끼리 길을 모색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 오죽하면 기존 10명 중 1명만 현재 빵집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만 들어왔다 하면 문 닫아야 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정확히 11명에서 힘을 합해 개인이 살 수 없는 큰 기계도 샀다. 작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주었으며, 2억2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공장을 설립하여 2월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가고 있다. 제품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 발효기간을 길게 하다 보니 2월까지 적자분이 줄어들면서 3월부터는 손익분기점에 다다른 것 같다. 지금은 프랜차이즈가 옆에 들어와도 자신이 있다. 협동조합을 이루니까 동료 후배나 직원들에게도 힘내라고 이야기 한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홍보나 마케팅 분야는 모르니까 연세대 사회혁신동아리 '인액터스' 학생들이 설립 전부터 많이 도와주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인터넷도 모르는데, 일주일에 3~4번 만나서 팜플렛도 만들어주어 각 매장에도 비치해 놓는다. 저온숙성해서 긴 시간 발효한 빵이라는 걸 고객들은 모른다. 긴 시간 발효한 빵을 먹으면 제대로 발효했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그런 게 없다.

(고양가구협동조합 강점희 조합장)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세계적인 기업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가 있다. 작년, 재작년에는 염려하지 않았는데, 이케아가 고양시에 들어온다고 하니 가뜰이나 침체되어 있는 가구 시장에 걱정이 된다.

고양시를 흔히 '꽃의 도시' 라고 하는데 사실 꽃보다 가구가 먼저였다. 40년의 역사가 있다. 지금은 250개로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500~600개 정도 되었다. 지금 소상공인을 법으로 어떻게 살려내가가 중요하다. 모든 정책이 대기업 쪽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소상공인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뉴스에서는 무역 흑자가 난다고 하지만 대기업 쪽이다. 소상공인은 아래로 더 추락하고 있다. 오늘도 고양시의회와 사람들과 논의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지원 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

대기업을 자기자본 비율이 영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70~80%이다. 중앙정부가 자기자본 비율 정도로 지원해주면 소상공인도 금방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살, 살인 등과 같은 문제가 다 '없는 사람들' 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의원님한테 부탁드린다. 국회에 들어가셔서 그런 법안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 최영덕 이사장)

저도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이 대기업들 납품하다 보니 굉장히 힘들어서였다. 수수료로 인해 힘들다. 혼자하면 판로도 개척해야 하고 원재료비도 많이 들어가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경제구조 자체가 너무 빠르게 성장으로만 가다 보니 우리가 중간에 낀 세대가 되어서 힘든 것 같다. 앞으로 20년 정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소상공인 위주, 백화점 수수료를 낮춰준다 하는 식으로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한다.

(사회혁신공간 'There' 정상훈 사무처장)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대개 정책이란 것이 대선공약도 그렇듯 전문가들이 몇 분 오시

고 형식적인 행사 후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천차만별로 벌어진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고갈된다.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다 보면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게 된다. 물론 잘 정리된 언어로 하긴 어렵겠지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토론회 같은 경우 너무 엄숙하다. 논리 정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들을 꼬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어느 책을 보면 과학자들에게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가 나오게 되는 공간이 연구실이 아니라 연구실 옆 휴게실이라고 하더라. 사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와서 전문가 분들과 이야기하는 건 부담스럽다. 일상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면 거기서 나오는 생생한 이야기가 많을 거다. 그 중 하나가 50대, 베이비부머 세대 이야기였다. 지금 협동조합 절반이 골목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협동조합이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30% 정도가 협동조합을 고민한다.

오늘 사실 저도 배우러 나왔다. 일상폴플은 건강한 수다모임이다. 아무 이야기나 편하게 하다가 정시에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어제 참여한 일상폴플 모임의 경우에도 핵심은 '이런 경쟁과 배제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살아남기 어렵더라' 라는 것이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대기업과 싸워서 이기기 힘들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제일 필요한 건 '협동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다. 개별적인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가 중요하다.

제가 회사 다닐 때 4년간 협동조합을 해본 적 있는데, 마을에 와서는 회의가 '미치게' 많더라. 그것도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다. 항상 끝장토론식이다. 또 하나 문제는 프리라이더 문제이다. 그건 또 못 보겠더라. 그래서 제 몸에 협동조합이 안 맞았는데 4년째가 되니까 협동이 뭔지 알겠더라. 나오면서는 협동조합 감사보고서에 협동조합원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썼다.

제가 둘째가 생겨서 올해 3월부터 다시 조합에 나가기 시작했다. 달라진 건 회의가 많아진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불평이 없고, 이견이 많은 것에 대해 불만이 없고, 1명을 설득하는 데 있어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조합의 지속가능성이다.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은 협동을 조장하는 정책, 협동을 안 하면 도저히 사업비를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일정하게 협동을 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기술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협동의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전에 김현미 의원을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기존 경쟁방식에서 협동을 획득하는 건 힘들다고 본다.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냉혹하다. 어떻게 갑이 을을 대하는지를 목격했었다.

다른 가치관과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결국 베이비부머 문제는 베이비부머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문제, 세대의 문제이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삶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분단과 압축성장이라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압축적으로 모든 문제가 농축되어 있다. 지방선거에서 베이비부머를 풀 수 있는 공약이면 나왔으면 좋을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에 이른바 '부처님' 이 있다. 성인군자가 중계를 하면 잡음이 없어지더라. 또다른 세상의 가치가 필요하다.

(대리운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

어제 대통령 끝장토론의 경우도 서민들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위해 대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남북대결 상태이다 보니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다보니 정부는 서민 정책을 끝까지 주장 못 하더라.

지금 대기업은 협동조합으로 서민자본이 쌓이는 것 자체를 기피, 방해하려고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민주화가 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방해자가 있으면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면 뭐하나. 선거 때 표를 위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없던 일로 뒤집는다. 그런 부분에 있어 시민의식이 굉장히 약하다. 시민들이 무섭게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70~80%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게 되어버렸다. 모든 게 다 쏠려 있다. 그게 과연 제자리로 돌아가겠느냐. 새롭게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걸 겁을 낸다.

(백규선 고양시 택시기사)

노동조합의 경우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합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의 방해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택시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예전에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택시 최저임금법을 발의했다. 송 시장 본인이 인천에서 택시노조 사무국장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 최저임금법을 발의했는데 모 당에서 준비기간을 두어야 한다면서 그 기간을 3년, 5년 두었다. 그 사이에 고용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이다.

고양시 같은 경우 49만원을 받으면서 가스 연료를 개인이 부담했다. 사고가 나도 사고비용을 개인이 다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80~90만원 임금을 받게 된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월 209시간인데 고용주 측에서 월 132시간 근무로 줄여버렸다. 이를 노동부에 하소연하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서 문제인 요즘에 사장이 조금 일하라고 한 건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한다.

일례로 야당이 발의한 '택시선진화법'이 2013년 12월 31일부로 통과되니 모 당이 이 법을 실질적으로 2017년까지로 유예시켰다. 택시기사들이 모든 비용 전가를 하면 안 된다는 법안이고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자고 한 건데, 결론적으로 그 법을 또 피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여 준 것이다.

협동조합이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을 적시한 법을 통해 정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이를 사전에 방지해 주어야 한다.

(김현미 국회의원)

전주에 가면 '풍년제과' 라는 유명한 빵집이 있다. 옛날에 풍년제과 빵집이 얼마나 잘 되었냐면, 전주에 '고려당' 이 발을 못 붙일 정도였다. 그랬던 풍년제과가 파리바게뜨에게 졌다. 몇 년 전까지 풍년제과가 폐점 수준에까지 몰렸는데, 얼마 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풍년제과의 초코파이가 대박을 쳤다는 기사가 났더라. 전주에 내려갔을 때 물어보니 경실련에서 일했던 김병수씨가 고향인 전주에 내려가서 전주 남부시장에 청년들이 하는 오밀조밀한 카페를 만들었다. 그 때문에 남부시장도 많이 바뀌고, 청년들도 일자리 해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게 근처 한 옥마울과 연계되면서 관광코스가 되었다. 청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풍년제과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홍보했다. 작년 여름에 갔었는데, 빵집에 제품 가득 창고처럼 되어 있었고 빵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청년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 중년의 기술과 자본이 청년의 아이디어와 합쳐지면 새로운 게 탄생했다. 빵의 디자인이라던가, 맛도 젊은이들 감각과 홍보 능력 등과 연계하면 훨씬 좋아진다.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를 흔히 50대와 20대 간의 일자리 싸움으로 보는데 이 두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50대들의 일자리 현장에 20대의 아이디어를 투입하여 젊은 이들도 같이 한다면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대리운전협동조합 이상국 본부장)

연세대 사회혁신동아리 '인액터스'는 활동의 주기가 1년이라서 한계가 있다.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는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한다. 저희 대리운전 사업분야의 경우 복잡하다 보니 어려워하기도 하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일상폴플' 자리가 대리운전 차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취중진담을 이야기한다. 차를 탄 손님들은 일상의 대화,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하신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약자다'라는 걸 느낀다. 언론이나 인터넷 '아고라' 게시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있다. 부조리함, 그런 게 많더라.

어느 50대 손님이 그러더라. "우리 같은 50대는 연륜이 있어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 아닌가. 하지만 청년은 당장 자신의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다. 열심히 기반을 일궈온 50대가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래서 시장의 진입장벽이 되는 게 미안하지만 나도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급급하다. 청년들에게 부끄럽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 최영덕 이사장)

생산자들이 판매수수료를 저렴하게 해서 명소 아닌 명소를 만들 수는 없을까? 각 지역구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있을 텐데 말이다. 거대 유통사와의 싸움은 힘드니까. 롯데나 신세계의 경우 여주에도 짓고, 어디에도 짓고 한다. 외진 곳에도가 지어도 사람들이 다 찾아간다. 자치구에서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사회혁신공간 'There' 정상훈 사무처장)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청년 일자리와 안 부딪히는 부분도 있다. 지금 사실은 가게부채 빼면 제로성장 중이다. 문화예술 쪽 대학생 취업률이 굉장히 낮다. 3%대이다. 문화적 기업은 경제적 자립이 목적이다. 그 분들은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라 다른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될 것 같다. 청년 동아리는 광범위 하게 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다. 새로 뽑은 신입사원은 퇴근시간만 보고 사는데, 이쪽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꿈과 열정이 있지만 환경이 열악하다. '열정대학'이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학과로 만드는 곳이 있는데 1박2일 워크숍을 가기 위한 엔티비 5천원 때문에 안 가는 사람들이 많다. 청년들은 굉장히 바쁘다. 수업 중간에는 알바도 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 학생이 적다. 청년과 베이비부머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청년은 청년만 쳐다보고, 베이비부머는 베이비부머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 어른들은 잘 못 쓰는데 청년들은 금방 쓴다. 그래서 같이 바라보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통합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대기업 일자리는 10년째 늘어나는 게 별로 없다.

(인생이모작센터 원창수 사무국장)

다수의 고민은 조기 퇴직이다. 최근 관심은 거기에 있다. 특히 5060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일상에서 그런 미션을 보고 있다. 그런데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 오늘 논의에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 협동조합을 둘러싼 50대들로 다 빨려 들어간다. 사실 협동조합 후견인으로 가야 하는 세대가 여러 분인데, 사회적 자본을 향유하려고 한다.



한편 본질적으로 애처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을 만든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그 과실을 못 누린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관심사를 개인적인 과제로만 받아들이는 게 안타깝지만 그 또한 그 세대가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정이 교차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관심이 너무 낮다. 그래서 난감하다. 세대통합 이런 이야기 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러려면 모든 세대가 다 아픈데 20대도 50대가 어떻게 안아줄 건지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생이모작센터는 퇴직은 했지만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분들을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장을 기획하는 의도로 출발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 형편이 나빠지니 일자리나 소득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 어쩌면 우리가 당면한 50대의 과제는 현업에도 있고 현업에서 벗어난 분들에게도 있다. 60대 이상의 경우 복지의 영역이고, 작년 54세가 평균 퇴직이라고 한다. 그러면 50대 후반~60대 사이가 공백이 생긴다.

우선 다 독점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세대든, 산업 간에든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 서울시 버전의 사회적통합위원회를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 각자 조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조건과 지방정부와의 접점을 찾는.

(대리운전협동조합 이상국 본부장)

대리운전을 시작한 기사들은 지리를 모르거나 늦게 갔을 때 손님한테 받은 설움, 그런 사연들이 카페에 올라온다. 거기에 낙담해서 일을 바로 시작 못한다. 상처를 받는다. 그 분들을 빨리 적응하게 하자는 게 협동조합의 목적이었다. 참고로 대리운전 일은 오래 못 한다. 장기 손상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다리를 만들어주자는 게 목적이었다.

저희는 하루하루에 생존이 걸려 있다. 어제 대란(SK텔레콤 통신장애)이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불합리한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협동조합 설립 후 만 2년이 지났지만 그보다 훨씬 전인 5년간 협동조합을 준비해 오신 분들의 열정과 함께 계속 갈 것이다. 생존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게 별로 중요치 않다. 막연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시민들 간에 연대하는 방법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걸 운동으로 사업화해서 연대하겠다. 이런 연대가 일어나야지만 바뀐다고 본다. 하여튼 끝까지 할 것이다.

(고양가구협동조합 전창렬 조합원)

전 시골로 귀농을 해서 여기서 탈피를 하는 게 목표이다. 가구가 하향산업이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 쉽게 접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게에 마냥 앉아있는 것이다. 대책이 없다. 리바트 본사가 논현점에 있다. 제가 56년생이다. 상무님이 저랑 동갑인데, 리바트가 현대 계열사로 넘어가서 회사 전체가 인사이동으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 가슴이 굉장히 아팠다. 어느 날 상무님이 제게 "고양시에 뭐 자리 없겠습니까?" 했다.

가구매장 하시는 분들은 80%가 50대이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예전에 중앙정부에서 임대료 300만원을 주고 철거할 때 보상 하나도 못 받고 나온 적도 있다.

(대리운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

고양시에서 틈틈이 산불감시 활동을 한다. 대리운전 일로 인해 제가 밤낮이 바뀌니까 봄에 약초도 캐고 해서, 요즘은 밤에 일하고 낮에 협동조합 일을 하다 보니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앞으로 70살까지는 무난할 것 같다. 70 이후가 문제이다. '내가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든다. 10년 후에는 베이비부머가 다 노인세대로 들어간다. 그 사람들이 뭉쳐야 한다고 본다. 젊은 사람들에게 기댈 수 없으니까 말이다. 이제까지는 노인 사회가 없었다. 서울시만이 아니라 이웃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마무리말

(사회혁신공간 'There' 정상훈 사무처장)

가장 열띤 토론 모임이었다. 다음에는 맥주라도 놓고 이야기 나눠보자.

정치가 좀 과잉되어 있다 생각한다. 사회 변화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사회혁신을 돕는 법인을 만들기도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랜 역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여기 모인 분들이 뜻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졌으면 한다.

(인생이모작센터 원창수 사무국장)

여담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우리 전 세대가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되면 좀 여유를 가질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데 5060을 벌 때마다 고민을 나눈다. 현실은 각박하지만 우리에게 빨리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김현미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너무 사회적 안전망과 시스템이 없다 보니 여기서 탈락하다 보면 바로 낙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매달리다 보니 힘든 것 같아 안타깝다.

베이비부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인 분들에게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소상공인의 영역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빵집도 그렇고 가구, 구두도 그렇다.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버리고 규제 완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살벌한 상황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같이 풀어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비슷비슷한 세대끼리 모이다 보니 생각이 고갈된다. 세대끼리 만나야 반짝 반짝 아이디어가 생겨날 것이다. 예전에 송경용 신부님을 만나 뵈는 적이 있는데 경쟁과잉, 승자독식사회를 만든 책임이 50대에게도 있으니 반성해야 하고 너무 불쌍하게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

각자 자기 분야에서 느낀 점을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다음 토론의 징검다리가 되어준 것 같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6-2

테이블별 논의내용 모음

5. 사회적 협력 모델 구축

01 도시 생활 권리 선언

- 앞선 섹션에서 개제된 내용 참조

02 사회적 협력 모델 마련

[3/19] 찍을까 말까?

[3/21] 2014년도 3월 마을넷연석회의 개최!

03 사회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약 구상

[3/18]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회의

[3/20] 협동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3/20] 꿈꾸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아름다 '훈' 펀드



02 5) 사회적 협력 모델 구축 사회적 협력 모델 마련

3/19 찍을까 말까?!

장수정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 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는 없는 '그들'만의 축제가 되지는 않았나?! 그 간의 선거에 이런 소외감을 느꼈던 서대문 주민들이 모여 선거를 주제로 수다를 떨었다.

이야기의 주제는 "내가 구의원/시의원이라면?"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라는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주제였습니다. 사실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에도 선거, 구청에 대해 우리들 스스로가 평소에 원하던 것, 답답함을 느끼던 것을 중심으로 즐겁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구청장과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한 질문도 나왔고요. 구의원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도 나왔습니다.

-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 지원 조례를 발의하겠다.
- 주민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겠다.
- 마을버스 노선과 운영 개선을 시도해보겠다.
- 모든 행사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해 보겠다.
- 경로당을 마을사랑방으로 바꾸어 보겠다.
- 공무원과 주민들의 만남을 주선하겠다.
- 권역별로 주민들에게 문화,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
- 효율적인 공간 사용 방안을 고안하겠다.
- 건물을 무조건 짓기 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 불편한 인도와 차도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 노인계층의 문화 기본권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
-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을 위한 마을만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 구청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겠다.
- 구청의 업무 중 민영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돌리겠다.
- 서대문구 전체를 볼 줄 아는 구의원이 되겠다.
-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지방선거까지 찍을까? 말까? 에는 더 많은 수다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도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21 2014년도 3월 마을넷연석회의 개최!

이은미

- * 일시: 2014.03.21. 15:00~18:00
- * 장소: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층 강의실
- * 사회: 최순옥(은평상상)
- * 참석자: 박미경, 김정현, 이용희, 배기남, 강도수, 김영림, 오상화, 장성욱, 변경미, 송지현, 김시홍, 이윤복, 나호정, 박승한, 나호정, 박승한, 지혜연, 최순옥, 조옥분, 정순애, 김정민, 김동엽, 이명호, 송덕호, 서정례, 오장록, 장이정수, 민수정, 송문식, 이지연, 최진웅, 백해영, 전민주, 이은미, 남보경, 서진아, 김중호, 하경환, 김명희, 박희정, 이화열, 우민희, 조영운

* 주요논의내용

1. 자치구 마을넷 현황 공유와 토론
 - 자치구 마을넷 현황조사 개요보고
 - 자치구 연석회의 참석자간 마을넷 현황 나눔 (참여모임의 수/구청과의 관계/동네주민과의 관계 등)
2. 마을넷 연석회의 세부운영방안 토론
 - 연석회의와 연석회의 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토론
 - 1) 연석회의 지원단에서 매월 월별 계획(논의과제 중심으로) 구상하여 제시
 - 2) 자생단 / 마을넷연석회의 기능·역할에 대한 혼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 진행

마을넷은 한국사회의 신나고 즐거운 변화를 위해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마을운동의 장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생단은 서울시로부터 마을공동체 정책과 관련된 사무행정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자치구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마을넷의 좋은 사례를 스스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각 마을별로 한 장짜리로 정리한 자료로 상반기 안에는 마을넷 실제 좋은 사례들을 엮어보기로 함.



03 5) 사회적 협력 모델 구축 사회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약 구상

3/18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회의

제윤경

- * 참가단위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녹색소비자연대, 민생연대, 에듀머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희망살림, 민변 민생위
- * 논의 안건과 내용
- 1) '빛제로 새출발 캠페인'
 - 채권매입, 기금운영 등 집행에 대한 전체 사업주체는 에듀머니, 희망살림이 진행
 - 네트워크가 올해 주로 다루려고 하는 의제, 사업기조와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판단함.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할 사업계획을 정리해서 '빛제로 새출발 캠페인'으로 진행하자. 단, 단체별 역할을 정하고, 사업별 기획초안 마련해서 함께 논의하자.

〈'빛제로 새출발 캠페인' 네트워크 사업계획 틀거리〉

- ① 채무자 상담
 - 1차 상담: 콜센터 운영, 1차 상담카드 작성 포맷정리, 전화회선은 단체별로 1개씩 열기(1차상담- 희망살림,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해오름/ 채권조회- 녹색연)
 - 2차 상담: 상담 전문인력 있는 해오름, 에듀머니, 민생연대에서 유형별, 분야별로 나눠서 상담(에듀머니- 금융복지/ 해오름- 금융피해, 파산/ 민생연대- 부당이득금 환수, 채무부존재 확인)
- ② 채권매입자금 모금 일일호프
 - 일일호프형태 모금파티 4월 3일 진행
 - 희망살림 기획안 작성
- ③ 토론회- 채무자 지원, 불합리한 채무관련 제도 문제제기, 사회적 운동 확산
 - 부실채권시장 현황 고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넘겨 추심하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제제기
 -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 상담기구 제안
 -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문제점
 - 희망살림 기획안 작성
- ④ 채권소각 및 한국판 롤링주빌리운동 선언 퍼포먼스
 - 희망살림, 금융정의연대 기획안 작성

- 2) 네트워크 가입문제
 - 네트워크에 다른 단체들이 가입할 때는 이미 가입된 단체들의 전체 의사를 확인하고 하자. 면책자 클럽이나 금융피해자협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함께 회의(금융피해자연석회의)를 진행해오던 해오름에서 연락하고 네트워크와는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으로 정리하자.
 - 네트워크 가입이 되어있지만 회의에 연속해서 불참하거나 사업집행에서 역할이 없는 단체들 같은 경우 규칙을 정해서 공지하고, 정확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
 - 정관, 회의규칙 정리하자.(예, 회의 3번 이상 불참 시 네트워크 탈퇴)

3) 법, 제도 개선 관련

- 대부업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대응 의견서나 기자회견
- 현재 네트워크 차원 별도 대응 필요 없고, 4월 국회에서 대부업광고 관련 법안개정 이슈되기 전에 고민하자.

논의 결과에 따른 과제

- 2.27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논평 : 논평내용이 좋았다는 평가
- 민변 민생위 참여 문제는 담당 간사가 정해져야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음
- '빛제로 새출발 캠페인' 네트워크 차원으로 진행할 사업 계획 정리

'빛제로 새출발 캠페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없이 모금운동(일일호프)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인들에게 이 캠페인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키고 공감대와 여론형성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음. 따라서 일일호프 방식의 술만 파는 모금운동보다 먼저 '기금모금 디너파티'를 열어 재미있고 유쾌하게 파티를 하자. 썰전 방식의 토론회로 사전행사를 먼저 진행하여 비정한 채권거래 현실과 부조리한 채권사의 행태를 알리고 채권경매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사업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또한 금소넷 뿐만 아니라 청년단체 지역 사회적 네트워크단체 등 영역을 넓혀서 많은 단체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진행. 파티 이후 부실채권 소각 행사 및 한국판 롤링주빌리 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더욱 가열차게 여론을 형성한 후 추가 모금행사 진행하자.

* 다음회의 3월 27일 오전 10시 에듀머니

3/20 협동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우영승

〈토론주제〉

현 우리나라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사회적경제 내에 협동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실진단 공유〉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협동 불가능
- '1000개의 사회적기업 육성' 과 같은 양적 목표 설정으로 효율적 자금 사용 불가능
- 지원금 사용 규제 심하고 용처에 대한 고민이 우선하다보면 편법이 발생하고 서로 눈감아주는 악습이 발생하게 됨
- 담당 공무원 평균임기가 짧아(과장1년 미만) 주체 의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수정/보완 하는 작업보다는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것을 중요시여길 수밖에 없는 구조.
- 지원을 받기 위해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직원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지원금을 받기위해 프로젝트를 만든다. 원래의 정체성, 목적이 흐려진다.

〈개선방향 논의〉

- 중앙정부는 현실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지원금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1년에 2, 3번씩 2박3일간 워크숍을 진행할 경우, 협동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 외부의 돈은 전체 사업비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
- 자치단체들이 돈을 관리할 경우 처음에는 권력다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서 수직적인 협동이 아닌 수평적인 협동을 한다. 핵심은 분권화
-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 분야에 맞게 상한선을 책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 생태계는 상호의존성과 상호협동이 기반이 되어야 혁신이 일어난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3/20 꿈꾸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아름다 '훈' 펀드

Seunghun Oh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아름다 '훈' 펀드의 첫모임이 있었습니다. 꿈은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도전이어야 하지만, 그런 꿈을 꾸기에 현실은 너무 각박합니다. 여러 지원 제도가 많지만,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위 '성공의 조건' 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도전정신이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열심히 살았다면 실패해도 좋다는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름다 '훈' 펀드>입니다. 아름다 '훈' 펀드는 이런 꿈을 꾸고 도전하며,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또 다시 도전하는 청년 2명에게 각각 매월 100만원씩 1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그 흔한 영수증도 없고, 보고서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주 한 잔 마시며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이 소주 미팅 자리에 참여해, 함께 청년들을 응원해 줄 분들이 소주펀드 참가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아름다 '훈' 펀드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훈' 펀드 신청자 18명, 소주 펀드 3명, 주최 측 2명이 모여서 조촐하게 파티를 열었습니다. 신청자 18명의 소개와 꿈을 듣고, 서로를 알기 위한 '네트워크 빙고 게임' 도 가졌습니다.

18명의 청년은 열여덟의 삶과 열여덟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의 꿈이 옳다 그르다, 혹은 더 멋지다 아니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꿈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응원 대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응원하는 자리를 오픈테이블로 열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꿈을 꾸지 않는다는 사회의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편견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이야기할 자리가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꿈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마음껏 도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제도와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 '훈' 펀드의 경제적 지원은 두 명에게만 하지만, 청년들의 꿈을 세상에 알리고 도전을 지원하는 데도 힘써야 함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 심사에 들어가는 데, 수시로 그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아름다 '훈' 펀드 페이스북 그룹 : <https://www.facebook.com/groups/hun.fund/>





07

함께 하는
사람들 (공저그룹)



07

함께 하는 사람들(공저그룹)

1 테이블제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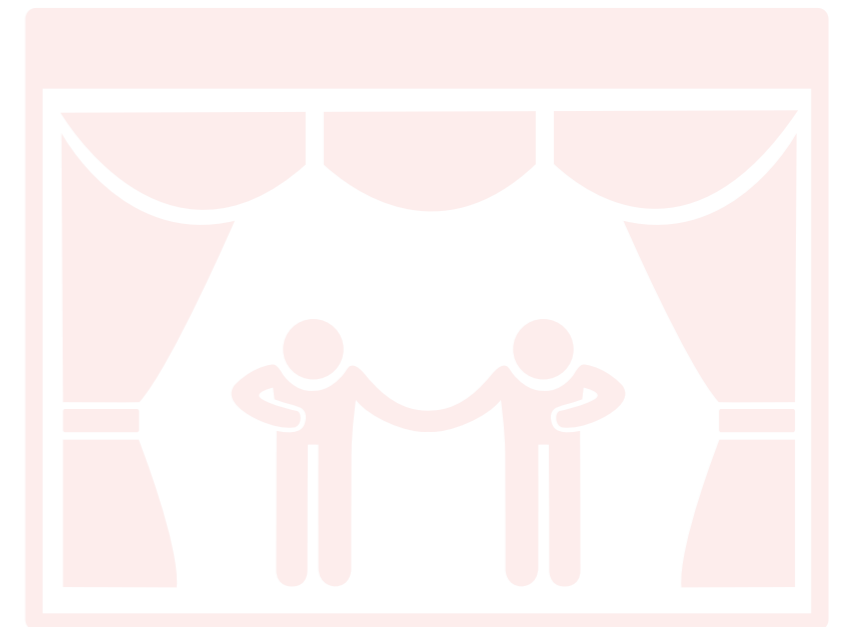
사회혁신공간데어 / UFOfactory / 종로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 미나리 하우스 / 토닥토닥 대표 이영희 / 모기동 마을예술창작소 & 숙영원 / 정상훈 / 벨류가든 신은희 / 영주산마을협동조합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빈스자리 / 이원재 / 사단법인 마을 / 꼬끼리 / 양재성 / ZATTO FACTORY_김규식 / 서대문 <찍을까?말까?> 카카오그룹 / 서울소셜스탠다드 김하나 / 구유희 / 원종호 / 새동네연구소 / 김영주(달) / 송수민 / 000간[공공공간] / 마을미디어네트워크 / 대전 청년고리 / 사) 동래금정장애인부모회 /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송지용 고스트미팅클럽 (지방 청년 네트워크) 지방's(지역 청년생태계 조직 팀) / 최지선영 / TKDS / 이수형 / 시민토론헬고 모토 / 이유진 / 독립과 협동사이 / 막내 스텝 모여요 / 정남진 아카데미 / 주수원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박효진 / Let's B party / 신촌공화국 / 백해영 / 서울시복지재단 보광마을살이 / 유승찬 / 김준열 / 민달팽이 유니온 / 노경민 / 김지아 / 청년허브 일자리사업단 (work@youthhub.kr) / 창의공작소 / 벨류가든, 어반소사이어티 / 강남종합사회복지관 / 서초사회적경제창업단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국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기획국장 오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홍보국장 한 채영 / 조반장 / 씨네에그 조준용 / 강동구 사회적경제 특화사업단 / 김영 / 제윤경(에듀머니) / (주)에코인블랭크 / 케이 / 책읽는 마을 북카페 / 국회 김현미의원실 / 아름다'훈' 펀드 / (사)커뮤니티와경제 / (재)서울그린트러스트 / 마을기업사업단 / 협동조합 청춘 (前 갯골에농장) / 김명신 / 윤전우

2 함께 하는 공간

씽크카페 / 오요리 / 카페슬로비 / 무대륙 / 그문화다방 / 카페바인 / (서대문) 얼티즌카페 / (강북) 재미난카페 / (동작) 카페사이시옷 / (구로)가린열북카페

3 텀블벅 후원자

가형진 / 고두환 / 기은환 / 김건학 / 김광수 / 김규남 / 김규식 / 김나연 / 김대규 / 김성환 / 김승수 / 김신곤 / 김아하 / 김영춘 / 김용기 / 김지훈 / 김현미 / 문한식 / 민경배 / 민현범 / 박정미 / 박종진 / 배민수 / 백현석 / 사회혁신공간 데어 / 서정주 / 송아영 / 시스 / 싹룩팬더 / 안도빈 / 양동수 / 오소이 / 오창호 / 우해량 / 유호근 / 윤정숙 / 이강오 / 이두행 / 이석형 / 이원재 / 장상미 / 전영훈 / 전효관 / 정근영 / 정동헌 / 정보근 / 정상무 / 정상훈 / 조아신 / 조주연 / 차백산 / 천호균 / 최영민 / 하경주 / 하승창 / 하정진 / 한바다 / 한영미 / 허경 / 허성만 / 허성희 / 홍정혜 / Dongno Kim / Eunho Lee / Eunhwa Ryou / Hailey An / HyoJung Sung / Hyok-key Song / Hyung Rok Song / HyunKyung Jo / Jaeun Lee / Jawoon Lim / Ji Hwan Choi / Ji young Stranger / Jiyeon Jeong / jolly / KeongSun Kim / Kiemin kim / Lee Sol / Manhee Kin / Mi Hyang Park / Min Young Kim / Nam Jung / Nayoon Heo / Nown Kim / Slowalk / Yo Seung Mya / Young Ju Kim / Yumi Seo





08

부록

- 1부 | 오프닝 녹취 및 후기
- 2부 | 클로징 결과정리 및 후기



1부

오프킹 토크콘서트 <일상의 전환을 말하다> 녹취록

1-1 조한혜정 /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거대한 전환 - 마을 교실의 시대를 열며

안녕하세요. 오늘 황사도 있는데 이렇게 오셔서, 뭘 들으시려구. 저희 오빠가 정신과 의산데 저한테 60살 됐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탕만 뛰여라. 근데 제가 오늘 두 번째 탕이예요. 그래서 뭐하는 인생인가. 올해 은퇴도 했고. 정말 한탕만 뛰면서 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을 만나려고 제가 두 탕을 뛰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15분 동안 이야기 하는 거니까 몇 개 물어볼게요. 설국열차 영화 보신 분들 손들어보세요. 앨리스용. 또 뭐가 있지 아바타. 정말 뭐 볼 거 다보고 다니시는군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거죠? 사실은 이제 그것을 나타낸 3분짜리 '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했는데 안 봐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예 안볼거구요. 어쨌든 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맨'. 스티브 컷츠가 한 굉장히 재미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를 50만년의 역사를 어떻게 사냥꾼들이 진화를 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자원들을 독점하고 쓰레기통을 만들어놓고 결국 외계인들에 의해서 밝혀 버리는지를 그린 굉장히 재미난 애니메이션이구요. 어쨌든 지금 초미세먼지, 황사, 이런 환경문제로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시대에 얘기를 낳은 사람은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발전 이런 것도 사실은 전혀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하면서 마을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영상이거든요. 그냥 '맨'이라고 치면 유튜브에 엄청 재미난 3분짜리 동영상 있습니다. 생략하구요.

세상이 망한다는거 우리가 IMF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건 아시아적인 맥락이고요. 전 세계 우리가 이제 도망을 갈 데가 없다. 제대로 잘 하는 나라가 없으니 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2008년 뉴욕의 금융 월가파동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체제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주식회사 체제도 아니고 파생상품이라는 돈이 돈을 벌고 사기를 치는 금융 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도 인간은 워낙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잘 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정신을 차릴거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터지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제대로 가겠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이 뉴스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배운 사람 안배운사람 할 것 없이 세상이 이렇게 가선 안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글로벌 시민들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독일에서, 가장 요새 경제도 막강하고 잘하는 나라죠. 여기서도 소통과 공감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해냈어요.

그런 합의를 해내는 의기와 능력 있는걸 보여줬죠. 그래서 2020년에는 핵발전소를 다 문을 닫기로 했죠.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결정을 했고 그렇게 닫으면서 재생에너지로 가기로 시작을 했고 실제로 재생에너지는 거대하게 가서는 안 되고 지역별로 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에너지를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전기 값이 엄청 싸고 에너지를 엄청 낭비하고 있는 나라에 속해요. 그래서 그걸 줄여야 되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할 때는 사실은 청년들 직장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사람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전문가들을 데려가는 정도. 한국사회가 그렇게 전환을 해낼 수만 있다면 한국사회도 청년실업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는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으로 안가고 있죠. 한국사회가 굉장히 압축적인 근대화, 서양을 정신없이 따라가고, 좋은 건 따라가지 않고 나쁜 것만 따라가고. 그리고 특히 이제 돈, 경제성장, 어떤 식으로든 국가에 경기를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식의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에서도 계속 그런 당들이 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교육하고 청년들과 관련시켜서 보면 이게 'Pink Floyd'의 'The Wall'이라는 노래랑 관련된 장면인데 대량생산체제는 더 이상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개별적으로 소량생산 체제로 가고 있고, 모두가 개성있는 인간이 돼야되고 모두가 창의적이고 문화산

업 쪽으로 가야되고, 모두가 공장에서 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여러분처럼 창의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키운 때가 있었고. 한국의 경우는 90년대, 서양의 경우는 그것보다 일찍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제가 관여하는 하자센터 친구들 사진인데 90년대 후반에 많은 아이들이 서태지와 아이들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디자이너가 되겠다던가, 영화를 만들겠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개성 있는 작업들을 하기시작하고, 대안학교도 생기기시작하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자기 색깔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겠구나 그런 기대를 90년대 했고 사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경기, 월드컵 4강 할 때 한국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엄청나게 멋지고 개성 있고 창의적으로 성장 했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축하했던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억을 하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한국사회가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97년의 충격에 의해서, IMF 충격에 의해서, 한쪽에서는 계속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엄마들이 다 학원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대학에서도 너희들 제대로 스펙 안 쌓으면 직장도 없을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사실은 직장이 없어지죠. 직장이 없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죠? 왜 옛날 같으면 대기업에서 과장 한명이 스무 명을 데리고 일을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인터넷이 생겨서 2000명도 다 혼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화로 가니까 직장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정책은 직장을 없애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실업은 정말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나라에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대학에서도 이른바 신자유주의 물결, 시장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개인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자유로운 대로 가는데. 그래서 이게 고대에서 친 광고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고대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연대에 있었던 사람으로써 조금 미안한 합니다.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은 없구요. 총장님이 명문을 버렸다. 조국을 등져라, 세계를 탐하라 이런 것이 이른바 명문대에 나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세상이 바뀐 것이죠. 그죠? 특히 민족고대가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그래서 신자유주의 물결이 굉장히 세져요. 오히려 창의적이 되고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세상을, 다품종소량생산체계건, 문화적인, 이른바 선진국들이 가는 소통과 돌봄과 좀 더 고양된 삶을, 좀 더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경쟁이 더 심화되는 그래서 한번 탈락하면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도태한다. 그리고 시장화, 기업화, 기술 관료화, 대형화, 힘의 정치. 지난번에 중앙대학교에 이사장이 기업에 있는 분이 와서 "100만원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키울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만원도 안 받기로 한거죠. 더 즐거운 일을 하는거죠. 아닌가요? 이런 식의 어떤 2~300만원 대기업, 그리고 금융을 만지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 사회를 좋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돈을 버는 것만 중요하고 생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뤄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간과되기 시작하죠. 제가 대학생들한테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네 개의 이미지로 표현하라고 했더니 이런 것이 나왔는데. 보통 대학에 와서는 죽어라고 놀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을 텐데. 대학 와서도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살아갔고, 이 동영상에 있는데 이걸 못 보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약 소리 내면서 하는, 거의 다 봤을 것 같은데, 그냥 한달음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그림이죠. 이제는 실제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 대학생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사람을 돌보고, 스스로 너가 돌보고, 그래서 너가 실패하면 전부 너 책임이야 라는 사회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청년실업, 그



리고 지속 불가능한 삶. 최근에 많은 분들이 자살을 했고 저는 그게 사회적 타살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렇게 멋지게 되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저는 이 '안녕들하십니까?'가 그 정치의 흐름에 굉장한 성찰의 기운이 잠재해 있다는 걸 굉장히 잘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들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옛날 80년대 90년대처럼 거대하게 전부 뭐 거리에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변화가 올 것 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모든 것이 대기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강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은 3M-Money, Market, Me밖에 모르는 세상-인데, 3E라고 탁월하고(Excellence), 원가에 관련이 되어 있고(Engaged), 윤리적인 존재(Ethic)로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지금 이 체제를 바꿀 수 없을 것 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되어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거야.

그런데 생각보다 변화가 잘, 문제가 잘 안 풀려요. 하나는 시간이 없는 거죠. 기존에 2~300만원 연봉을 받으려면, 시간이 전혀 없어요. 성과주의적인 기계 속에서 정성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간의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계속 만나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강의만 들으러 다니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제가 아까 엄마당 만들자는 이야기까지가 결론이 난 모임은 계속 같은 엄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을을 만들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옛날에는 학교에서 죽치고 있다가 하버튼 죽치고 있던 곳이 많았는데, 그 공공적인 죽치고 있는 장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리고 관계의 틈 특히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남한테 말을 걸고 관계 맺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뭐 학원 다니고, 이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나 홀로 일중독상태에 빠지든가, 아니면 굉장히 거기서 한번 떨어 나가면 학습된 무기력상태에 빠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비티 같은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것이 최근에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실험을 하는 거죠. 1분이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난감모임을 해라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 난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풀려고 하지 마라 고 하는 것이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풀려고 조금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다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가 비슷한 것 같다고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실제로 정말 난감하고 나는 그 난감한 상태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쫓아내면됩니다. 그런 난감함을 충분히 내지는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심심모임이라고 이웃들하고 모여서 같이 냉장고에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서 먹는 거예요. 이런일이 있으면 자살은 안하죠. 저는 이게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심모임이나 난감모임을 하시고 동네부역을 저는 하자센터에서 이런걸 하는데 동네부역을 하고요 나누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놀이터라고 놀이터도 곳곳에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데 있으면 만들고, 저는 관에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놀이터에서 애들 노는거 봐주는 동네 이모나 아저씨들한테 돈줘라. 월 백만원씩만 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느린시간으로, 멈추어 있을 장소와, 느슨하고 지속적인 관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고 저는 그것을 우정과 환대의 시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1-2 정운수 / 스포츠평론가 거대한 전환 - 아름다운 축구 아름다운 삶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뒤에서 조한혜정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는 깨우침을 얻어서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철희 소장님께서 언급해주셨습니까 아름다운 축구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조한혜정선생님께서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함께 나눠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까지는 아직 못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축구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가능하다면 아름다운 야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아름다운 발야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Football club 바르셀로나, 예 오늘은 바르셀로나 라는 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엄청난 경기, 엄청난 우승, 엄청난 트로피, 트로피 컬렉터 팀인데요, 이들이 하는 축구를 티키타카,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갔다할 정도로 패스가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들이 패스를 잘한다고 해서 패스 우애 연대 이렇게 기계적으로 추출하면 안되겠습니다만은 1990년대 요한 크루이프 감독이 재임하기 시작하면서 패스길이는 10m를 넘지 말아야한다.

그래서 이 후 펩가르디올라 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바르셀로나 축구를 한 20년 정도 하는데 정말 현란한 패스워크라는게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012~13년 시즌에 전반기 19경기만 뛰었는데, 그때 거의 경기당 700개 이상 13000의 패스를 할 정도였는데 그때 2위를 달리고 있었던 레알마드리드가 패스 숫자가 8000개 정도, 2011년 3월 이 경기는 제가 정말 밤새서 보면서 리플레이로 한 번 더 볼 정도로 왜냐면 이 바르셀로나가 너무 잘했다기보다는 아스날이 너무 못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 16강 2차전이라는 막중한 경기에서 아스날이 200번 안되죠, 199번의 패스를 할 때 바르셀로나는 무려 700번 이상의 패스를 하면서 슈팅도 바르셀로나가 17개, 이날 아스날은 단 한 개의 슈팅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하다보면 어쩌다가 한 두 개씩 찰 수도 있을텐데, 슈팅도 한 번도 못했을 정도로 이 바르셀로나 하면 패스축구의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기를 뛰었던 아스날의 벵거감독 같은 경우는 메시나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통해서 말하기를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보는 것 같다. 이길 수가 없는 팀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구요. 그의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런던 웹블리구장에서, 있다 나중에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까만 맨유가 맞붙었는데 맨유도 이때 파죽지세로 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골키퍼 판데사르도 바르셀로나와 메시가 가속도가 붙었을 때 우리는 한순간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이날 메시의 패스성공률은 91%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패스를 잘하는 팀이니까 굉장히 뛰어난 팀 이구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볼 순 없죠. 바이에르 뮌헨 같은 경우에는 절만 이하의 패스로도 어느 정도 승리와 골을 넣으니까 여기까지만으로 바르셀로나를 극찬하기 보다는 그냥 바르셀로나는 패스를 잘하는 팀이다 이정도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전 세계 많은 클럽들, 우리나라 FC서울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유소년 육성시스템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별칭으로 라 마시아(La Masia, 농장)라고 부르는데 바르셀로나 홈구장인 캄프누 바로 옆에 이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장한 수많은 세계적인 스타들 한구에 한 사억오천 정도 버는 경기 없는 주에도 한 사억오천 정도 벌고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메시라든지 이니에스타 라든지 피케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다 여기에서 탄생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길게 투자 한다 이것이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돼있지만 바르셀로나의 요한 크루이프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기억은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렬의 순간들 이런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프누에 가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뭐라고 써져있냐면 카드섹션으로 돼있어서 스펠링이 좀 그렇습니다만, 클럽 그 이상의 클럽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나의 구조조. 뭐 얼마든지 누구라도 이렇게 이런 단어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만 바르셀로나가 외치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까지의 뭐 패스축구 이런 건 팀의 전술입니다 감독이 바뀌면 뭐 강력한 전술로 패스보다는 스피드를 살리는 그런 걸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따라서 패스만이 아니라 바르셀로나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관점입니다. 20만명 가까운 조합원이 주인이구요. 이 캄프누에 올라가다 보면 축구 박물관이 있는데 그 현관에 'DEMOCRACY' 민주주의 딱 써있습니다. 'The Members, BARCAs Owners' 조합원이 주인이다. 우리가 최상의 가치로 이야기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것까지 연상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 아니겠습니까만 어쨌든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라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라도 1년 넘게 조합원이라면 이사회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클럽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구요 1주1표가 아니라 1인1표다.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보통의 대규모 스포츠클럽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엔 주식회사라고 했을 때 대주주 주식 많은 사람이 만



약 1000주 있으면 1000표죠. 한주 있으면 한표 갖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인1표 한사람이 오직 한표만 있다. 그러니까 18만명에게는 18만표가 있는거죠. 이런 것도 바르셀로나의 좀 다른 면모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스페인의 경우만 해도 에틀레틱 빌바오 라든지, 독일의 경우엔 아예 팬이 51%이상을 소유 해야만 클럽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축구 팬 그 서포터스 조합원들이 81.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겠죠. 그 지역사회의 어떤 클럽문화, 그 지역사회역사가 이런 수치가 다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아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원가 우리가 배워야할 새로운 가치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기에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한다 협동조합이다 여기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면,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모습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때의 이 유니폼, 이 유니세프라는 유니폼은 전 세계 축구 산업가들에게 센세이션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선수들이 이 정 가운데 붙는 이 여기에 기업이름이나 금융기업, 전자기업, 자동차기업을 연상하면, 수천억짜리 광고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06년도에 바르셀로나는 유니세프와 계약을 하면서, 유니세프라는 것을 붙이고 거꾸로 유니세프에 연간수익의 0.7%, 0.7%만 해도 이 수익이 엄청난 구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뭐 유니세프가 바르셀로나한테 돈을 줄 리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바르샤, 바르샤가 약칭입니다. 애칭이구요. 이것이 바르샤는 영혼을 가진 클럽이다. 이런 것을 주장 할 수가 있는 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광고판에다가 유니세프, 오히려 기부하는 광고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는 최근 들어서 카타르항공이라든지 카타르재단 이런 걸 붙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연봉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2010년에 약 6300억원의 부채를 짊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위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합원들의 90%가 이 결정에 찬성하였습니다. 클럽을 살려야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르셀로나가 이 중요한 공간에 유니세프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만으로 축구 그 이상의 클럽이라고 말할하기도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그 이상의 클럽 이건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르셀로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에 스페인을 군부독재로 장악했던 프랑코 총통을 여러분들께서 보고계십니다. 마키엔대는 히틀러와 함께 아주, 이때 스페인을 추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파시즘국가들이 있었어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이런나라들 파시즘을 신봉하면서 전 세계를 야만적인 전쟁으로 밀고 나갔던 이런 나라를 바로 추축국이라고 하고 거기에 수장이 바로 프랑코 독재정

부였었는데, 이 프랑코독재자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정치적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정세력의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독재정부에 맞서서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하고 운동하고 그래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바르셀로나 팬들이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단든지, 그러자 이 독재정권이 경기장을 폐쇄한다든지, 이미 1925년에도, 그리고 36년에는 이 타락한 왕당파 부패한 귀족들 그리고 너무나 타락해서 더 이상 백성들이 십자가의 가치를 부정하기 시작한 가톨릭교회, 이런 중세적인 힘들이 하나의 무력을 원하게되고 그 무력이 바로 프랑코 군부독재가 됩니다. 이 군부독재하에서 스페인이 자기네 나라, 어쨌든 강제복속을 했던 뭐했던 자기네나라 백성들한테 폭탄을 투하해달라고 프랑코가 히틀러한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비극에 대한 강렬한 절규로서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까지 있을 정도였죠.

이때 바르셀로나의 축구팀 구단주 조합원들이 여기에 맞서고 저항하고 해온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 가능했느냐. 스페인은 대체로 쇠락한 왕조 부패한 지주, 타락한 교회라는 중세적 쇠락 속에 있었는데, 카탈루냐 지역의 수도였던 바르셀로나만큼은 근대적인 도시이자 산업노동이자 민주주의적 가치가 전개되고있던 새로운 도시였었습니다. 그 새로운 도시의 축구팀은 바로 근대도시산업노동자들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축구팀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많은 부침이 있었습지만 그 정신만큼은.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도 다른 협동조합과 다른 것이고, 그들이 하는 패스도 다른 팀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카탈루냐 사람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벗어나자 다양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펼쳐질 때 특히 마드리드와 펼쳐질 때 이런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래서 바르샤, 바르셀로나를 단지 패스를 잘한다.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 협동조합이다

이런 것보다는 1890년대, 19세기 말에 창단된 이 클럽이 20세기의 잔혹한 시대를 통과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축구장에서 실현된 최소한의 민주적 가치, 인간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 때로는 돈벌이도 하고 때로는 축구할 때 반칙도 하고 하지만 그 정도는 이 바르셀로나가 지키려고 했던 민주적 가치, 인권적 가치에 비하면 그래도 현실적인 어떤 이유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를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자면요. 축구는 어느 나라에서나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스에서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또 신라화랑들도 저 구석기시대도 이렇게 패널리틱을 맞이한 석기시대인들의 상황에도, 굉장히 원초적인 종목이다 라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종목이 왼쪽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내려오는 축구종목입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이것이 아직도 칼치오리라고 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근대교를 위해서 다 오늘날의 제도로서의 축구로 변하게 됩니다. 협동, 단결 해가지고 근대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회사원인데 노동자든 양성해야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산업노동지역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단순히 협동 규율 책임감 이런걸 넘어서서 현실사회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응어리진 마음들 가슴 아픈 그리고 박탈감 외로움 이런 것을 과감하게 비폭력적으로 응원을 함으로서 자기팀에 대한 열렬한 서포팅을 통해서 이러한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의 억압 정서적 외로움을 털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축구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좁게 보면 노동자문화, 크게보면 서민 시민문화로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샌더랜드라던지 블랙번, 리버풀 이런 도시에서의 축구들, 그리고 이것이 아프리카나 남미로 가면 그 나라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와 정체성에 의해서 이 축구가 한번 더 버전 업 돼서 개인의 창의와 놀라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 축구장이 또 한번 변화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축구가 어떻게 됐었나하면 거대한 미디어와 기업 이렇게 해서 엄청난 문화사업으로 되어있고, 이 문화산업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즐기려고도 가고요, 또 이렇게 동네아저씨들끼리 이렇게 오늘 축구한다 이렇게도 가지만 때로는 야만적인 파시즘과 거친 인종주의가 유럽의 축구장을 강력하게 물들임으로서 여기는 이탈리아인데, 과연 세상이 다 혼탁하고 세상이 다 야만적으로 가는데 축구장만이 신성하게 남아있기는 어렵다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축구장은 이 발로텔리 선수가 제발 인종차별 구호 좀 외치지 말라고 하소연을 할 정도로 이렇게 혼탁해지고 위험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베를수 코디 같은 이탈리아 정치인이 잘 보여주다시피, 축구와 파시즘과 팬덤이 결합되어가지고 전 세계의 우경화상황, 전 세계의 신자유주의 상황 속에서 축구 그 자체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바르셀로나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좀 다르다는거지요.

이 어마어마한 민족주의의 열기를 보십시오. "This is Russia", 자기들이 지배했던 폴란드의 한복판에다가 여기가 러시아다 라고 했을 때 이곳은 그나마 경기장 안이지만 경기장 바깥에선 지금 폴란드팬들과 러시아팬들이 폭력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되면 좀 안되겠죠. 여기에 저항했던 그런 많은 인사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독재정권에 맞섰기 때문에 세계로 떠돌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는 문어보다 뭘 잘 못맞추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브라질 군사독재에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를 떠돌고 있는 펠레 라든지요, 장마리엔르펜, 프랑스 극우파인종주의자들이 벌이고 있는 우익 맹동에 맞서서 프랑스의 퐁레랑스의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지네펀 지단이라든지요, 제발 이 국가대표팀경기가 열릴때만이라도 총을 내려놓자 라고 하는 코트디부아르의 드 록바 선수라든지요, 그리고 독일의 공사나 도르트무트 팀들이 어떤 이벤트 삼아서 무슨 선거때마다 시장통 돌아다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드시 모든 팀원들과 매니저들이 자기들의 서포터즈인 탄광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함께 탄광경도를 다녀보는 이런 축구문화들이 존재하고 있는겁니다. 그 정점에 바르샤가 있다. 그 정점에 바르셀로나가 있다. 이들이 돈을 버는 이벤트들도 얼마든지 돈을 버는 이벤트들도 많겠지만, 이들이 피스투어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들리스트, 중동지역의 그 화약고 같은 곳에, 팔레스타인에게서 이스라엘에 가서, 가지지구에 가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클럽이상의 클럽이라고 말할 때 단지 패스를 잘한다 그 이상이고요, 협동조합이다 그 이상이고요, 어쩌면 20세기의 야만적인 시대에서 축구라는 굉장한 아슬아슬한 종목을 가지고 그나마 축구공이 가질 수 있는 이 450그램 짜리가 평화의 상징이 될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르샤가 지켜왔다는 것 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웹블리 구장에서 We love football 이라고 자기네들의 서포터즈 좌석을 가득 채우면서 맨유와의 경기를 3:0으로 이겼을 때 저는 아낌없이 박수칠 수가 있었습니다. 인저리타임까지 길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3 권용진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 일상의 전환 - 우린 동네병원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한 대로 거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고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꼴라 메고 나왔어요. 그런데 대기실에 앉아 계속 생각을 해보니 이게 정말 나와 어울리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걷어붙이고 나왔습니다. 괜찮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제도나 규범의 틀을 벗어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목은 “우리 병원은 동네 병원입니다”예요. 모두가 큰 병원을 지향하지만 저는 동네병원을 해보겠다고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진에 재래식 병기에 앉아 불일을 보고 있는 저 꼬마는 제가 아닙니다. (웃음) 저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 찾을 수 없어 그냥 가져왔고, 혹시 저 사진이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초상권 침해 관련한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농본기가 되면 학교에서 모도 심고 보리도 베고 보리밭에서 자라는 팽을 키워 집에 가져다 키웠습니다. 저는 70년에 전라북도에 자란 촌놈입니다. 도시가 뭔지도 잘 모르고 도시문명을 가까이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숫자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0시까지 중3 때는 11시, 고1 때 10시, 고2 때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했고 고3 때는 24시간, 합숙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에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었고 그냥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유일한 희망 같았죠.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 잘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대학을 갔습니다. 전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는데 어느 날 집회에 우연히 나갔다가 ‘아 이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구나’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대학을 9년이나 다니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못 해서 유급도 당했고 휴학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27인 제게 맞지 않는 숫자인데 최루탄 직격탄을 피하다가 옆에서 폭발한 내란 때문에 파편 27개를 맞고 병원에 실려갔으나 하나도 못 뺐어요. 플라스틱 인가 봐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또 다른 안이었던 것 같아요. 숫자 4, 이게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우와)저는 아들만 넷입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제 아버지도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저출산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무도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저출산을 전공하는 교수님도 애를 안 낳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사회에 실천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살아야 한다’란 마음을 갖고 일단 낳았습니다. 4명. 괜찮죠? 전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동의해줬기 때문에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3-5라는 숫자를 늘 저가 선진국 사람들보다 3배에서 5배는 더 일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는가 보면 사실은 어렸을 때 겪었던 가난을 극복해보고 싶었고 빛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인 소박한 꿈을 가지고 그 가난 때문에 생긴 나의 콤플렉스를 어떻게든 극복해보려 했던 게 저의 열심히 살아온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제 자신을 발견하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나 하면 어렸을 때, 세상은 잘 몰랐지만 농촌에서 팽을 잡던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기억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생각해보면 그때는 ‘우리 동네’가 있었다는 것 위입니다. ‘내겐 좋은 동네가 있었는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동네 어른도 있었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전 이런 세상을 다시 만들어보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좋은 동네에는 존경받는 어른과 같이 공동으로 돌보는 돌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읍내에 한 분 계시는 의사선생님, 목사님, 신부님 모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을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 존경받는 의사가 되어 좋은 동네를 만들어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병원에는 잘 고치는 의사가 있어야 하죠. 치료를 잘하는 기술과 지식을 최고로 유지하는 의사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네 병원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시립병원은 시민들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병원이라는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 또한 행복하고 열심히 일하고자 했으면 좋겠어요. 내 병원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믿고 그곳에서 도움받는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북부 시립 병원을 소개해볼게요. 우리 병원의 경영철학은 ‘1+1>2’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제 외침이기도 한데요. 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항상 둘보다 작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어요. 사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면 분명히 모여서 더 좋은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확신을 가지고 있고 ‘더하면 커지는 우리’를 병원의 경영 철학으로 정했습니다.

‘함께 캠페인’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문화운동입니다. 월 화 수 목 금으로 나눠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자신과 함께, 병원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기로 정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는 날을 정한 것은 어느 날 저를 돌아보니 제가 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반성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의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 이걸 제 꿈이거든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을 만들어 금요일 5시 반이 되면 캠페인 하는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퇴근하자고 사람들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퇴근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전 금요일을 잘 보내는 사람이 더 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여러분께 북부 시립병원의 시민위원회에 대해 소개합니다. 시민위원회엔 동네 세탁소 사장님, 교장선생님, 교회에서 오신 봉사활동자, 복지관 관장님, 간호대학교수, 환자 단체 대표, 시민 단체 활동가 등등이 많은 분들이 시민위원회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싹 경영실적을 전부 공개합니다. 심지어 의료사고가 난 것도 공개해 어떻게 처리했고 해결하고 있는지 알립니다. 일단 사고가 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가서 무조건 사과합니다. 일단 사과하고 벌을 받되, 대신에 다음에 또 그러진 말자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회가 좋아지는 과정이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어 이 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시작이기에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병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 대화하며 노력하고 바뀌길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의 자랑인 301네트워크입니다. 301은 보건 의료복지를 하나로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편하기 오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높은 병원 문턱, 지나치게 많고 어려운 병원 제도, 의료제도 안에 있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 이것이 현재의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의 현실입니다. 가난하면 병이 잘 걸리고 돈 걱정에 병원에 가지 못해 병은 악화됩니다. 그럼 직장을 잃고 더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빈곤의 악순환, 질병의 악순환입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 우리 시립병원이 해야 할 일을 하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복지 제도까지 찾아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자 했다. 복지와 의료 그리고 다시 복지로의 선순환을 만들고자 했다. 누구든지 전화하면 됩니다. 복지관, 구청, 보건소, 동네의원, 일반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우리가 평가하고 나가서 모시고 오거나 입원도 시킵니다. 우리가 해결 못하면 큰 병원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만 하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위원을 만들기도 했고 외부 기업의 후원을 받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료비와 간병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천 원이라도 받으려고 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천 원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불 능력에 한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받고자 합니다.

한 할머니를 7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안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계속 찾아가서 병원에 모시 고와 고쳐드렸고 웃으며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동네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만 환자를 업고 나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스스로 김장김치를 만들어 배달하기도 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찾아가 운동도 가르쳐드립니다.

한 분은 돈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암 말기에 재발이 되었고, 우리 병원에 모셔와 와서 좋은 임종을 맞으셨지만 이 분이 병원에 못 간 이유는 부부 모두가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이미 저희가 신고를 받았을 때는 말기에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셨습니다. 임종을 잘 맞이한 것은 다행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된 데에 있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고칠 것이 아직도 많은 나라구나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도서 관도 있고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을 걸어두기도 하고 함께 운동을 가기도 합니다.

2014년 우리는 '재밌는 병원'이란 모토로 일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에는 과학과 기술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이 발전이 되어왔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건강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소홀하게 다뤄온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재활치료실을 장애등급을 정하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다. 그래서 무대가 있는 치료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는 특강도 하고 있고 가난해도 병원에 올 수 있는 301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공동의 돌봄이 구현되도록 자신의 재능으로 환자와 나눌 수 있는 자원봉사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숲을 활용해 산림치유와 결합해 자연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전시공연 웃음이 있는 상설전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 생각 이유는 급속 성장의 후유증 그리고 과잉의 시대 때문이라고 봐요.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돌볼 수 없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경쟁하며 건강이 악화되고 가난한 사람은 안 좋은 음식들을 더 과하게 먹게 되는 거죠. 이를 해결하는 것은 병원이 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습관을 고치는 것은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작은 것들이 일상포플로 모아져야지 사회가 좋아진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거죠?

1960년대 한국과 2010년의 지진 이후의 아이티 사회 외관은 매우 흡사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나라는 더 이상 없고 우리를 배우고자 하는 130개국만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 혁신 개혁이 우리가 할 일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갈등과 냉소를 해결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운동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과 제도는 인류가 생긴 이래 한 번도 모두를 만족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법과 제도를 계속 바꾸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바꿀지 꿈꾸고 이를 위해 어떤 실천적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4 강풀 / 만화가 일상의 전환 - 길고양이급식소프로젝트



안녕하세요. 강동구에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급식소가 왜 생겼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양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0년도부터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고양이도 길고양이인데요, 14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은 이 검은 고양이를 입양해왔었어요. 길고양이 수명은 평균 3년이라 합니다. 근데 제가 데려온 고양이는 14년 동안이나 살고 있습니다. 놀랍죠? 저희 부모님은 펜션을 하시는데요, 한 손님이 고양이를 버려놓고 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 고양이를 갖다 버린다고 하는 걸 듣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갔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전 길고양이 출신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작업실을 옥탑방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길고양이에 대한 제 관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전 캣맘이었기 때문에 제가 살던 집에서 가끔 길고양이들 밥을 주곤 했는데 이사를 가게 되니 그 고양이들이 먹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된 거죠. 다행히 옆집 아가씨에서 같은 캣맘으로 고양이들 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때부터 저는 길 고양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밥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강동구 캣맘들이 모여보자고 제안했고 이 트위터를 본 13명 정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적인 캣맘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는 곧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캣맘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깨진 유리가루를 밥그릇에 넣어 놓기도 했지요. 저는 지금 반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를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나가 시면 다른 나라 고양이들과 우리나라의 고양이들은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고양이들이 차에 올라가서 편히 앉아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며 어울려 지냅니다. 일반화하기 힘들지만 다른 나라 고양이들은 사람들을 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고양이들은 그 반대에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고양이를 싫어하기에 고양이가 사람을 피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

이 고양이들의 생존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양이를 싫어할까 고민해보았는데 첫째는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찢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울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엔 철저히 인간 위주의 생각인 것 같아요. 역으로 제 목소리를 고양이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새끼를 너무 많이 낳는 자입니다. 이것 또한 인간 위주입니다. 이런 이유가 합쳐져 개처럼 사람들 따르지 않는다는 결론이 맺어집니다. 이것을 어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래 고민했고 그 고민 끝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캣맘들은 밥을 주다가도 혼이 난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주소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사를 하다 보니 외국에 다양한 사례를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탄불, 이탈리아, 대만, 일본 등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 우리가 못할 건 없죠. 그래서 저는 강동구청에 찾아갔습니다. 그간 모아온 많은 자료를 모아서 찾아갔는데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3-4개월간 준비를 하여 장문에 편지도 쓰고 하며 길고양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청과 수많은 회의를 해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목하자. 이는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과 싸우지 말자는 말이에요. 사람의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당신을 왜 싫어하는데? 라고 하는 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엔 고양이는 좋아하지만 쥐는 싫어하거든요. (웃음) 저처럼 상대방도 고양이를 싫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밌었던 것은 구청에서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구청에서는 하루 10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어갔다는 등.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의 예산이 아닌 기부 예산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위한 사료 값, 밥그릇, 급식소 등인데요. 세 번으로는 구역별 캣맘들의 자율 관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고양이를 싫어하는데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고양이 밥을 사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캣맘들을 조직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NR 사업과 병행한다입니다. 이것은 반대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NR 사업이 뭐냐면은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놔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고양이를 고자로 만들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도 고양이에 대해 오랜 고민을 해본 결과 이것은 그나마 차선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사실 지금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급식소 제작을 준비했습니다. 급식소는 비를 피하는 방수 막을 만들 것, 야외에 놓기 때문에 물에 젖지 않도록 바닥 고무창을 까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길냥이 급식소를 표시하고 이것이 강동구청의 자산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관의 자산이라고 하면 함부로 못 건들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쉽지 않았고 구청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굉장히 호의적이어서 일이 잘 진행되었어요. 각 동사무소 앞에 길냥이 급식소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캣맘들의 반대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고양이가 밥을 먹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한 번에 진행되기보다 서서히 진행되어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훼손 방지를 위해 구청 앞에 급식소를 놓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하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일반 시민부터 기자들까지. 이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길냥이 급식소를 홍보하기 위해 강동구청 소식지에 제 만화를 실었습니다.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인터넷에도 소식을 올렸습니다. 굉장한 반대로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TNR 때문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시작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박수)

작년 4월 15일부터 강동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1년간 진행했습니다. 암사동, 길동, 고덕동, 상일동에 다 있어요. 이게 잘 시행이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매일 새벽에 집 앞 구청을 지켜본 결과 잘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 각 동사무소 앞에 캣맘들이 전담해서 밥그릇도 씻고 밥도 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첫 번째로는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전에는 10개의 민원이 있었다면 지금은 3개 정도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구청, 파출소, 동사무소, 보건소, 구민회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 2013년 11월 동물 보호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저도 참 놀랐지만 더 놀랐던 것은 구청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될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원래 취지였던 급식소 주민 신청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성급한 것 같아 이것은 반대인데요. 캣맘들이 신청만 하면 급식소를 갖다 밥을 줄 수 있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좀 더 알려지고 난 후에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확 시행했다가 안 좋은 반응이 올라 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은 사료 확보의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사료를 6톤을 샀습니다. 근데 고양이들이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잘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동사무소 주변 주민들 중에 싫어하는 주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때문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화입니다. 조직

화라는 것은 각 지역 각 급식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예요. 다음으로는 이것이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이 되기를 노력하는 것이고요. 제 바램은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것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딸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잡아 죽여도 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갔고 이것을 내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가장 뻔한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생명도 존중받는 사회라면 우리가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 향통 /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청년취재단 도시생활백서 - 일상의 전환을 말하다



2014년 일상포플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행사가 3월 19일 홍대 브이홀에서 열렸습니다! 오픈테이블 개설자, 열정대학 수강생, 커플대첩 팔로워 등 150여명이 참석해주셨어요. 강연은 총 4분의 연사들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1부 조한혜정 교수, 정윤수 스포츠평론가 그리고 2부에는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 만화가 강풀님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1부 2부 강연 이후에는 연사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각각의 talk time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님의 진행으로 1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첫 강연자이신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한혜정 교수님! “마을교실의 시대를 열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조한혜정 교수님은 다양한 문제적 사례들을 통해 개인적 삶과 사회 체제에 대한 생각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주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고민하게 해 주었고, 방향성이 분명한 강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급되었던 사례는 대부분 자본주의와 산업시대에 별어진 문제적 현상들이었는데, 구체적으로 2008년 월가파동, 파생상품 등을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는 사회적 소통과 합의의 필요성, 에너지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는 지역별 생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해주셨어요. 90년대 후반 이후 몰개성적인 한국사회가 조금씩 변화해왔다는 사례도 언급해주셨는데,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되었지만, 정책이나 사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신자유주의가 팽배했던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지요.

이를 들어 개인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자유로운 시대라고 언급하신 것이 기억에 남네요. 사회는 소통, 돌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경쟁이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할수록 실제로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일들은 간과되어 왔다는 이야기에 깊게 공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시되는 사회 생활을 '모든 것이 대기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시대(All that is melt in the air)'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교수님은 3M(Market, Money, Me)에서 3E(Excellence, Engagement, Ethic)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추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자센터에



서 진행하고 있는 난감모임, 심심모임, 그리고 동네부엌, 모음놀이터 등을 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리해주셨어요. “느린 시간, 멈추어 있을 장소, 느슨하나 지속적인 관계”

다음 강연은 정윤수 스포츠평론가님의 강연입니다!

정윤수 평론가님의 강연은 아름다운 축구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상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은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왜 그렇게 세계팬들의 호응을 얻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답해가며 진행이 되었는데, 축구나 프리미어리그에 대해 잘 몰라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우선 티키타카라 불리는 패스축구, 라마시아라는 유소년 육성시스템 등을 들어주셨어요. 뛰어난 실력과 미래를 보고 길게 투자하는 시스템 등이 바르셀로나를 유명하게 만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르사의 축구클럽이 협동조합임을 알려주셨는데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합원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단순한 축구클럽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클럽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의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르셀로나의 행보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유니세프와 계약당시 유니폼에 유니세프 로고를 붙이고 연간수입의 0.7%를 기부하였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1890년대 말에 창단된 클럽이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축구장에서 실현될 민주적가치, 인간적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대화 되는 사회와 함께 축구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환경에서 이에 저항했던 인사들과 그 정점에 바르셀로나가 있음을 들며 강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부가 끝난 후 관객들과 함께하는 talk time! 정말 많은 분들이 귀기울여 경청해주시고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이어서 1부와 2부 사이에는 피터와솔래팀의 축하공연이 있었는데요. 유쾌한 피터와 솔래의 공연에 고조된 분위기를 이어 2부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2부의 첫 순서로 세 번째 강연을 해주신 분은 서울시북부병원 권용진 원장님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제도나 규범을 벗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셨어요.

우선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과 그 시간이 왜 행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낸 삶이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시절 동네에는 존경받는 어른과 공동의 돌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병원을 만들어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싶다는 꿈을 꾸신다는 원장님! 그럼 좋은 병원이란 무엇일까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병원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최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병원이다 생각할 수 있고, 근무하는 직원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인식처가 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이야기해주셨어요.

이러한 원장님의 생각은 구체적인 사례로 실현되었고, 그러한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해주셨어요. 우선 1+1>2 라는 수식으로 표현



해주셨는데, 사람은 모여서 더 좋은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신념이 병원의 경영철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한 조직문화 및 체계, 시민위원회를 통한 시민들과의 소통 등 그동안 병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301네트워크를 소개해주셨어요. 301네트워크는 의료와 복지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쉽게 올 수 있도록 하기위한 네트워크입니다.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노력으로 질병의 치료 뿐 아니라 복지제도까지의 연결을 다양한 외부의 도움과 병원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현해나가고 계셨습니다. 병원장님의 강연은 재밌기도 했지만 감동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따뜻한 목표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를 실현해 나가시는 모습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직원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 의료부분이 기술 중심이 아닌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이 급속성장의 후유증이라는 생각을 전달해주셨어요. 조한혜정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고쳐 나가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말씀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를 배우고자 하는 나라가 있을 뿐, 창의적인 개척이 우리가 해야 할 일며, 한국사회의 갈등과 냉소를 극복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활동이 될 것이라는 생각 등, 사회자님의 말처럼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마저 바꿔주는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마지막 강연은 만화가 강풀님의 길고양이급식소였습니다.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가 왜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어릴 적부터 시작된 고양이와의 인연, 길고양이였던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음 등을 들며 개인적인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캣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이는 고양이와 사람이 서로 피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고양이에 호불호는 개인의 취향이지만, 너무 인간위주의 사고가 고양이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성동구와 진행한 길냥이 급식소 프로젝트! 앞서 언급했듯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개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구청예산이 아닌 기부로 예산을 마련하고 시행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길냥이 급식소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더불어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함께 말씀해주셨어요. 이 땅이 누구의 땅이였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강풀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부

클로징세션 후기

향통 / <오픈테이블:일상포플2014> 청년취재단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상상하며



21일 저녁 은평구 청년허브 다목적홀에서 오픈테이블 주간을 마무리하는 클로징 행사가 있었습니다! 테이블개설자, 참가자 할 것 없이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클로징 행사에 참석해주셨는데, 무작위로 조별 자리가 정해져 간식을 먹으며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분들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인연을 쌓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지요. 저희 조에는 그린트러스트 단체분들, 한옥마을 만들기 대표님, 금융정의의 관련 정책을 만드는 분, 예술인 기획자 지원에 관한 테이블개설자, 민달팽이 유니온 분들이 함께해주셨어요.

곧이어 시작 된 첫 프로그램! 테이블별로 나누어 준 의제들을 기준을 정해 카테고리화 하는 시간입니다. 오픈테이블 주간동안 만들어진 의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특정한 순서나 기준이 없이 나누어진 의제들을 하나로 모아 나름의 기준을 정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의제를 분류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설명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함께 하는 작업을 통해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풀고 각 의제가 어떤 부분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어요. 저희 테이블에는 각 의제의 발제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왜 이러한 의제를 제시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들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2019년 3월 21일에 대한 신문기사를 만드는 시간! 우리가 바라는 5년 후의 모습을 제약 없이 상상해보았어요. 잡지와 신문을 오려 붙이고 크레파스로 알록달록 꾸미다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모두들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는데요. 참석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석자 분들이 바라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양한 참석자분들만큼 다양하고 재치 넘치는 발표로 유쾌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발표한 내용 중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을 옮겨 보도록 할게요.



4조의 경우, 3도4촌이 가능해 지고, 주 노동시간 30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 등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었보이네요.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세계를 재패한다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꿈도 이야기 해주셨어요.

6조의 경우에는 전체 카테고리 중 마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아우디가 카셰어를 위해 차량을 기증했다는 재치 있는 기사와 더불어 공동육아, 도서관의 발달 등을 꼽았습니다. 4조의 경우, 3도4촌이 가능해 지고, 주 노동시간 30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 등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었보이네요.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세계를 재패한다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꿈도 이야기 해주셨어요. 6조의 경우에는 전체 카테고리 중 마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아우디가 카셰어를 위해 차량을 기증했다는 재치 있는 기사와 더불어



공동육아, 도서관의 발달 등을 꼽았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성공과 같은 문제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의 일상적인 고민들, 함께하는 삶에 대한 생각, 사람냄새 나는 생활환경 등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77개의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의제만큼 다양한 기사들이 있었지만 결국 행복한 삶, 조금 더 나은 삶에 대한 염원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오픈테이블 주간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가 한데 모여 신나는 분위기를 즐기다보니 어느새 네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5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시간이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바라는 세상이고, 한 발 한 발 이를 위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들이 정책하는 분들에게도 제공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니,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만들어가는 데 첫 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앞으로도 이처럼 좋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즐거운 시도들이 많아지기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만든 의제들을 통해 더 나은 삶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